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
060-700-1080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우리이웃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형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8월 3일(음력 6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 537 호

충남 경찰 불심 '선봉'

도내 19개 경찰서 모두 불자회 가동 '눈앞' … 10월에 축제 한마당

충남지방경찰청은 대전 · 충남의 모든 시 · 군 · 구에 19개 경찰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19개 경찰서 모두에 불교회가 생긴다.

8월 아산 · 조치원 · 청양에 이어 9월 금산경찰서가 불교회를 창립을 앞두고 있다.

지방경찰청 산하의 모든 경찰서에 불교회가 만들어진 곳은 전국에서 충남도가 유일하다. 충남경찰청 불교회는 모든 경찰서의 불교회 창립이 완료된 직후인 10월 충남지역 경찰불자들과 가족, 경승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한마당을 계획하고 있다. 실로 놀랄만한 성과다.

이렇게 충남지역 경찰불심이 하나로 모아지기까지는 경승단 충남지단장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과 김중겸 前 충남지방경찰청장(에스원 감사), 이기병 충남경찰청 불교회장(인사계장 · 경정)의 경찰불교 활성화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충남지역 경찰불심을 모으는 불씨는 2001년 11월 충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한 김중겸 前 청장(에스원 감사)이 지폈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초대회장이었던 김 前 청장이 부임했을 당시 충남경찰청 관내 5개 경찰서에 불교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활동하는 곳은 단 2곳뿐이었다.


장곡 스님


김중겸 회장


이기병 회장

김 前 청장은 당시 수덕사 주지였던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후원을 받아 부임한지 3개월여 만에 충남경찰청 불교회를 창립한데 이어 대전중부, 서산 등 10여곳의 경찰불심을 모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후 충남 경찰불심을 규합하는 역할은 경승단 충남지단장 장곡 스님과 이기병 충남경찰청 불교회장에게 이어졌다. "올해 반드시 모든 경찰서에 불교회를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운 이기병 회장은 경찰불심을 이끄는 '수레꾼'이 됐고, 장곡 스님은 뒤에서 미는 '도우미'가 됐다. 불교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서장과 지역사찰 주지 스님을 찾아가 만나기를 수차례, 지난 6월과 7월 홍성경찰서와 서천, 예산경찰서의 불교회 창립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종교모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휘관이나 다른 종교인들의 시샘어린 눈길은 가장 부담스런 난관이었다.

장곡 스님은 "유독 불교만 튀는 듯한 행보를 다른 종교인들이 좋아할 리 없는게 인지상정"이라며 "다른 종교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불교회와 경승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충남지역 경찰불심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다. 경승실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경목실과 경신실을 함께 만들었던 것. 지휘관이 다른 종교를 가졌을 경우에도 경찰불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협조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조선호 충남경찰청장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일선 경찰서에 봉축법요식과 연등을 달 것을 공문으로 하달하기도 했다.

경찰불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이기병 회장은 "지역사찰에 기반을 두고 협조를 이끌어낸 것이 충남지역 경찰불심을 모으는 원동력이 됐다"고 소개하고,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불교모임이 결성돼 민생치안과 불교가 접목된 새로운 신행풍토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금강산 신계사에서 7월 22일 열린 첫 남북 신도 합동법회에서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공동성명과 통일을 기원하는 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

"통일보살의 화신이 됩시다"

남 · 북 신도 신계사서 첫 합동법회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측의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도들과 북측의 조불련 전국신도회 신도들의 합동법회가 열렸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6 · 15 공동선언실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이하 합동법회)'에는 남북 신도 250여명이 참석해 통일과 화합을 기원했다.

북측에서는 심상진 조불련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서화 서기장, 차금철 스님, 정각 한성기 스님, 연암 이규룡 스님, 혜안 이영호 스님, 라영식 조불련 신도회장, 정영호 조불련 전국신도회 평양시 신도회장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최연 사무총장(중앙신도회)과 김명희 위원(조불련 전국신도회)의 사회로 막을 올린 합동법회는 정인악 중앙신도회 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육법공양 헌향 헌화가 이어졌다. 삼귀의례는 혜안 이영호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라영식 회장(조불련 전국신도회)은 대회사에서 "우리 불교도들은 애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이어 평화수호를 위한 반전평화공조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땅 위에 지상정토를 세우는 통일보살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의정 회장권한대행(중앙신도회) 역시 대회사에서 "민족의 역량과 불심을 모아 통일 국가 통일 불교가 되기를 서원"했다.

글 · 사진/금강산 신계사=강지연 기자

하와이 영어 · 역사캠프

本社 주최, 7월 28일 출발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는 부다피아 영어 · 역사문화체험 캠프가 7월 28일 시작, 8월 18일까지 21박 22일간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린다.

17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원어민 교수진의 미국의 어학연수기관 교재를 통한 단계별 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일간 붓다뉴스에 마련된 '김원우 기자와 함께 하는 하와이 캠프(hompy.buddhapia.com/homepy/hawaii)'에서 참가자들의 생활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소개한다.

김원우 기자

경주 황룡사 복원한다

문광부, '경주 역사문화도시사업' 발표

한국사상 최대 거찰 황룡사(사적 제6호) 복원이 추진되고, 경주 불교 유적지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린 선도사업 보고회에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광부는 2034년까지 30년간 2조 3천840억원을 들여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완성하며, 우선 1단계로 2009년까지 △황룡사 부분 복원 △불국토 남산과 종교유적지 관광환경 조성 △지역활성화를 위한 명품관광 거점 조성 등의 계획이 추진된다.

황룡사 복원과 관련,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황룡사에 금당 건립 및 이를 둘러싼 회랑의 부분복원이 모색되고 있다. 황룡사 복원 방안은 2006년에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불교성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남산의 공간 체계를 개선하며, 도로정비, 불법분묘 철거, 경주교도소 이전이 추진된다. 또 불국사 성보박물관 건립을 통해 불국사 유적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문광부는 밝혔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일반인과 함께 여름워크숍

한국불교학회, 8~9일 本社 연수원서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 2005년 여름 워크숍이 8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에서 개최된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한국사회'를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보화 · 환경 · 경제 · 남북통일 · 생명공학 · 종교문제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불교적 시각이 사회 제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한 충북대 교수, 정기문 강원대 교수, 김성철 동국대 교수, 윤영해 동국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서재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한국불교학회는 비회원에게도 문호를 개방, 불교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가신청은 8월 5일까지. (02)2260-8507

박익순 기자

하계휴가 관계로 금주 24면 발행



그림 · 조태호

무공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2, 13면에서 만나세요)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깨달음으로 가는 길

戒

2005.8.6~10.9 (총10회 · 10월 9일 회향 보살계수계법회)


종진 스님 (8월 6일)
(해인총림 율주)
계와 율이 생긴 까닭은?


마성 스님 (8월 13일)
(팔리문헌연구소장)
남방불교의 근본계율과 수행


혜능 스님 (8월 20일)
(해인총림 율원장)
북방불교의 대승계율 수행법


지운 스님 (8월 27일)
(동화사 강원 강주)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


법혜 스님 (9월 3일)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계율과 청규


철우 스님 (9월 10일)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경전속의 지계정신


각묵 스님 (9월 24일)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현대사회에서의 율장정신


경성 스님 (10월 1일)
(중앙승가대 강사)
율장정신에서 본 종단의 제도


지관 스님 (10월 8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한국불교 계맥의 자주적 전승

律

l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6시
l 장소 : 동화사 통일대불전
l 주최 : 동화사 · 현대불교신문사
l 문의 : 053) 985-4404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왼쪽)과 대만 포광샨스 싱윈 스님이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에 합의하며 악수하고 있다.

한국·대만 불교발전 '악수'

종무 · 유학승 교류, 싱윈 스님 신계사초청 등 합의

조계종 법장 스님 등 대만 방문단 '성과'

한국과 대만불교가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에 합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대만 방문단은 7월 21일 포광샨스(佛光山寺) 싱윈(星雲) 스님과의 좌담회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을 대만 포광샨스 종무 연수 프로그램에 파견시켜 교육을 받게 한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대만 포광샨스 봉축단이 공식 참여한다 △대만 포광샨스 불자들을 한국 사찰 템플스테이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양국 젊은 학인들의 유학 교류를 지원한다 △싱윈 스님 등 포광샨스 대중 30여명을 금강산 신계사에 초청한다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포광샨스의 현대식 운영법을 본받아 불교를 홍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대만불교와 한국불교가 자비실천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싱윈 스님은 "나라와 나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국제화 시대인 만큼 한국과 대만 불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전해주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법장 스님은 22일 타이베이 정부청사에서 천수이볜 총통과 만나 양국 불교교류와 세계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천수이볜 총통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갈등 관계에 있는 곳에 '훌륭한 교류'를 하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법장 스님은 "대만정부에서 대만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중국불교'를 새롭게 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공동취재단

"10 · 27 법난 규명에 종단 나서야"

대책위, 법장 스님에 건의

10 · 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 · 27법난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법타, 이하 법난대책위)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법난대책위 공동대표 진관, 도선사 회주 혜성,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삼보, 수원 팔달사 주지 성해 스님 등은 7월 28일 법장 스님을 예방해 △법난 진상규명 촉구 △법난 입안자와 명령자, 시행자 규명 △전국사찰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 자료 조사 등을 건의했다.

법난대책위는 이와 함께 △법난이 국방부 과거사 진상 규명위 의제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입장 확인 △국방부 과거사위 위원에 불교계 인사가 배제된 이유 규명 △법난 25주년을 기념한 행사 마련 등을 부탁했다.

법난 대책위는 건의문을 전달한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수련법회정보센터 '검색' 인기

조계종 포교원 오픈 1개월 점검 결과

휴가철을 맞이해 조계종 수련법회정보센터(www.ibuddhism.org)를 방문하는 불자들이 늘어났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사이트 개소 한 달째인 7월 25일 "하루 평균 150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방문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7월 14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현상은 휴가기간과 맞물려 사찰 수련법회에서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검색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련법회 정보센터는 조계종 포교원이 사찰과 신도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수련법회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6월 23일 인터넷에 개설한 사이트로, 그간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사찰은 수덕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덕사 정보는 총 1,853여회 조회됐으며 뒤 이어 월정사(1,825회), 해인사(1,630회), 백양사(1,609회) 순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본 단일 정보로는 월정사 일반인 수련법회가 1,441회로 1위를 차지했다. 백양사 참사람의 향기(1,356회), 수덕사 선(禪) 수련법회(1,148회), 구룡사 여름수련법회(877회)가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 대상 수련법회로는 골굴사가, 어린이 대상으로는 법주사 수련법회 정보가 가장 많이 검색됐다. 이은비 기자

'통플스테이' 예산문제로 '발 동동'

참가비 외 재정지원 없어 준비에 차질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대한불교청년회가 108명의 청년 ·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8월 13~16일 금강산 건봉사와 신계사 일원에서 개최할 '통일 주제 템플스테이'(통플스테이)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참가비 외에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정우식 통플스테이 준비위원장은 "청년 학생 불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60만원 가까운 참가비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재정 공백이 커졌다"며 "남북통일을 발원하는 역사적인 행사인 만큼 관심 있는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문의: 010-2800-1281 정우식 준비위원장

후원 국민은행 023501-04-052395 정우식(통플스테이)

유철주 기자

조계종 종무원노조 설립 신청

총무원·본사주지 등 '반대' 입장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종무원 26명이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노조활동 단체승인 신청서'를 7월 19일 종로구청에 접수시켰다.

하지만 총무원 집행부는 △교단 내 정치활동을 위한 노조설립 △하위직급 종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차과장 다수 참여 △불교신문과 복수노조 등을 이유로 20일 종로구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을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임원진은 △노조 청규 실천 강령에 '정치적 중립 견지' 삽입 △차과장급 실질적 인사권 평가권 부재 △불교신문과 인사, 급여 노무 체계가 다른 사업장 등을 근거로 집행부의 지적을 일축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29일 현재 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일반직 종무원들의 모임인 원우회(회장 양진수)는 19일 "우선 '종무원조합'을 함께 결성하고 '종무협의회' 틀 속에서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착실하게 반영시켜 나가면서 이를 종법상으로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26일 대전 유성에서 연합회 회의를 열고 "종교단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금강산에 청소년불심 '메아리'

파라미타 연합캠프 고성 · 신계사서 개최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7월22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7월 20~23일 약 1천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제8회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캠프를 열었다. 이번 연합캠프는 고성 알프스 리조트에서 시작해 21, 22일 양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진행됐다. 파라미타는 양일간 참가 청소년들을 문수(663명), 보현(653명) 두 팀으로 편성해 북녘 땅을 밟았으며, 외금강 옥류동 신계사에서 '파라미타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문구류를 북측에 건네는 전달식도 이뤄졌다.

이 밖에 캠프기간 동안 백담사, 건봉사 등의 사찰순례, 통일 백일장 및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등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파라미타는 7월 28일 조계사 신도교육관에서 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속의 한국문화탐방' 발대식을 가졌다. '역사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2005년 서울특별시 청소년프로그램에 선정된 이번 문화탐방은 8월 6~11일까지 진행되며,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등을 방문해 일본 속의 한국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다. 이은비 기자

종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조계종, 팀제도입 등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직책 및 직급이 단일화되고 능력형 보직제도가 운영된다. 종무행정 단위로 '팀'제가 도입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증가하지만, 각 급별 정년을 초과할 경우 승호 및 승급 기회를 제한 당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25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존 직책(5종)과 직급(6급)의 이원적 관리체계에서 1급에서 7급까지의 단일 직급 체계가 도입된다.

또 총무원 등에 약 32개의 팀이 구성되며, 4년 이상 근무하면 사원에서 팀장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제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성과급제로 전환되고, 종무원 안거 휴직과 명예퇴직이 신설된다. 남동우 기자

스리랑카 노동자위해 불교문화체험 마당

조계종 총무원은 스리랑카 노동자 100여명을 초청해 평창 월정사와 양양 낙산사 등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8월 14~15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안산 마하보디사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차사라 스님이 스리랑카 노동자들과 함께 동해 삼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02)2011-1830

유철주 기자

고침 본지 536호 3면 '부처님 가르침 영어로 배워요' 기사 중 '현각 스님의 영어회화 강좌'를 '현각 스님의 영어 금강경 법회'로 바로잡습니다.

창종공고 社團法人 大韓佛敎 三界宗

창종 설립취지문

중생은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연기로 이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자비행을 끊임없이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대한불교 삼계종은 다양한 종교, 정치체제, 민족 간의 갈등을 초월한 불성중심의 화해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승가와 재가 구분 없이 사회복지. 문화사업, 사회봉사단체 후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는바 이제 질적 양적으로 확대된 단체를 비영리 법인화함으로써 감독관청의 감독 하에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 땅의 불국토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을 창종 선포합니다.

宗 旨

1. 자각각타(自覺覺他) 2. 각행원만(覺行圓滿)
3. 견성성불(見性成佛) 4. 전법도생(傳法度生)

입종공고

본 삼계종의 종지를 근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불국토 건설에 뜻을 같이하고자 하시는 사찰. 스님. 포교사. 각지역 불교지도자들께서는 언제든지 등록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총본산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 연화사
TEL 031)988-3531 / FAX 031)988-1979

총무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12-4호 자원사
TEL 032)529-5191 / FAX 032)529-6709

종 정 서허 석법수
총무원장 일초 박치훈

※ 종단 주요 임원 스님들 및 각 지역 종무원장 스님들 존명은 본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및 게시합니다.
http:www.samgyeoijong.org

삼계산하단체

● (사) 인해전통문화예술원
● 인해국악관현악단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보존회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교
● 문화관광부 인가 전통예술신문사

유아교육에 명상 접목 신선

교계 유치원 교사 300여명 워크숍 참가

요가·위빠사나 등 체험…새 교육법 제시

불교유아교육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경주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원장 이수경)은 전국불교계 유치원 교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3~24일 경주 동국대에서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 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격년제로 개최되어 3회째를 맞는 올해 워크숍의 주제는 불교 어린이 환경 문화 생태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명상을 통한 생태체험으로 불교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수경 원장은 인성교육의 최고 덕목을 '더불어 살기'라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유아교육에 불교교리를 자연스럽게 접목시키고, 생태중심의 불교 자연관에 입각해 더불어 살아가기(상생)를 위한 유아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인성교육을 위한 불교생태유아교육의 실천방안'으로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친화교육과 다양한 명상활동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명상활동을 통해 자기 내면을 깊고 맑게 바라보는 시간을 경험하고, 자연과 사람, 사물과의 진정한 관계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변세상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다양한 명상활동 체험 프로그램이다.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사 각성 스님이 요가 아사나와 위빠사나 수행을, 도윤 스님이 다도, 그릇·진언 명상 등을 소개했고, 걷기 체험명상의 시간도 가졌다.

또 숲 체험 명상, 물 체험 명상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설명도 큰 관심을 끌었다. 그 외 국내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국가 유아교육 정책과 환경·생태교육·전통문화와 놀이 등을 소개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진언 명상에 대한 도윤 스님의 설명을 따라 진지하게 명상하는 유치원 원장·교사들.

부산 옥련선원부설 옥련 유치원 교사 전은주씨는 "다양한 명상체험이 유익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오감을 느끼고 인지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월정사 삼척포교당 부설 삼척 중앙유치원 정미선 원장은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생태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배우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구재 전시에 대해서는 "일선 유치원에서 준비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일반 유치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구재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글·사진/경주=배지선 기자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불교 1600년 기념 대불련 문화제 페스티벌

"체감온도 -180℃, 행복한 체험의 얼음 속에 빠져보세요."

7월 24일 대구 중구 2·28공원에는 무더위를 뚫고 싱그러운 대학생 불자들의 외침과 웃음 그리고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한국불교 1600년 대회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불자들의 문화제 해피 붓다 페스티벌(happy buddha festival)을 개최됐다.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체험마당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150여명의 대학생불자들이 10개의 불교문화체험 공간을 통해 대구시민들에게 부처님의 세상을 드러내 보였다. 풍물과 댄스, 컵등, 단주 만들기, 제기차기, 불화 그리기와 사경체험 등 공원 곳곳에서 펼쳐진 각종 불교문화체험은 대구시민들의 더위를 녹여주기 충분했다. 배지선 기자

인드라망 교육센터 개관

지난 6월 서울 종로에서 서초구 양재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던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가 7월 29일 교육센터를 공식 개관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263-10번지 혜전빌딩에 위치한 40평 규모의 교육센터에서는 앞으로 옷살림 강좌와 불교귀농학교 강의, 불교기초교리 강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인드라망이 계속 추진해왔던 생명살림불사에 보다 많은 대중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센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2)576-1886 유철주 기자

윤리가 사라진 현대 사회 계율 대중화로 문제 풀자

인터뷰 계율수행대법회 여는 지성 스님

"대학 강사가 여대생을 납치하고, 전방부대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등 비윤리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계율(戒律)의 대중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8월 6일부터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대법회'를 개최하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법회 취지를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계율이 인간의 삶을 값지고 윤택하게 만드는 생활규범이며, 사회의 온갖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미혹의 병에 가장 뛰어난 약이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생사의 강을 건너는 다리와 같으며 뗏목과 같은 깨달음의 세계라고 말씀하셨다"며 " 이번 법회는 계율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 논리적 토대위에 보편적 행동규범으로서 계율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사회의 안정과 불국토 건설에 한 몫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율원장급 스님들을 법주로 동화사 8월 6일~10월 9일 개최

지성 스님이 이번 법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법주와 논찬자이다. 법주들은 불교계에서 잘 알려진 율사스님들이고, 매회 질문하는 논찬자들도 율을 공부하는 스님들과 석·박사급 교수·강사로 수준 높은 '드림팀'을 구성했다.

지성 스님은 "선을 주제로 한 법회는 전국에서 많이 열리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계율은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회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규명함은 물론 사상과 생활의 규범인 계율정신을 일반인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각인시켜줄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 2002년 5월말 동화사 주지로 부임한 지성 스님은 취임 초부터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로 전국의 선지식 100명을 초청해 100일 동안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를 열었다. 이어 어려운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을 일반 대중에게 보편화시키겠다는 의미에서 2003년에는 <화엄경> 논강 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화두를 근거로 수행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 '간화선'을 주제로 '담선대법회'를 열어 간화선 수행붐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성 스님이 이번 법회를 성공적으로 회향하는 것 외에 임기 전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더 있다. 대구 동화사를 총림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총무원에 총림 신청을 했다고 밝힌 지성 스님은 "동화사는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등 총림이 갖춰야 할 수행시설이 다 있다. 동화사를 총림으로 승격시켜 영남불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동화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계율수행대법회는 8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통일기원대전에서 열리며 9일 오전 10시 보살계 수계법회로 회향한다. (053)985-4404 김주일 기자

목탁소리

종무원 노조설립 설왕설래

조계종 종무원 노조 설립을 두고 종단 안팎에서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본지 일간 인터넷 신문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자 수많은 누리꾼들도 노조 설립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설립을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종무원 역시 노동자"라며 "다른 종교에서도 노조가 설립된 만큼 종무원 노조 설립은 자연스런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종무원은 근로자임에 틀림없지만 그에 앞서 삼보를 호지하고 신도들의 정재를, 포교를 위해 종단의 제도에 의해 관리하는 역할의 소임자"라며 반박했다.

반대 누리꾼들은 또 "종헌종법 내에서 재가종무원들의 지위나 역할을 높이는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순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찬성 누리꾼들은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선 노조가 최선의 선택"이라며 현실적 대안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찬성측은 "종무행정에 연구원 수준인 종무원들에게 먼저 제대로 된 급여를 주고 신심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노동자이길 원한다면 더 나은 대우를 해 주는 일반 기업체에 가는 것이 옳다"고 대꾸했다.

이처럼 종무원 노조 설립을 두고 출가와 재가뿐 아니라 재가와 재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하나의 사물에 대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동우(취재부 기자)

시의회 의원, 지관 스님 폭행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설명회서

김포시의회 의원이 지역 스님을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포시의회 윤문수 의원은 7월 21일 김포 여성회관에서 열린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을 폭행했다. 윤 의원은 개발 제한 등을 이유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했었고 지관 스님은 습지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지관 스님은 어깨와 등, 목 부위에 부상을 입어 전치 4주 판정을 받고 현재 부천 제일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다.

지관 스님은 "설명회는 습지지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단상 점거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며 "의견이 다른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윤문수 의원은 7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사과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사회국장 정업 스님을 만나 "지관 스님을 모시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스님이 다친 것 같다"고 설명하고 "의도적인 생각은 없었으며 스님이 하루빨리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사과문을 조계종에 전달했다. 유철주 기자

'불교와 문화' 7·8월 호 장경호 거사 특집 다뤄

격월간 <불교와문화>가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 30주년을 맞아 설립자인 故 장경호 거사(1889~1975·大圓)를 다룬 7·8월 특집호를 발행했다.

특히 대한불교진흥원의 재단법인 설립금으로 사용된 장경호 거사의 사재(私財)를 헌납하면서 박정희 前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눈길을 끈다.

장경호 거사는 이 편지에서 "평소 소박한 생활신조로서 남자로 태어난 것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불교를 신봉하게 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했다"며 생전 감사의 생활로 귀감이 됐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편지를 받고 박정희 前 대통령은 불교계, 정부, 국회의 대표가 중심이 된 (재)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 박봉영 기자

불기 2549년 불교성지순례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상품

중국 오대산(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수험생 합격기원 및 소원성취 대법회 봉행

요금 ₩860,000 ₩699,000 (3박4일) ₩960,000 ₩749,000 (4박5일)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운항

- 양국 정부 운항허가 조건 -

✲문화탐방 ₩699,000(3박 4일)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오대산 중대(자장율사 수행처)
✲용현목탑-1056건립(중국 최고의 목탑)
✲운강석굴(중국3대석굴)

■ 출발일(2005년)
1차 : 8월 20일 ~ 8월 24일(4박5일)
2차 : 8월 24일 ~ 8월 27일(3박4일)
3차 : 8월 27일 ~ 8월 31일(4박5일)
4차 : 8월 31일 ~ 9월 03일(3박4일)

■ 신청마감 : 출발 10일전
■ 신 청 금 : ₩100,000
■ 입금구좌 : 우리은행 006-173407-13-048 예금주 한진관광
■ VISA요금 : ₩24,000 별도
■ 담 당 자 :
한진관광 본사 이기범 차장 TEL. 02-726-5799
한진관광 부산지점 김문철 과정 TEL. 051-463-2115
한진관광 마포대리점 차명철 팀장 TEL. 02-717-8085
불교방송 성지순례 담당 최효상 TEL. 02-705-5302

권 특 전
수험생 학부모에게 문수보살호신불 증정
세계적인 명상 음악가 나왕케촉과
명상캠프(3차)





공동 판매여행사 / 대승항공 730-0202 실크로드 720-9600 혜초여행 733-3900 아제여행사 730-4008

주관 여행의 명문 한진관광 후원 대한항공 BBS 불교방송 중국 산서성 여유국 /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4박 5일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태원 / 오대산	KE9853 전세기	08:00 / 10:10 / 11:35 / 19:0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점심공양후 남대 청량사 (문수보살 화현한곳) 오대산 도착후 저녁공양 호텔 투숙	조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2일	오대산	전용버스	전일	수상사 법회후 아침공양 동대 망해사 순례후 점심공양 중대(지장율사 수행처) 연교사 순례 저녁공양 및 호텔 휴식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3일	오대산 대동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현통사, 탑원사, 대라정(케블카) 점심공양후 대동으로 이동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HOTEL 홍안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대동 태원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운강석굴, 응현목탑 견학 태원으로 이동 발마사지후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한 식
				HOTEL 이경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5일	태원 인천	KE9854 전세기	07:00 / 08:00 / 12:50 / 15:55	아침공양후 진사 순례 태원출발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성불하십시요✲	조 호텔식 / 중 / 석
				HOTEL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3박 4일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태원 / 오대산	KE9853 전세기	08:00 / 10:10 / 11:35 / 19:0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점심공양후 남대 청량사 (문수보살 화현한곳) 오대산 도착후 저녁공양 호텔 투숙	조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2일	오대산 대동	전용버스	전일	수상사 법회후 아침공양 중대(자장율사 수행처) 연교사 순례 현통사, 대라정(케블카) 순례 대동으로 이동 저녁공양 및 호텔 휴식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HOTEL 홍안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3일	대동 태원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운강석굴, 응현목탑 견학 태원으로 이동 발마사지후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HOTEL 이경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태원 / 인천	KE9854 전세기	07:00 / 08:00 / 12:50 / 15:55	아침공양후 진사 순례 태원출발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성불하십시요✲	조 호텔식 / 중 / 석
				HOTEL	

※상기 일정은 출발 당시 항공스케쥴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인드라망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거대 그물망 인터넷. 그 안에서 네티즌들을 불자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인터넷이 일상생활이 되면서 사이버 포교에 대한 중요성도 뜨겁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만큼 효과는 밋밋한 것이 현실이다. 불교계 사이트의 숫자는 타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고 그나마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공간도 분명한 중생계다. 사이버 공간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포교의 현장인 것이다. 사이버 공간 속 불교계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기술력 높이고 사이버 포교사 양성을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모바일 · DMB시대 대비해야

2005년 7월 현재 ‘네이버’ 디렉토리 검색으로 분류되는 불교사이트는 모두 2155개이다. 카페는 238개, 블로그는 10만4971개이다. 기독교 카페가 328개이고 블로그가 11만3785개인 것과 비교해서 많이 모자라는 수치는 아니다. 반면 기독교 사이트는 4324개로 불교의 두 배가 넘는다. ‘다음’의 카페와 블로그를 살펴봐도 유사하다.

이제 네티즌들의 활동은 블로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 불교계는 사이버 포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기술과 콘텐츠, 승가 인터넷 교육, 포교 인재양성 등이 사이버 포교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휴대인터넷 등에도 관심을 돌려 적합한 콘텐츠 개발도 해야 한다. 현재 불교계의 사이버 포교는 인터넷에 편중되어 있다. 모바일 DMB 등 다른 기술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통한 포교가 타종교에 비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최근 조계종이 템플스테이 영문 사이트를 오픈하고 국제사이트 개설을 준비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한국불교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준비단계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운영하는 ‘부다피아’ 러시아판 · 중국어판 서비스와 8월 오픈할 영문판 서비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이버 포교를 잘 하려면 스님들이 먼저 사이버 세상을 알아야만 한다. 때문에 스님 대상 컴퓨터 인터넷 교육이 필수 과정이 돼야 한다.

지난 6월 개원한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우리나라 최초로 다음 카페 열린절(cafe.daum.net/buruna21)을 모태로 오프라인 절 열린선원을 개원한 독특한 사례이다. 능인선원(원장 지광, www.gotobuddha.org)은 불사나 불교대학 입교신청을 인터넷으로 해결한다. 사찰 가상체험, 인터넷 방송과 쇼핑몰까지 구비하고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수행 상담 코너를 운영하는 현정선원(www.fuoyee.or.kr) 무심선원(www.mindfree.net) 등은 수행에 목마른 네티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스님들이 사이버 포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방송 불교음악감상실(www.sambori.com)을 운영하는 보명(오른쪽) · 지허 스님(가운데) · 박금표씨.

불교 사이트 종단 인증제 도입 시급

사이버 포교를 담당할 인재양성도 시급하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4대 종단 어디도 사이버 포교사를 양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준비도 미흡하다. 4대 종단은 사이버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이버 포교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 포교사 제도를 운영해 불교교리와 포교능력, 컴퓨터 인터넷 활용 실력 등을 검증 받은 인재들을 선발해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쓰레기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사이버 포교사들을 적극 양성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불교정보를 알려야 한다.

또한 각 사찰마다 담당 사이버 포교사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가 3천만명을 넘어서는 현재 체계적인 사이트 관리 없이는 네티즌을 사로잡을 수 없고 포교영역을 넓힐 수 없다.

그리고 불교 사이트 종단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우수 쇼핑몰에 주는 이트러스트 인증처럼 신뢰성 있는 불교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종단 인증 마크를 달아야 한다. 정보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초심자나 불교에 관심있는 이들을 위해서 잘못된 불교정보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인증제가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강지연 기자

■ 박수호씨 제안 ‘사이버 포교 잘 하려면’

사이버 신행 등을 연구해온 박수호 선임연구원(중앙승가대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은 사이버 포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 종단차원에서 기술 활용전략 세우자

기술 습득 · 활용에 대한 스님과 종무원의 낮은 이해를 교육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종단은 기술과 불자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이버 포교 기술활용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인터넷 활용법 교리적으로 재해석해야

한국불교는 ‘선(禪)’ 중심 사고로 인해 ‘교(敎)’를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 수용이 늦다. 개신교나 가톨릭 모두 인터넷 활용법을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재해석해 내고 활용한다. 불교 역시 인터넷이 어떻게 불교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교적인 재해석 작업이 필요하다. 응용불교학 활용과 인재양성도 중요하다.

● 사이버 신행활동이 곧 포교다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신행은 크게 종단 사찰 단체 중심과 재가자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종단 사찰 단체 중심은 정보 제공, 재가자 중심은 정보 공유와 신행 활동 위주이다. 송광사 사이버 법회, 한마음선원 상담 등은 적극적으로 네티즌과 교류 · 포교하는 곳이다. 카페에서 활동하는 불자네티즌들은 신행활동이 우선이지만 이들을 보고 가입하는 초심자들에게는 포교사의 역할을 한다.

● 무선인터넷 폰이 뜬다

디지털 정보기기는 인터넷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전환돼 휴대폰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DMB도 휴대폰으로 이용한다. 유선 인터넷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개인정보기기로 변하는 추세다. 2006년 중후반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Wireless Broadband)가 상용화되면 개인정보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저용량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

● 세대별 포교전략 다시 짜라

지금까지 불교는 불자라는 대상을 ‘외호자’ 정도로 평면화시켜서 보아왔다. 그러나 불자라는 테두리 속에는 이질적인 다양한 연령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세대적 기능적 불자모습을 파악하고 종단의 포교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포교연구소를 만들어 불교 학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포교방법론과 불자의 세대별 특징 등을 밝혀내야 한다.

● 미래 위한 투자는 청소년 포교

20대 이하 포교는 이윤창출이 되지 않는 투자이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인터넷은 유소년층이 자기 욕구를 발산하는 곳이다. 각자 공부로 인한 단절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이다. 불교도 청소년들의 욕구를 분출 발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어 관계 회복과 다양한 체험 코너를 제공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감성 자극하는 콘텐츠 개발해야”

이구형 동국대 겸임교수



“홈페이지는 네티즌의 놀이터다. 디카족이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코너를 불교사이트들도 열어줘야 한다.”

인간공학을 전공한 이구형 겸임교수(동국대)는 “사찰 홈페이지는 사찰 각각의 특성을 살리되 종단 차원에서 일정 포맷을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찰 홈페이지가 통제되면서 오류 정보들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훌륭한 콘텐츠가 되려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쉽고 가깝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쌍방향 매체로 쓰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이버 포교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기술은 결국 인간의 감성이기 때문에 콘텐츠는 기존의 불교문화를 어떻게 감성을 자극할 수 있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이야기에 감동한다. 감성적인 콘텐츠는 쉽고 호감 가는 사람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즉 사찰에서 생활하는 ‘스님’이 생산해 내는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관혼상제 등을 불교적으로 해설하는 콘텐츠도 활성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교문화디자인공모전 등을 통해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를 보강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공모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모에 뽑힌 작품은 전시를 통해 1차, 사이트에서 2차, 네티즌들에 의해 3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에서 법회의 법문 요약만 읽어도 이미 나는 법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이 교수는 사찰의 풍경을 담은 스크린세이버(화면보호기)를 만드는 사소한 것에서 콘텐츠 개발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 터 뷰

“1사찰 1사이트 결연 기구 만들자”

카페 5개 운영 배광식 교수



“원효 스님이 지금 태어나셨으면 인터넷에 파묻혀 사셨을 것이다.”

배광식 교수(서울대 치대)는 사이버 포교를 이렇게 정의한다. 배 교수는 2000년 6월 수미산(sumisan.hihome.com)을 개설한 이래 광륜사 카페(www.freechal.com/goldenwheel) 다음 금강 카페(cafe.daum.net/vajra) 네이버 금강 카페(cafe.naver.com/huineng) 금수레 불교도서관(cafe.daum.net/muyousim)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배 교수는 “청화 큰스님의 법문을 알리고자 ‘수미산’을 만들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금강 카페를 열었다”고 여러 사이트 운영 계기를 밝혔다.

배 교수는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을 같이 한 것처럼 사이버 포교에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단과 교구본사에서 스님 인터넷 교육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사이버 포교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현대인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라는 배 교수는 “요즘 세대의 시각으로 경구를 재해석하는 경전의 현대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단 차원의 인터넷 관련 통합협력 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배 교수는 “협력 기구가 사이버 포교 불교정보화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인터넷의 불교정보를 모니터링해 쓰레기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단 사찰 사이트들이 초심자를 위한 배려를 넓혀야 한다”는 배광식 교수는 “1사이트 1사찰 결연 기구를 만들어 온 · 오프라인을 겸한 신행과 수행의 장을 여는 것이 불교 활성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 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7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5년 7월15일 ~ 2005년 8월 5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05년 8월 6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3년)	· 설문해자(1,2), 천자문, 주역(1,2) 한문법(1,2), 금강경, 십지품 등	황안웅(원광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심재동(동국대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한국의 헌다례	이귀례(교장선생님), 선혜스님, 박희준,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일무교수 외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랑초등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티베트어강좌(1년)	· 티베트어문법, 티베트어강독, 산스크리트어	최종남 교수(승가대)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신5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3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티베트어강좌(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5년 7월15일 ~ 2005년 9월 3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례문화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티베트어강좌)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한문학과 : 2005년 9월 8일 (목), 다도학과 : 2005년 9월 6일 (화),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5년 9월 6일 (화)
불교미술학과 : 2005년 9월 7일 (수), 티베트어강좌 : 2005년 9월 8일 (목)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부천 원미구노인복지관 급식봉사 소림사 보살들

"늘 하는 일인데 봉사라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봉사활동이라니 쑥스럽네요. 더 힘들게 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부천 원미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식당의 7월 28일. 급식봉사를 위해 나온 1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다. 부천 소림사(주지 지해) 신도들이다. 이날은 50명이 넘는 봉사팀 중 '열혈' 봉사자들로 뭉친 4조가 출동했다.

1년 5개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4조 반장 임명자(47) 보살은 "우리 일은 그저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일 뿐"이라며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소림사 신도들이야말로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표본이라며 복지관 윤성은(43) 조리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로 이들의 활동은 대단하다.

정기적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하루 350여명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복지관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궂은일을 마다 않는 것도 복지관 입장에서는 무척 고마운 일이다. 임보살이 "우리 팀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어 반장으로써 너무 뿌듯하다"고 밝힐 정도다.

또 하나 임보살이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봉사자들 끼리의 친밀도다. 가장 나이가 많은 양정숙(72) · 이말순(68) 보살이 앞에서 끌면서 봉사자들의 귀감이 된다면 다른 봉사자들은 '어르신 보살'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우직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림사 팀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꽃마을에서 부천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 2002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보살들에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한다.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보니 어느 순간,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할 뿐이라는 것이다.

"봉사를 하니 무엇이 좋고, 어떤 점이 힘든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저 즐겁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봉사인 것 같아요." 김강진 기자



부천 원미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1년 5개월째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소림사 보살들이 7월 28일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드느라 정성을 쏟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맞춤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원미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과 후원자간의 일대일 결연후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소림사 보살들은 "결연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보태드릴 수도 있지만 안부 전하기, 말벗하기 등 전화 한통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결연이 더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032)667-0262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래프팅 · 동굴체험 정말 신나요"

삼전복지관 장애 · 결식아동 20명 함께 어울려 체험캠프



7월 21일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을 즐기고 있는 삼전복지관 장애아동들과 결식아동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래프팅을 넘어서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남겼다.

7월 21일 강원도 영월 동강.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 찾은 사람들의 함성이 동강을 뜨겁게 달군다.

즐거운 함성 속에는 서울 삼전복지관(관장 선재) 장애주간보호 아동과 '푸른교실' 결식아동 20명의 목소리도 섞여 있다. 이 중 삼전복지관의 똘똘이 재우(10)는 "너무 긴장되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처음 래프팅에 참여하는 설렘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동들은 한명 두 명, 구명 자켓을 입고 헬멧을 쓰는 자신들의 모습에 마냥 신이 난다.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결식아동들은 몰라도 자폐를 앓고 있는 장애아동들도 래프팅이 가능할까. 많은 이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장애아동들도 지도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하고, 물살이 급하지 않은 곳을 택해 즐기면 충분히 가능하다.

"배를 젓는 노 같은 것이 패들이야. 자루 끝 구멍에 엄지손가락을 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루를 잘 잡아야 해."

래프팅에 들어가기 앞선 사전 교육 시간, 실습 강사의 설명에 아이들은 이리저리 따라 해본다. 자폐아동들은 보육교사와 '푸른교실'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

드디어 무더운 공기 속에서 강물을 가르며 앞으로 전진하는 아이들. 절로 웃음이 피어나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게 된다. 물에 빠지고 헤엄치면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흘러간다.

이튿날 동굴탐험. 임진왜란때 고씨들이 숨어살았다는 '고씨동굴' 안은 금방 '닭살'이 돋을 정도로 시원하다. 더위를 많이 타는 장애아동 현성이(14)는 동굴의 시원함에 반했는지 칭얼대지도 않고 잘 걷는다. 아이들에게 동굴 속 석주와 온갖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들은 처음 보는 것인지라 신기하고 아름답다. '푸른교실' 아동 승민이(12)는 "장애친구들과는 조금 서먹했는데 같이 래프팅도 하고 동굴탐험도 하니 돌아가서도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민선이(11)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 체험 캠프에 동행, 일정을 함께한 관장 선재 스님은 "자폐아동과 결식아동들 모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그들의 세계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캠프로 아이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글 · 사진/영월=김강진 기자

밝은 웃음 찾아주세요

루프스 앓고 있는 곽지혜씨

"앞으로 헤쳐 나갈 일이 더 많은걸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가 '8월 환우'로 선정한 곽지혜(32)씨.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병에 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지혜씨는 92년 경희의료원에서 자가면역질환인 루프스(전신성 홍반성낭창)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다. 그러나 99년 4월, 합병증인 만성신부전으로까지 병이 진행되고 말았다. 현재는 양팔 혈관에 인조 성형혈관술을 받아 일주일에 3회씩 혈액을 투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재활의지를 갖고 있는 지혜씨지만 집안 환경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아버지는 발병 초기에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신문배달, 식당일 등을 하다 2003년에 자궁암 수술을 받았다.

면역억제제,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지혜씨. 어머니와 자신의 병원비로 인해 생긴 빚에 허덕이다보니 사는 것이 언제나 힘겹다.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삶의 힘을 잃지 않는 지혜씨에게는 불자들이 보내주는 작은 힘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박상환 50,000원 지명숙 60,000원
오승희 10,000원 **총 누적성금 41,744,050원**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EcoQuest
최첨단 Thunderstorm 원리로 세계시장을 완전 석권한 - 리빙에어
EPA Est. Reg. No. 065975-TN-001
스님, 불자님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꿈꾸십니까?
無 필터 無 병균 無 악취 첨단기술방식 공기청정기 Living Air

◆산업공해 연구원(시험성적표) ◆고려대학연구소 측정확인서
◆캐나다 환경청 인증서 ◆미국환경청 인증서
미국 EcoQuest사에서 제작된 LivingAir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있는 세계적인 공기 청정기 시스템으로서 최첨단 신기술(Thunderstorm : 천둥.번개+RCI : Radiant Catalytic Ionization : 광촉매방식)의 신산화작용(AOP)으로 악취와 VOC' S(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살균 효과로 언제나 숲속에 있는듯한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 리빙에어의 다양한 효능❖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화합물 분해
▶환경오염으로 오는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등의 질병예방
▶애완동물의 털, 먼지, 음식냄새, 담배냄새 제거 탁월
▶곰팡이, 박테리아 살균 및 습기로 인한 악취제거
▶유해냄새및 담배연기로 인한 두통, 만성피로감에서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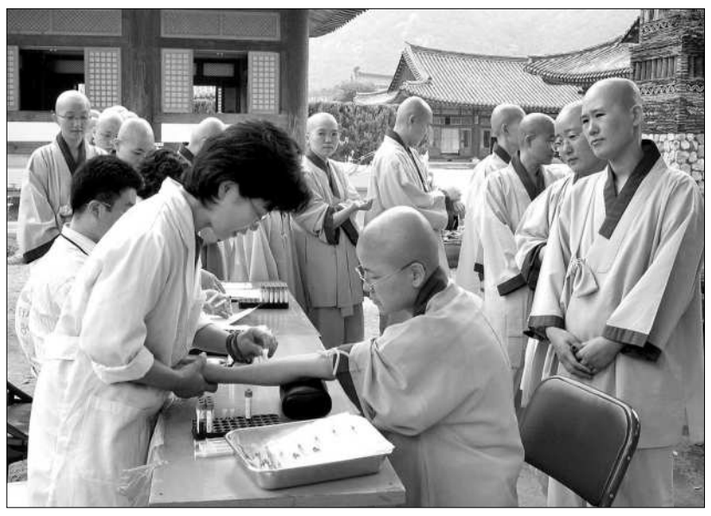
Breeze AT
· 공기청정기부분 미국 제1의 매출실적
· 소독기능 장치 / 리모콘 기능
· 소음이 거의 없음
· 오존발생 일시 제거기능
· 5평에서 70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XL-15Classic
· 제작 20년의 기술축적
·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
·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자유롭게 이동 설치
·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

Fresh Air
환과 정화를 위한 정확한 공간의 면적을 표시해 주며, 조정 가능한 살균방식에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새로운 SynAirG5 시스템은 광촉매 기술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더욱 효과적인 에코테크 과정을 촉진합니다.
■ 오투에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 TEL : 02)2055-0202 ■ FAX : 02)2055-0279 www.o2air.net

환자 돕는데 무더위가 문젠가요!

생명나눔실천본부, 운문사서 골수기증 캠페인



운문사 학인 스님들이 채혈을 하고 있는 모습.

"생명보시로 부처님 법 실천합니다."

7월 24일 청도 운문사(주지 흥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의 무더위에도 학인 스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가 운문사에서 펼친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과 장기기증회원등록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60명의 학인 스님들 참가
장기기증 등록 및 헌혈증 보시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학인 스님들은 '생명보시'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주저없이 팔을 걷었다. 학인 스님들이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을 위해 채혈한 3㏄의 피는 건강한 골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기에 학인 스님들의 얼굴은 편안하기 그지없었다.

더운 날씨, 학인 스님들의 '생명나눔'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생명나눔실천본부 캠페인에는 총 60명의 학인 스님이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했다.

또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날 장기기증 회원등록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각막기증 29명을 포함, 총 42명의 학인 스님들의 장기기증등록을 받고 헌혈증도 4장 기증받았다.

이번 운문사승가대 스님들의 캠페인 참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라는 것을 학인 스님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골수기증캠페인에 참여한 운문사승가대학 우경 스님(4학년)은 "백혈병 환자나 골수기증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됐다"며 "내 몸을 보시해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주상보시' 실천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뜻을 전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중국 칭따오에 설립된 한국사찰 금강선원이 개최한 수계법회에서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연비하고 있다.

"중국포교, 새 힘 얻었어요"

中 칭따오 금강선원, 활안 스님 초청 수계법회

중국 칭따오(青島)에 설립된 한국사찰 금강선원(주지 법인)에서 교민과 현지인 등 70여명이 신도5계를 수계하고 불자의 삶을 다짐했다.

금강선원은 지난 7월 13일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을 초청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금강선원 창건 7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수계법회였다. 법회에는 한국에서 방문한 불자들과 현지 교민 등이 참석했다. 수계법회에서 활안스님은 "제1본성의 진리 자리를 드러내는 인간 참모습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법문 했다.

금강선원은 교리 공부와 참선 등의 수행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현지인들에게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인스님이 7년 전 만행 길에 발심하여 창건원력을 세웠으며 구모선, 손덕숙, 한재순, 이용희 씨 등의 불자들이 스님의 불사를 도왔다. 종교행위가 엄격히 통제되는 현지의 여러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법도량을 일궈 온 법인 스님은 "수계법회를 봉행함으로써 이제 중국 포교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생겼다"며 "그간 불사를 함께 해 온 불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금강선원은 올 가을부터 교리공부와 경전강좌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대학도 운영할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경부고속철 범어사 구간 지하화 '확정'
본질 왜곡, 수용불가 범어사·환경단체

경부고속철도 범어사 교량구간을 지하터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실시계획변경안이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해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금정산 관통노선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시가 범어사 구간 지하화를 확정하면서 이것이 마치 범어사와 환경단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처럼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금정산과 천성산 관통을 강행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금정산 구간의 문제 핵심은 18㎞에 달하는 장대터널이 미치는 지하수 고갈과 계곡수 및 온천수 고갈, 산림생태계 훼손, 안정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단체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는 범어사 구간 지하화는 관통노선 강행을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범어사 구간 지하화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것과 관련 범어사는 "기본적인 입장은 지상이든 지하든 금정산으로 지나가는 노선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금정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심 공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28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던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은 관련 자료 검토를 이유로 연기됐다.

천미희 기자

청주 보현사 지장전 낙성식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는 18평 규모의 지장전을 건립하고 7월 23일 낙성식 및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원봉 스님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도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도도량이자 신행도량인 보현사는 1997년 보리수어린이집을 개원한데 이어 최근에는 장애아동전문시설인 보현어린이집을 여는 등 어린이 포교에도 앞장서 왔다.

한명우 기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마하부디 구미 보현의집' 개소

구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마하부다 구미 보현의 집'이 7월 19일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이 1999년부터 노숙인 점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던 구미 보현의 집을 확장 이전하면서 공식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 전문지원센터를 열게 된 것이다.

구미 지산동으로 확장 이전한 보현의 집은 150평 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전용쉼터, 교육실, 식당, 인터넷 정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구미 보현의 집은 보다 안정된 시설을 바탕으로 정식 쉼터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구미 보현의 집은 새롭게 준비된 시설을 바탕으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기존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 전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매월 지역별 스리랑카 노동자 법회를 개최하고, 연 1회의 지역 연대법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대구 관오사와 양산 포교당에 보현의 집을 개원하는 등 지역별 거점 마련에도 매진하고 있다. 또 스리랑카 출신의 산뜨스리 스님과 소바나 스님을 초청해 상주하면서 외국인 불자들을 돕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국민 상조' 불자 마케팅
회원제 운영, 저가 서비스 제공

장례서비스 업체인 '국민상조'(대표 남광일)가 새로운 형태의 회원제와 다양한 서비스로 불자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국민상조의 특징은 회원제 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특히 회원들은 상조이행보증보험에 자동 가입돼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회원의 경우 한 달에 2만원씩 99회(총1백98만원)를 내게 되며, 1회 차 불입 이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는 32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불자라는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과 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별우대한다. 국민상조는 불자들의 정서에 맞는 장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자상조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가입회원은 빈소와 음식, 장지만 준비하면 되며, 일체의 모든 절차와 준비물을 제공받게 된다. 대표전화 1544-4110

한명우 기자

부처님 말씀 '쏙쏙'
대구 은적사, 한문 학당 개설

"푸를 청(靑), 붉을 홍(紅), 검을 흑(黑), 흰 백(白), 누를 황(黃)."

7월 27일 대구 남구 대명동 룸비니 유치원 법당에는 여름방학인데도 한자의 뜻과 음을 익히는 어린이들의 소리가 쩌렁쩌렁 하다. 바로 대구 은적사(주지 허운)가 어린이 한문학당을 열었기 때문이다.

7월 24~30일 열린 한문학당에는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대구시내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였다. 이미 정원을 모두 채웠는데도 매일 가입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인기다. 친구 동생 형 누나랑 앉은뱅이 책상을 앞에 놓고 은적사 총무 허주 스님을 따라 몸을 흔들어가며 음과 뜻을 말하는 어린이들도 마냥 신이 났다. 특히 스님의 갑작스런 돌발 퀴즈에는 정답을 먼저 말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스님을 가까이서 처음 보는 김범석(범물초 5년)군은 매일 혼자서 학습지로만 한자를 익히다가 스님에게서 한자를 배우니까 더 재밌다.

허주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새롭게 전하기 위해 한문학당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053)653-1572

배지선 기자

호남 범음회 전통의식 강습



호남 범음회(회장 휴암)는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김제 조앙사에서 제3차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호남 지역 사암 스님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동안 발표되지 않은 신업공양, 명발 등 전통의식 강습이 펼쳐졌다.

범음회는 22일 회향에 앞서 조앙사 법당 앞에서 사물, 작법, 천수바라 등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재연했다.(사진)

이준엽 기자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영산의식 비디오 시리즈

전통불교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스님께서 불교의식 비디오를 아래와 같이 촬영 제작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의식비디오가 있으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 / 관욕 2. 상주권공 지장 불공의식
3. 상용영반 4. 화청 ①② 5. 구병시식
6. 관음시식 7. 점안의식 8. 방생의식
9. 사물 다루는 법 10. 안택 11. 시다림
12. 산신불공 13. 미타불공 14. 신중불공
15. 관음불공 16. 지장불공 17. 삼대화상증명불공
18. 종사관욕 19. 종사영반
20. 가사불사 이운식 ①② 21. 39위신중작법
22. 간단한 신중작법 23. 전통조석예불
24.천수경 / 장엄염불 25. 상주권공, 각배, 영산염불
26. 사시상단예불 27. 작법무(복청게천수바라)
28. 작법무(사방찬소리도량게)
29.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
30. 작법무(향수나열 사다라니)
31. 교재 2권 80,000원

• **비디오 각 25,000원**

제품구입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종무소** 062)362-8604
• **혜공스님 직통전화** 011-624-8604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범음범패 하계교육 대특강 안내

1. 자격 : 스님 및 교임 포교사 일반불자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자

2. 일자별 교육내용
◆ 8월 29일: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목탁, 요령) 39위 신중작법 외
◆ 8월 30일: 구병시식, 안택기도 외
◆ 8월 31일: 화청(회심곡), 종사관욕 점안의식, 용왕불공, 방생의식 외
◆ 9월 1일: 시다림(상가염불하는법), 바라춤 종사영반
◆ 9월 2일: 요잡바라, 천수바라, 관음시식 외

3. 교육기간 :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 교 육 비 (교재비 별도)
1) 200,000원정(숙박포함)
2) 1일 수강시: 50,000원
5. 모집일시 : 8월 29일 오전 10시
6. 교육장소 : 본 대학 강의실
7. 준 비 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세면기
8. 문 의 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종무소 062) 362-8604
011-624-8604
9.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노연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노 혜 공

재약산 表忠寺 Well-Being 템플스테이

신라 진덕여왕 8년 원효대사께서 산문을 연 전통사찰인 재약산 표충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합니다.

장작불을 지피는 온돌방에서 그리고 음이온이 최고로 생성된다는 **10여미터 높이의 폭포수 아래**에서 스님과 함께하는 참선은 세파에 찌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 줄 것이며, 사명대사 승병훈련지였던 사자평의 6만평 갈대밭 답보로 몸을 수련하고 1100 고지의 12만평에 달하는 **고산 늪지대를 탐방**하여 고산 생태계를 체험하는 것은 참여 대중이 전통사찰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찾아 스스로 가꾸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참 나를 찾고 싶으신 분들께 여기 수려한 산과 계곡 그리고 산사의 싱그러운 햇살과 바람, 물소리를 모두 드립니다. 진정한 자아발견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 정 : 둘째, 넷째 주말 상시 진행(1박 2일) • 첫째, 셋째 주말은 10명 이상 신청시 진행 • 10명 이상 단체는 상시 진행 가능
2. 참가대상 : 일반, 청소년, 어린이 누구나
3. 참가비용 :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원 (계좌번호 : 농협 811079-51-011960 예금주 표충사)
4.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모자, 등산화(운동화) ※ **수련복은 지급됩니다**
5. 접수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pyochungsa.or.kr) 전화 ☎ **055)352-1070, 1150, 4115**

일 정	시 간	내 용	일 정	시 간	내 용
첫째날	15:00	접수 및 방사배정		14:00	반야심경 강의
	15:30	사찰안내 및 단체사진, 참배		15:00	산내 암자 순례
	16:30	사찰예절 습의 (사찰내 행동지침)		16:30	
	17:30	저녁공양 (후원)		17:30	저녁공양 (발우공양)
	18:30	사찰예절 습의 (법당 예불)		18:30	
	19:00	저녁예불		19:00	저녁예불 (108배)
	19:30	부처님 생애 발우공양 및 참선 습의		20:00	참선, 자자회
	20:00			21:00	취침
	21:00	취침	셋째날	03:00	기상, 새벽예불
둘째날	03:00	기상, 새벽예불		04:00	108배(도반과 함께 절하기), 선체조, 참선, 포행
	04:00	108배, 참선, 선체조, 포행(탑돌이)		06:00	아침공양 (발우공양)
	06:00	아침공양 (발우공양)		07:30	운력, 청수, 정리
	07:30	불무도 배우기		08:00	주지스님과 환담
	08:00	약초 농장 체험		09:00	폭포아래 참선 및 사명대사 승병훈련지 답보 (우천시 다도),
	09:00	간화선 강의 / 참선		11:00	고사리 분교 옛터 답사 및 고산 습지대 체험 (우천시 사경)
	10:00	사시기도 동참 (108배)		12:00	점심공양 (산에서의 주먹밥 공양 후 하산)
	11:00	점심공양 (발우공양)		13:00	
	12:00			14:00	소감문 작성 및 정리
	13:00	불무도 배우기		15:00	회향식 (삼귀의, 반야심경)

대구불교방송
캐나다 공립학교 영어연수
7.26 - 8.21(4주간)
선착순 15명 모집
www.dgbbs.co.kr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열심히 수행해 라훌라 후예 될래요

담양 용화사, '구오사미' 수계식 현장

아이들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은 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속가(俗家)뿐 아니라 불가(佛家)에서도 책 읽는 아이들의 소리를 접하기 어렵게 됐다.

선비골 전남 담양의 용화사(주지 수진 · 아일다 율원장)에서는 지난 며칠간 앳된 독경소리가 절 담장을 넘고 있었다. 제2기 구오사미 수계식이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열렸기 때문이다.

"새벽종성을 멋지게 하고 싶은데 스님들처럼 가락이 안나요. 그래도 함께 목탁치고 경전을 독송하는 친구들이 있어 좋아요."

지난해 구오사미계를 받은 능인 사미(10 · 광주)는 "올해는 행자님들이 먼저 향이랑 촛불을 켜고, 좌복도 깔아 예불준비를 해서 편하다"며 자랑스러워 한다.

구오사미(驅烏沙彌)란 비구계를 받지 않은 예비승(사미) 가운데 7세부터 13세까지 나이어린 사미로, 절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곡식을 보고 날아오는 새들을 쫓는 일을 한다.

해방 이후 불교계는 15세이상이 되어야 사미계를 받도록 해 구오사미가 사라진지 오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수진 스님이 지난해 용화사에 구오사미 수계식을 개설했다.

올해는 지난해 계를 받은 사미승 10명과 새로 계를 받고자 하는 행자 10명이 수계식에 참가했다.

수계에 앞서 진행된 교육은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예불-청소-강의-울력-참선으로 이어졌다. 강의는 '불교교리 상식' '사미율의' '부처님 가르침'을 비롯해 사물과 식당작법, 염불이 주를 이룬다. 승려의 기본적인 습의가 몸에 배도록 반복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구오사미에게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인내력이다.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진행되는 독경을 하고 나면 발을 제대로 펼 수 없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경전을 큰 소리로 읽다보면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발도 아프지 않아요. 스님이 경전을 읽으면 힘이 나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봐요."

7~13세 나이어린 사미들에게 수계 예불·강의·참선 등 기본습의 교육 힘든 행자 생활 통해 자신감 쑥쑥

사찰뿐 아니라 행자생활이 낯설어 고생하던 군홍(13 · 대전) 행자가 독경을 끝내고 "이제 학교가면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나타낸다.

컴퓨터를 잘하는 군홍 행자는 학생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편이다. 부모님이 다니는 절에서 구오사미 수계를 권했고 마지못해 찾아왔다. 처음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절이 좋아졌다.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다보니 모두가 마음터놓고 얘기하는 친구가 되었다. 행자생활에 비하면 학교생활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잊고 있었던 컴퓨터 전문가 꿈도 다시 갖게 되었다. 이제는 뭐든지 자신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구오사미와 행자들은 점심공양 후 주어지는 휴식 이외에는 잠시도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없다. 여느 사찰의 행자들과 다름없는 강도 높은 교육이건만 의외로 싫증내지 않고 잘 따른다.

습의사 선각 스님은 "같은 또래여서인지 지난해보다 교육강도가 높은데도 열의는 더 나은 편이다"며 "그래도 아이들이어서 장난이 심해 오늘도 두명이나 108참회를 했다"고 귀띔한다.

최초의 구오사미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십대제자의 하나인 라훌라 존자이다. 밀행제일 라훌라 존자도 사미 때는 장난꾸러기로 알려져 있다. 금년의 최고 꾸러기는 선우 사미(13 · 담양). 공양 때 묵언을 하지 않고, 청소불량에 다투기까지 해서 벌점이 12점이다. 벌점이 3점이면 108참회, 10점이면 1080배를 해야 하니 수계식 전까지 매일 참회정진이 끊이지 않을 판이다.

반면에 점심공양 후 펼쳐지는 대중공사를 기다리기도 한다. 매일 한명씩 상품을 주기 때문이다. 일정이 끝나갈 무렵, 가장 나이 어린 선법 사미(8 · 장계)가 새벽예불 때 졸지 않고 큰 소리로 독경을 해서 학용품을 받았다.

상을 받아 기뻐하는 선법 사미에게 "커서 어떤 사람 될거냐"고 묻자 의외로 "법문 잘하는 큰스님이 되어 엄마 아빠 잘되고, 모든 사람이 다 잘되도록 기도하겠다"고 답한다.

구오사미계 수계법사 수진 스님은 "주위에는 어려서부터 출가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전한다. 그런 아이들은 "전생에 공부 잘하던 스님이었는지 평소에도 영락없는 스님"이란다.

수진 스님은 "출가를 원하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족히 200~300명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사찰에 살고 있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엄청나다"고 한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본인뿐 아니라 한국불교가 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소신이다. 따라서 "종단에서 구오사미계를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마솥 무더위 속에 시원한 폭우가 내리던 7월 28일. 모친상을 당한 용화사 신도가 수진 스님에게 동자승들의 독경을 간곡히 청했다. 이날 저녁 용화사 구오사미들은 불구와 가사 장삼을 챙기고 저자거리로 나섰다. 살아있는 중생뿐 아니라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구오사미들은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글 · 사진/담양=이준엽 기자

구오사미(驅烏沙彌)란

사미(니)란 출가하여 십계(十戒)를 받은 예비승려로,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비구(니)가 되기 전의 수행자이다. 7~13세까지를 구오사미, 14~19세는 응법사미(應法沙彌)라 하며 20세가 넘었지만 비구로서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미를 명자사미(名字沙彌)라 한다.



앗 따거! 수계식에서 연비를 받는 사미의 표정이 천진난만하다.



목탁치며 경전 독송을 하는 구오사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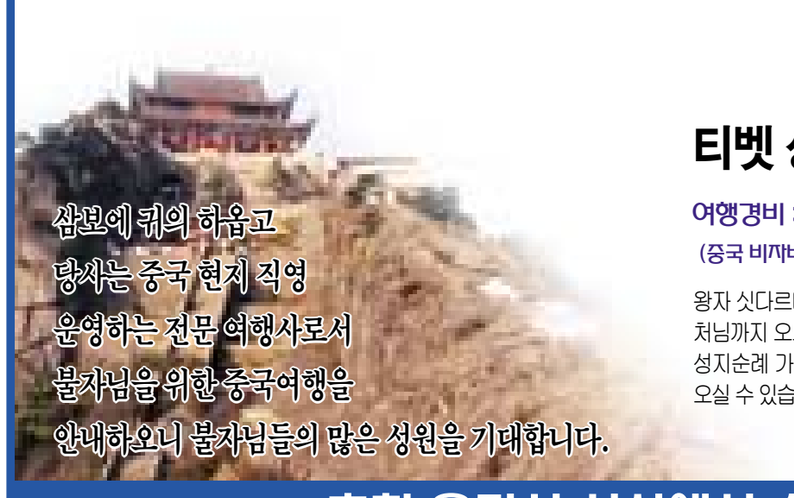


습의는 배우기 어려워도 처음에 잘 배워야 한다.



낭랑한 목소리로 경전을 읽으면 불심도 쑥쑥!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티벳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 1,89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 1,290,000원
화려한 황금빛 에머럴드 사원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태국과 세계 8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천년 보고 앙코르와트의 신비를 간직한 미얀마가 여러분을 불은(佛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90,000원
10명이상 출발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일주문



'불국토' 창립 11주년 기념식
사단법인 불국토 이사장 혜총 스님은 7월 22일 부산 영주암 원통보전에서 산하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상종 하계 연수교육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8월 24~26일 안성 쌍미륵사에서 법상종 종도 하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031)672-3353



하안거 회향 방생법회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8월 20일 양양 낙산사에서 불기 2549년 하안거 회향 및 방생법회를 봉행한다.(02)732-2187



대구BBS 해외어학연수단 인솔
대구불교방송 본부장 장적 스님은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구 BBS 해외 어학 연수단 인솔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급식 자율납부제' 토론회 개최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은 7월 27일 센터에서 '급식 자율납부제'를 주제로 제1차 어르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수료식
위덕대 한재숙 총장은 7월 2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경영대학원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갖고 35명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사불자 여름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완숙 회장은 8월 8~9일 설악산 백담사와 봉정암에서 전국초중고 교사불자와 가족 대상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011)740-9494

금강산 신계사 노전에 정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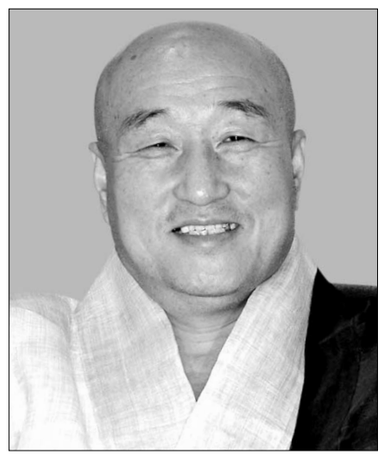
금강산 신계사 노전에 수덕사 강원 강사 정현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또 신계사 운영 전반을 총괄할 사무과장에는 박철규씨가 임명됐다.

신계사 복원불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종상)는 7월 18일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정현 스님과 박철규 과장, 자원봉사자들을 8월 5일부터 신계사 현지에 파견한다.

신계사 복원불사 원만성취 1000일기도 및 불사관리를 담당하게 된 정현 스님은 "금강산은 수많은 선지식이 배출된 성지"라며 "제정 스님과 함께 신계사 복원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다른 종단 군법사… 여군승 제도 등 긍정 검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초대교구장 일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 스님(사진)이 7월 25일 군포교를 총지휘할 초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임명됐다. 임명장을 받은 일면 스님은 "군대를 잘 모르는 내가 막중한 임무를 맡는 것이 부담스러워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 부딪쳐보자'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일면 스님이 내놓은 군 불교 개선방안은 네가지. 일단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한 스님은 "최근 몇 년간 불교 출신 군종감이 배출되지 않은 현실을 우선 바로잡겠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방장관과 만나 군법사 출신 군종감이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군승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종단에 대한 군법사 자격 취득의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스님은 "의식 통일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겠지만, 범불교적으로 군 포교에 임할 수 있도록 다른 종단 군 불교 담당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면 스님은 여군승 창설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정부와 종단 관계부처와 협의해 여군승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비구니스님뿐만 아니라 불교대학 출신 여성 인재들까지 군포교 현장에 투입해 군 불교 활성화와 군의 정신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승 평가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군승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군포교 활성화는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 일면 스님의 판단이다. 일면 스님은 "현역 군법사에 대한 기록카드를 일일이 만들어 활동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겠다. 평가를 통해 열심히 뛰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자극을 주는 과감한 조처를 하겠다. 그러나 평가제에 앞서 우선 군법사들에게 환골탈태의 노력을 하자고 호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군종교구의 위상을 세우는 데도 큰 관심을 보였다. "총무원장 스님과 독대의 자리에서 이미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았다"며 "종회의원 배정 문제도 당장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군종교구가 제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종회의원들을 설득하면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해인사에 장학기금 3500만원 전달

약수암 선덕 상덕 스님



70여 년간 무소유를 실천하며 푼푼이 모은 3500만원을 해인사 스님들의 공부에 써달라며 기탁한 원로 비구니스님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해인사 약수암 선덕인 상덕 스님(81 · 사진).

상덕 스님은 "나는 비록 교육을 못 받았지만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많은 스님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7월 22일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스님이 기탁한 장학금은, 여덟 살의 어린 나이로 출가해 휴지 한 칸 아끼고 힘든 밥일 마다않고 수행정진하며 푼푼이 모은 보시금이어서 더욱 감동을 주고 있다.

상덕 스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변변한 양말 한 켤레 없으면서도 해인사 다비장 도로보수, 성보박물관 건립 등 수많은 불사에 선뜻 동참해 왔다. **배지선 기자**

자전거로 세계일주 '평화 전령사' 네팔 푸르덴파 세르파씨



자전거로 18개국을 돌며 평화를 전달하고 있는 네팔 불자 푸르덴파 세르파(Furtemba Serva · 28 · 사진)씨가 7월 20일 무료급식소 서울 '자비의 집'을 방문했다.

푸르덴파씨가 자전거를 처음 탄 것은 98년. 숱한 내전으로 얼룩진 조국의 아픔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그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마음부터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팔국기와 자신의 종교인 불교 깃발을 자전거에다 꽂고 집을 나서게 됐다.

7월 26일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출국한 푸르덴파 씨는 2020년까지 약 180여 개국을 돌며 평화사상을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민추본 북한동포 돕기 물품 상차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는 7월 25일 사무처장 법경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CJ 영등포 공장에서 하우스 콘테이너 2대와 밀가루 1600kg의 상차식을 진행했다. 민추본은 이와 함께 2개의 밀가루 콘테이너를 7월 27일 인천항-남포항 정기선박 편으로 조불련 중앙위원회에 지정 기탁했다.

조동종 총무원 이전 현판식



조동종(총무원장 심월) 총무원 이전 현판식이 7월 26일 서울 용천사 정각원 1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심월 스님을 비롯, 포교원장 통원, 교육원장 광혜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조동종은 7월 1일 제4대 종정에 지명, 부종정에 제공, 총무원장에 심월 스님 등을 재추대했다.

원융종 87명 스님 구족계 수계산림



원융종(총무원장 법륜) 구족계 수계산림 법회가 7월 20~21일 서울 원융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종정 일공 스님을 증명화상,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장 법장 스님을 전계화상으로 진행됐다. 87명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았고 100여 명의 재가자들이 대승보살계를 수지했다.

서울 대각정사 개원 2주년 법회



서울 대각정사(주지 해각) 개원 2주년 법회 및 대각불교대학 1기 졸업식이 7월 24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해각 스님은 50여 명 졸업자들에게 계를 주며 "부처님의 말과 행동을 본받아 바른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각불교대학 제2기 개강법회는 8월 7일 열린다.(02)2699-6384

진흥원 30주년 기념 청소년 명상캠프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홍승희)과 월간 <불광>은 7월 21~24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명상캠프'를 열었다. 진흥원 설립 30주년을 맞아 문화포교 일환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50여명의 청소년과 학부모 1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마음열기, 요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大韓佛教 曹洞宗 任員

佛紀 2549(2005)年7月1日 四世 宗正 七代 總務院長 推戴하며 幹部職責을 公告합니다

宗正 尹智明 **副宗正 崔諸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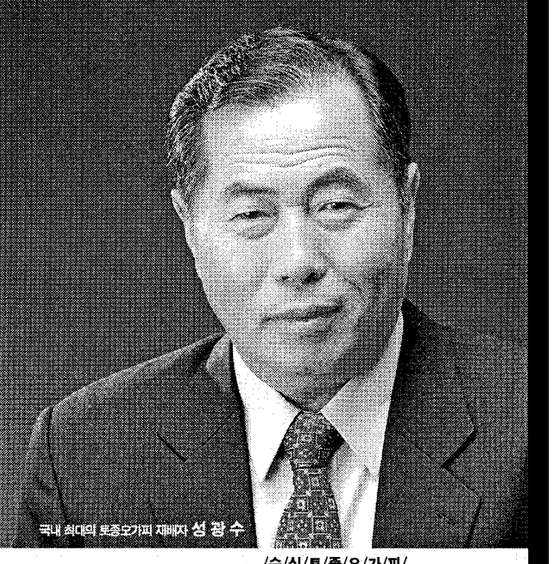
宗正司書室長 釋光慧

僧正院長 : **韓春潭** 僧正委員 : **安松峰. 崔圓峰. 陳惺雲. 鄭戒云. 朴智雲. 朱禹泉(無順)**
總務院長 : **朴心月** 中央監察院長 : **黃德牛** 中央宗會議長 : **禹海倫**

副院長	宋德性	中央布敎院長	金統元	서울宗務院長	金德龍	中央宗會議員(無順)	
總務院長	安慧光	中央敎育院長	釋光慧	京畿宗務院長	趙大法	禹海倫	金統元
財務部長	李法蓮	中央宗會副議長	安行照	江原宗務院長	李萬慧	李一覺	釋行文
敎務部長	金月潭	中央宗會副議長	許行滿	永東宗務院長	金慧空	金法空	趙大法
糾正部長	嚴法華	國際文化院長	金法空	忠北宗務院長	金日長	李萬慧	鄭慧緣
監察部長	趙行修	禪院副院長	趙法晉	慶北宗務院長	朴雲鶴	安行悟	朴雲鶴
敎育部長	張顯空	護法院長	成慧泉	慶南中部宗務院長	梁海日	嚴法華	朴慧法
調査部長	林慧山	護法副院長	朴慧法	慶南西部宗務院長	黃法光	梁海日	李慧山
社會局長	咸志云	中央律院長	元云潭	釜山宗務院長	鄭德正	安志遠	黃法光
		企劃室長	孫慧覺	蔚山宗務院長	朴海月	朴海月	鄭德正
				南海宗務院長	車行悟	李行綠	張行梵
						許行滿	林慧山
						車行悟	金日長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24년의 기다림!

/수/신/토/종/오/가/피/ **예헌** 禮獻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지료 신청 02-968-0005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윤 범 모
미술평론가 · 경원대 교수

길에서 길을 묻는다

이 길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루 종일을 달렸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을 오늘도 달렸다. 나는 현재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 중이다. 손수 운전으로 대륙의 광활함을 체험하고 있다. 정말도 무지막지할 정도로 커다란 땅덩어리이다.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도 무엇이 부족하여 남의 땅까지 넘보았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광활한 대지, 그 곳의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어제도, 오늘도 하루 종일을 달렸다. 하여 보스턴에서,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나의 핸들은 분주했다. 그래도 동부의 북쪽 지역은 적당히 구릉도 있고 우거진 나무 숲의 산도 보인다. 하지만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지역의 황량한 풍경은 정말로 지루한 길의 연속일 따름이다.

질주를 하면서, 숱한 트럭과 만나면서, 나는 잭 케루악의 장편소설 <노상에서>를 생각했다. 동으로, 서로,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면서 젊음을 소진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했다. 길에서 헤매는 인생. 노상에서, 그것은 한 때 나의 화두이기도 했다. 무엇인가 길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 남의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남을 나의 차에 태워주기도 하고. 히치하이크라는 제도는 하나의 미풍임에 틀림없으리라.

하지만 세상이 험악해지면서 언젠가부터 남의 차 얻어 타기가 사라졌다. 각박한 세상인심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아쉬운 일임에 틀림없다.

동행은 아름다운 일이다. 먼 길을 낯선 사람과 함께 가기. 그것은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인생살이는 낯선 사람과 만남의 연속이 아니겠는가. 시절인연이 오면 친해지고 또 언젠가는 헤어지고. 그 모든 것은 바로 길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길, 길은 우리 인생살이를 상징한다. 오솔길이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도 있듯이.

도반(道伴)이란 단어를 생각한다. 벗과 함께 가는 길, 그것처럼 아름다운 길도 없으리라. 그 길이 피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면 더욱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길을 걷는다. 그 길은 익숙한 어제의 길이기도 하고 낯선 새로운 길이기도 하다. 나그네 길을 도반과 함께 하는가. 과연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반이 있는가. 도반이라는 단어는 가람에서만 통용되는 특수용어인가. 가람이라고 하니 불교 용어가 떠오른다. 바로 협시불이라는 용어이다.

삼존불의 경우, 우리는 흔히 본존상의 옆에 있는 상을 협시불이라고 한다. 협시라는 단어는 상하의 수직구도를 일컫는다. 깨달음의 세계에서 굳이 위계질서가 분명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 나는 언젠가부터 협시라는 용어에 대하여 커다란 아쉬움을 지니고 있었다. 하여 협시를 대신할 만한 용어 찾기에 골몰하기도 했다. 그 같은 고민은 우연히 한 도반으로부터 해결되었다. 바로 반불(伴佛)이라는 용어였다. 반불은 수직이 아닌 수평의 구도를 의미한다. 상하의 위계질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렇듯 평등개념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의 의미가 아닌가. 협시불이라는 용어보다 반불이라는 용어, 나는 이 말에 감동을 하고 있다.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도반과 함께 가는 길은 힘들지 않듯이.

나는 오늘도 대륙을 질주했다. 물론 가족과의 여행길이지만, 길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부처님의 일생은 바로 길,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탄생, 득도, 설법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길과 연결되어 있다. 그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길은 안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는 전진을 요구한다. 운수행각이라는 단어의 상큼함이 이 여름을 멋있게 꾸민다.

우리는 길을 간다. 혼자 혹은 여럿이.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이 뜨거운 여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그대는 협시를 원하는가, 반불을 원하는가.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지난 7월 22일 금강산 신계사에서는 분단이후 최초로 '6 · 15 공동선언 실천과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가 열렸다.

최근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열린 이번 법회는 남북의 재가불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부처님 앞에 하나임을 확인하고 조국통일의 대열에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실로 크다고 하겠다.

이 땅의 불교가 남북통일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화두는 전통적으로 조국의 문화와 자주를 지탱해온 우리 불자들에게 시대적 명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 남북의 모든 불자가 통일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라영식 조불련 신도회장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우리 불자들은 곧잘 서산 · 사명대사의 순교적 구국정신을 되뇌이곤 한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조국분단의 극복을 위해 과연 얼마나 통일보살로서의 순교적 활동을 해왔던가? 부끄럽게도 분단

'통일보살'로 살자

조국의 현실에 그동안 불교계의 관심은 매우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불교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면 먼저 이렇듯 알량하기 짝이 없었던 불교계의 통일의지부터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각설하고, 이번 합동법회를 지켜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남북불교도 공동성명 내용이 일본의 신사참배, 역사왜곡, 독도문제만 규탄하고 끝남으로써 마치 남북분단의 책임을 일본에게 전가하는 듯 느껴졌다는 것이다. 6 · 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은 외세규탄만으로 성취되지 않으며, 기원만으로도 성취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통일보살이 될 것을 사홍서원과 똑같이 서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원은 순교적 실천에 다름 아니다.

이번 법회를 계기로 우리 남북 불교도간의 만남과 교류를 더욱 자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임을 재확인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오늘 통일보살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한반도 평화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거니 원한 지닌 그 속에서 성내지 않노라. 흔히들 모두 원한 있어도 나의 가는 길엔 원한 없도다. 승리할 때는 원망을 사고 패배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나니, 승패에 매이는 마음 떠나야 다툼 없어 스스로 평안해지리다.

〈법구경 안락행품〉

제4차 6자회담이 7월 2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13개월 만에 재개된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은 대북송전이라는 에너지 지원 제안으로 북미 양측 신뢰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벌써부터 핵 문제가 해결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크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주변국을 비롯해 세계평화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미간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해답은 이미 2003년 제3차 6자회담에서 도출된 것이 사실이다.

북미간 조율 사안은 '동시이행' '선 핵 폐기 후 안전보장'으로 귀결된다. 그런 만큼 양측이 조금만 양보하면 한반도의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승리할 때는 원망을 사고 패배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나니, 승패에 매이는 마음 떠나야 다툼 없어 스스로 평안해지리다'라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서로 승리하는 결과를 도출해야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의 관철은 계속적인 불화의 불씨를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6자 회담이 한반도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6개국을 비롯해 온 국민의 관심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 김원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sbs의 수경사 보도는 올바른가

수경사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사찰이라고 각 언론사에서 서로 다투어 미담으로 방송했던 사찰이다. 불자들은 참 소중한 일을 하는 절이라고 생각했고 불자들에게 표상이 될 만한 절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 원효 스님이 저술한 <발심수행장>에서도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승행(大乘行)을 닦아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면 하늘이 찬양할 뿐 아니라 마침내는 여래(如來)의 사자좌(獅子座)에 나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경사가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절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언론이 철학 없는 냄비 언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 자본주의 언론은 너무나 상업적이고 심각한 아상에 매몰되어 시청률만을 의식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독이 되는 방송을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언론의 자성을 촉구한다.

그러나 일부 불자들은 이러한 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하여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보도 행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편파 왜곡 보도에 편승하여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오계 팔정도 육바라밀을 행하는 불자의 도리가 아니다. 언론에 맹신하는 불자라면 정견으로 언론을 바르게 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불자들은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잘못된 언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세상은 평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로 존재한다.

세상은 언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 연기에 의해 존재한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처님 말씀으로 혼탁한 세상을 맑히려는 일에 자신 몸을 던지는 희생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진정한 수행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널리 전하며 불법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에게서 승가를 바르게 지키고 승가의 위상을 청정하게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언제나 승가의 화합을 말씀하셨다.

수경사에 비구니 스님이 중생을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봉사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교도들이 위장하여 봉사자들을 보내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스님을 모함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도 침묵을 하고 있을 것인가.

불교의 발전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수경사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참다운 수행이며 이 시대 불교 발전에 대한 불교도들의 진정한 화두이다.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시민 폭행 의원 물러나야

김포시 윤모 시의원이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설명회에서 습지 지정에 찬성하는 스님을 폭행했다고 한다. 스님을 폭행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시민을 폭행했다는 이유에서도 시의원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사람은 한국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짓을 보고 흉내 내는 모양인데 정말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

시의원 정도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일텐데 그런 이들이 어떻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지나 갈수 없는 문제이다.

물러나게(붓다뉴스)

11면 상식 퍼즐 정답

구	관	조	■	혈	■	■
도	■	사	대	육	신	■
역	■	■	부	■	기	■
정	독	■	■	■	원	단
■	불	■	공	■	■	순
■	장	삼	이	사	■	호
공	군	■	■	시	금	치

'현대'만평 심 민 섭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쑥뜸! 쑥뜸! 온구(쑥뜸)기 개발!

연기와 화상에서 완전 해방된 온구(쑥뜸)기
민간요법, 대체의학계의 기본이 되는 쑥뜸!

한의원, 피부관리실, 경락 · 스포츠 맛사지실,
다이어트방 및 가정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오행온구(쑥뜸)기는
5개의 쑥봉으로 5개의 혈자리에
동시에 쑥뜸을 할 수 있다.

대리점 및 쑥뜸체험실 모집

오행온구(쑥뜸)기
혈자리를 몰라도 뜰 수 있다
(배는 따뜻, 머리는 차갑게)

쑥뜸이 좋은 이유

하나,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므로써 생식기 주변의 습기를 제거하여 양의 기운을 북돋운다.
둘, 관원혈을 자극하여 음경내의 조직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을 시킴으로 정력이 강화된다.
셋, 인체 깊숙한 곳에 쑥의 약초 성분과 열기가 침투되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감기 몸살에 효과가 있다.
넷, 면역기능 형성이 작용하여 항체를 늘리는 작용을 한다.
다섯, 뜸뜬후 5분 경과시 백혈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한두시간 후에는 정상인의 2배가 된다.
여섯, 장운동을 원활히 하여 숙변이 제거되면서 열기로 인해 노폐물과 단백질을 분해시켜 균형잡힌 복부를 만든다.
일곱, 출산 후 아래로 쳐져 있는 장기들을 쑥뜸의 특이한 기능으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여 빠른 회복을 돕는다.
여덟, 위장이나 대장의 자율신경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체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몸밖으로 배출시킴으로 인해 기미나 여드름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D.M.I 산업 대구한의대학교(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모사포유 www.moxa4u.com ☎ 02-521-6353~4



신행단체들이 템플스테이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합천 해인사 템플스테이에서 인경을 배우고 있는 직장인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직접 짜고 참여하니 신심나네

맞춤식 템플스테이 이렇게 …

준비과정 통한 회원간 단합 도모
직업 특성 · 참가자 수준 고려해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신행단체의 신행문화도 바꾸고 있다. 신행단체들이 매년 실시해오던 수련회를 체험 위주의 템플스테이로 대체하고 있는 것.

템플스테이는 불자들이 다양한 불교문화를 접함으로써 자기수행과 신심을 진작하는 기회가 되는가 하면, 자칫 '남도 하니까 나도 하는' 식의 관성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신행단체의 템플스테이는 일반 템플스테이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

#스스로 기획 · 준비하라

기획에서부터 회향까지 템플스테이의 모든 프로그램과 필요한 준비물, 법사 · 강사 등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획단계에서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 테마를 설정하고, 모든 회원이 참여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템플스테이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사찰 활용하라

올해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사찰은 50여 곳. 이 사찰들은 템플스테이를 할 만한 공간과 여건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용할 능력이 있지만, 신행단체의 템플스테이로는 적합하지 프로그램이 많다.

템플스테이를 정기적으로 열지 않더라도 참가자들이 공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숙식 공간이 있는 사찰이라면 어느 곳이든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행단체가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도 좋다. 지역불교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정 맞는 프로그램 구성

템플스테이의 성공여부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행단체의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단체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찰의 사정과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면 오래 남는 템플스테이가 될 수 있다. 직장단체는 직업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직장생활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와 불교' '지자체와 종교' 등을 주제로 한 강좌나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불자회에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또 병원불자모임의 경우 '불교와 의학'과 같은 강좌를 마련해 직업적 시각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양방과 한방의 이해'와 같은 강좌를 통해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도 알찬 템플스테이의 한 방법이다.

#가족과 함께

활발한 신행단체 활동을 위해서는 신행활동에 대한 가족의 이해가 필요하다. 템플스테이에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신행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또한 신행단체에 있어서도 회원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모임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의 핵심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 짝을 이뤄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징검다리를 건너게 하는 '징검다리 건너기',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3배 올리기' 등의 프로그램은 가족 프로그램으로써 손색이 없다.

#피드백…느낌 공유

템플스테이가 그저 한 번의 좋은 체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템플스테이의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소감문 올리기'는 회원간 동질감을 느끼고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 또 소감문에는 댓글을 달아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모임 활성화로 연결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장동료가 함께 사용하는 인트라넷에서는 포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정후시

서울 성북구청 법륜회장

'무재칠시' 운동으로 매월 봉사
휴일때 세곳 사찰 다니며 신행

서울 성북구청 전입 후 2년째 되던 1995년 성북구청 법륜회장을 맡아 10년이 넘도록 회원들을 다독이는 정후시(54 · 사진) 회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1, 2기 사무국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이전 근무지였던 중랑구청에서도 1988년 보현회를 결성할 만큼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불자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단결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불자들을 조직화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불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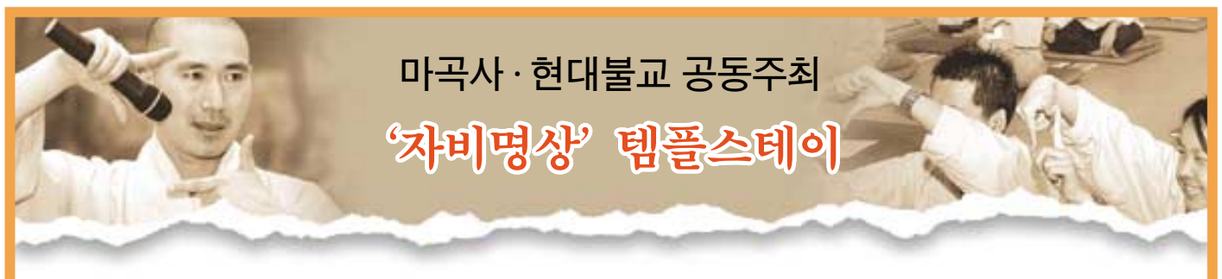
평소 실천을 강조하는 정 회장이 무재칠시(無財七施, 재물이 없어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곱가지 보시) 운동을 제안해 성북구청 법륜회는 매월 관내 복지관과 소쩍새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는 사경을 생활화해 구청내에서도 회원들의 평판이 매우 좋다.

"법륜회원들은 직급,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하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생활을 실천하고 있어요. 회원들의 모범적인 생활을 보고 동료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불법을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지요.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불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교에 문외한이던 정 회장을 불교로 이끈 이는 부인이었다. 보은 법주사에서 월탄스님으로부터 혜법(慧法)이라는 법명을 받은 정 회장은 부인을 따라 법회와 사찰을 다니기 시작했고 불서를 읽으며 믿음을 키웠다. 휴일이나 휴가 때에는 일행삼사(一行三寺, 한 번 절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세 곳의 절에 간다)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사찰을 찾아다녔다.

요즘에는 사찰을 찾을 때마다 자신을 버리는 기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불교의 자비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를 믿으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나를 버리는 방법을 배운거에요. 이 한 가지가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놓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부처님과 큰스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박봉영 기자**



마곡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순간 최고로 사랑하세요

4차,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장마 뒤 불볕더위가 한창이던 7월 22일~24일 12가족 47명이 마곡사를 찾았다. 가족을 위한 제4차 마곡사 여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한데 모여 먹고, 자고, 예불을 올리며 '참가자'라는 또 다른 가족을 이루어 사흘을 지냈다.

 # 느림의 미학 배우기

열 두 가족이 연화당에 모여 앉은 템플스테이 첫째 날. 각 가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족 이름과 개인 별칭을 지은 참가자들은 서로 어색함을 깨기 위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서 오셨어요? 저희는 분당에서 왔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108배나 발우공양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도 큰일이고…. 하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가족들을 끌고 왔어요."(곡우: 기사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마곡사 템플스테이에서 스스로 만들어 사용한 별칭임)

"우리가족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빠르고 자극적인 것만 찾잖아요. 정적인 것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죠. 하지만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아이들이 '느림의 미학'도 배웠으면 좋겠어요."(빛)

걱정 반 설레임 반인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도심을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온 것도, 절에서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다.

법당에 들어온 풍뎅이를 건드리던 10살의 달빛양은 아빠에게 "절에서는 곤충 괴롭히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들었다. '행복' 가족의 가장인 지킴이씨는 툇마루를 뛰어가던 자녀들에게 법당 예절을 알려주어야 했다. "절 안을 거닐 때는 배 앞에 양손을 가지런히 포개서 차수(叉手)하고, 법당을 드나들 때는 옆으로 들어가서 합장 반배를 하는 거란다."

몇몇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대중생활도 수행의 일부'로 여기는 절집 전통에 따라 "3일 동안 온 가족이 법당에 모여서 생활해야 한다"는 말에 당황해 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잠을 자는 생활. 조금만 싸워도, 조금만 상대가 언성을 높여도 바로 표시가 나 버린다. 편할 리가 없다. 중학생 마쿠군(은 "평소에는 우리 식구끼리도 각자의 방에서 지내고 서로 마주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밝히며 "하지만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 가족과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다른 사람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삼배를 해보는 아이의 얼굴이 밝기만 하다.



"우리가족은 '여행을 좋아하는 가족'이에요" 가족의 특징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아이들.



"사랑한다, 내 딸아". 진심을 다해 자녀를 끌어 안으며 귀에 속삭여본다.

 # 장 단점 이야기하며 하나되기

둘째 날, 본격적으로 절 생활이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무심코 상처 주며 지내왔던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가족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을 배워 나갔다.

참가자들은 '감사 · 사랑 · 보은' 프로그램 시간에 "가족에게 평소 가장 하고 싶었던 것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들의 장점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라는 김인선 교수(원광대학교 예술치료학과)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결과는 놀라웠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비슷한 점으로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사랑' 가족의 평화씨는 "가족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는 동안, 새삼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모레가 남편 생일인데 그동안 (남편의 고향 방식인) 이북식 닭곰탕 한번 못 끓여줘 봤다"며 "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울먹이는 아내. "언제나 아토피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 마음을 알면서도 불량식품을 먹고서 탈이 났던 거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아이.

신기한 것은 그림을 그리니까 말로 할 때보다 더욱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쉽다는 점이다. '청기와' 가족은 "평소 부부 성격이 예민해서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들 그림에도 그것이 반영된 것을 보고 놀랐다"며 "그 동안 알면서도 못 고쳤는데 이제는 고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박장대소하기도 했다. 산행을 할 때도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부부, 계곡에서 흙발을 정성스럽게 서로 씻겨주는 아이들…. 가족은 어느새 가장 중요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진행자 마가 스님(마곡사 포교국장)은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라"고 주문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바로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감사를 보내라"고 독려했다.

 # 마음 표현하면 행복해집니다

내일이 되면 늦기에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절정에 이른 것은 마지막 날이었다.

'천상천하유아독존' 시간, 참가자들은 각 가족 구성원의 칭찬받을 점 열 가지를 적어 눈을 감고 있는 상대방에게 읽어주었다. "여보, 늘 친정도 잘 챙겨줘서 정말로 고마워." "그동안 날 아낌없이 사랑해줘서 고맙소, 당신이 없으면 내겐 아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한 '하늘 땅' 가족의 부부 꾀꼬리씨와 종달새씨는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니 결혼식 날 주례선생님의 주례사 받을 때의 기분이 되살아난다"고 말하며 웃었다. 평소에는 눈을 마주치기도 쑥스러워했던 부부지만, 오히려 자녀 비둘기양은 "엄마 아빠가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라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헤어지기 전의 마지막 프로그램 시간, 참가자들은 전원이 서로에게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늘 기쁘고 화목하시기를" 기원하며 삼배를 올렸다. '바람과 물' 가족의 춘희씨는 눈가를 훔치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안다는 말대로, 여러분의 사랑과 기원을 받았으니 열심히 가족에게 표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작할 때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이웃사촌이 된 참가자들. 이제 생활현장으로 돌아갈 그들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글귀가 새겨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한다.

'날마다 좋은날', <벽암록> 중에서

글 · 사진/마곡사=이은비 기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의 울퉁불퉁한 발을 씻겨주는 가족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1강 <금강경>의 소(疏)를 시작하며

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겁주지 마십시오. 팔만대장경이라 운을 떼면, 사람들은 그 엄청난 분량과 어려운 한문에 놀라, 혹은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렸고, 혹은 숨을 멈추고 시렁에 고이 모셨습니다. 둘 다 길이 아닙니다. 불교는 '알아야' 맛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를 양이면 차라리 불교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의 핵심은 지금까지 보았듯이, 매우 단순하고 쉬운 바 있습니다. 준비는 '마음' 하나면 됩니다.

불교는 쉽습니다

이 말에 또 팔만대장경을 떠올리며, "설마"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불가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바닷물의 맛을 알자고 바다를 다 들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어떻게 다 읽을 것입니까.

모든 일에는 요령이 있고, 말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악하면 나머지는 쉽게 풀립니다. 원효 스님이 일찍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펼치면 팔만대장경이지만, 압축하면 마음 하나로 귀착된다." 원효의 복잡한 교설도 사실 무덤에서 마신 해골 물에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가 쉽다는 제 말을 아니 믿으시려 하시니, 앞선 조사와 선지식의 권위를 빌려 볼까요. 선의 3조 승찬 대사는 선문헌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신심명(信心銘)> 첫머리에서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지도무난(至道無難)!" 스님은 불교가 말하는 진리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분명하고도 힘차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 이름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바탕을 에누리 없이, 제발 믿으라는 눈물겨운 권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고, 오래된 책이나 자기 밖의 권위에 기대려는 오랜 습성을 키워왔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용단하여 훽 뿌리치고, 마음 깊이 자기 마음을 믿고 그 내면의 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습니까. 왜 자신은 하찮다고 생각하고,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자기 밖에, 자기보다 더 높고 위대한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마음에 불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이 곧 불성입니다. 마조의 권유처럼 다만 오염시키거나 억압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완전하니,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입니다.

이참에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불교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병폐가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아니 듣는 버릇입니다. 말하면 액면 그대로 들어야 하는데, 꼭 뒤집어보고 의심하면서 그 뒷면에 무슨 딴 의도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조주 스님은 학인(學人) 하나가 도(道)가 무엇이냐"고 하자, 앞에 따라 놓은 차를 가리키며, "자, 들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마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서 길을 더듬습니다. 도(道)가 멀리 있지 않고, "뜰 앞에 있는 잣나무"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잣나무를 빈 마음으로 보고, 하나 된 마음으로 껴안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머리를 굴립니다. 그 순간 도는 십만 팔천리 우주 밖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빈 마음으로 보고, 마주 선 사람을 하나 된 마음으로 껴안는 것, 그것뿐이라면 정말 쉽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거기 아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만큼 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려움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기가', 그리고 그 바라밀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

불교는 아무 것도 주지 않습니다

불교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잊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고 '자각'하도록 도와줄 뿐, 없는 것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무엇을 더 얹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야심경>을 위시한 반야부, 그리고 선의 전통은 "아무것도 얻은 바 없다"는 무득(無得)의 철학을 설파합니다. 불교가 혹시 무엇을 가져다 주거나 덧보태 주기를 기대할까 보아, 불교는 아예 거기 "깨닫는 것도 없다"는 무지(無智)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 인용한 <반야심경>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無智亦無得!" 그런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以無所得故, 菩提薩埵, 依般若波羅蜜多故, 心無罣碍. 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究竟涅槃." 이 뜻을 부연해 볼까요.

"깨닫는 것도 없고, 그리하여 얻는 것도 없으니… 요컨대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작게는 작은 거슬림이 있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크게는 어떤 역경에 처하거나 불행에 처하더라도, 그 주어진 운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쓴 약은 깊이 울대로 삼키는 연습을 해 나갑시다. 그 용기와 더불어 세상은 나의 자아와 대적하기를 즐겨나갈 것이고, 그와 더불어 마음에는 장애물이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에 장애물이 없을 때,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그 욕망의 저쪽 야누스인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투명하고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보디스바하, 거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경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불교는 반쪽입니다

불교에 대한 또 다른 오해 하나를 짚어주어야겠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행동'을 지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기에 불교의 하늘에는 서로 다른 개성의 수많은 별들이 명멸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가 특정한 '명령'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 불교는 '비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는 비본질적 삶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불교의 최강의 강점이 이것입니다. 삶을 특정한 양식에 맞추어 규율하지 않으려 하기에, 불교는 어떤 형태의 삶에도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나 종족에 상관없이, 직업이나 개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심금에 파고들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런 점에서 인간이 배워야할 근본 중에 근본이지만, 그것이 가르치는 것은 기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썼다가 지우는 물건입니다. <금강경>이 뗏목의 비유를 들고, 금가루의 위험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취지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교는 반쪽만 가르칩니다. 나머지 반쪽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 채우고 증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 자율학습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십시오. 왜 아무런 지시도 명령도 없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그것이 불안 갑갑하여 또 다른 명령을 내리려 하지 마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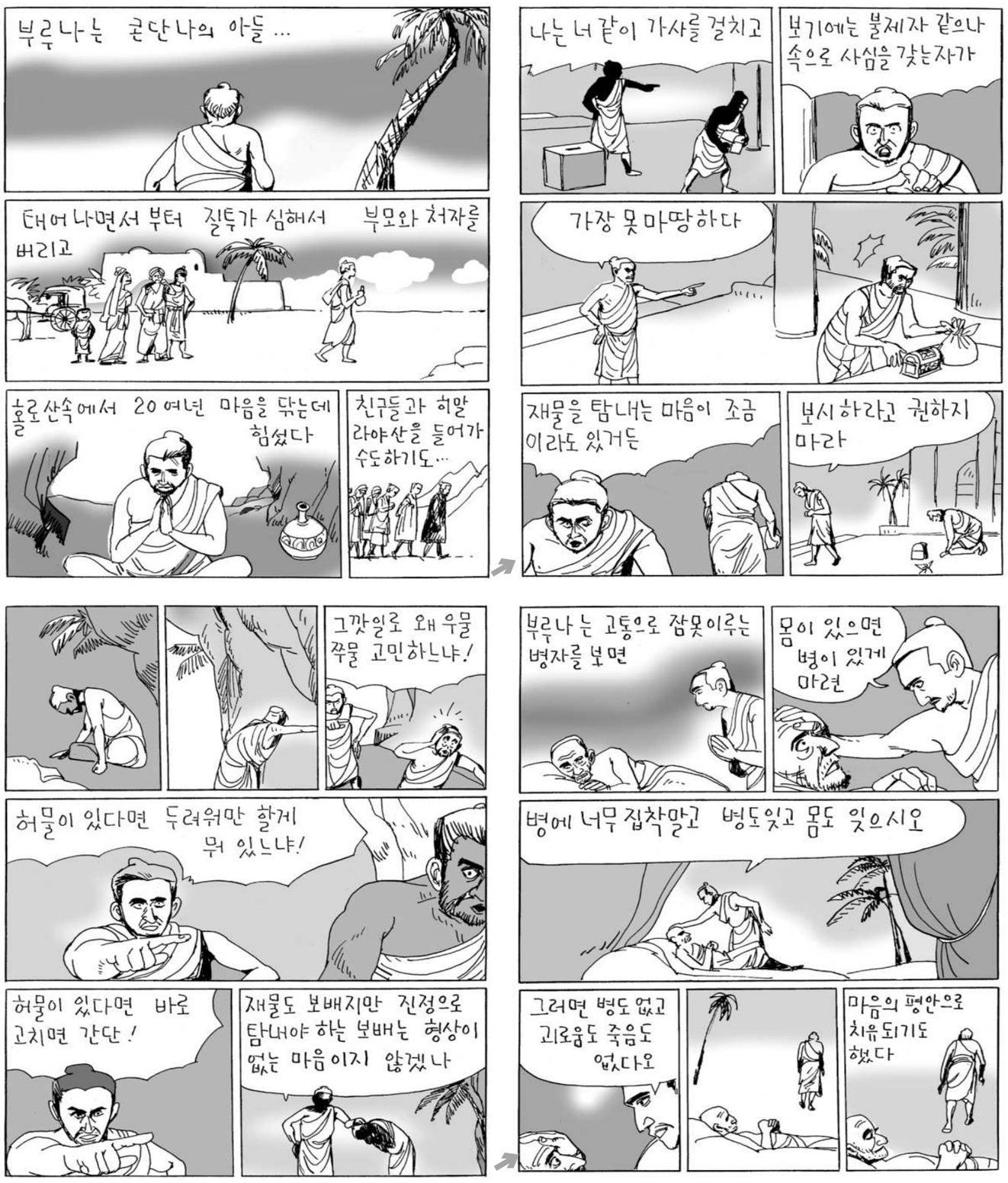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77 부루나 존자의 '마음'

조태호



부루나(富樓那 ; ?~?): 인도 카필라성 인근 지역에서 태어남. 석가모니 부처님의 십대 제자중 한사람. 특히 설법에 뛰어나 '설법제일'로 불림.

네티즌 교리문답

'바라지'란 말이 불교용어라면서요?

문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가 어느 날, '바라지'란 말이 불교용어라고 하시더군요. '뒷바라지하다' 등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라지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불효자)

답1 : 바라지는 법회를 집전하는 법주(法主)를 돕는 스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옥바라지' '음식바라지' 등의 말로 쓰이곤 하지요. 또 이런 말도 있지요. '뒷바라지를 잘해야 일이 순순히 풀린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결국 땀 흘려 얻어낸 성과나 큰 어려움의 극복에는 반드시 뒷바라지한 배경이 있기 마련이지요. (무한 효도)

답2 : 바라지는 절에서 재를 올릴 때 법주(法主)를 도와 경전을 독송하고 가영(歌詠)을 부르는 스님으로부터 어원이 생겼습니다. 재는 돌아가신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시식(施式)의식이 하이라이트를 이루는데, 이때 바라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음시식의 절차 일부와 바라지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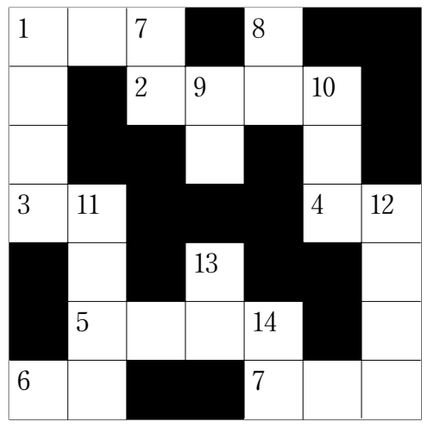
관음시식이 시작되면 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이 법당에 들어와서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법주스님은 요령을 지니고 바라지스님은 목탁을 지닙니다. 시식이 시작되면 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이 함께 요령과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며 재를 올릴 것을 고합니다. 이어 법주스님이 혼자서 요령을 흔들며 간절한 청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바라지스님과 법주스님이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삼보에 귀의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어 바라지스님 혼자서 향화청의 가영을 통해 향과 꽃과 차를 올리는 의미를 범패형식의 가락을 통해 전하는 '바라지'를 합니다. 이후 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이 번갈아 가며 진언을 욉니다.(의식박사)

답3 :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 바라지는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이나 옷을 대주고 뒤에서 일을 돌보아 주는 일, 또는 돌보아 주는 사람이라는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바라지'라든가 '옥(獄)바라지'가 사용범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방편의 도움, 궁지에 처한 사람 돕기 정도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용도로 바라지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바라지가 갖고 있는 본래의 역할은 지옥중생 또는 구천에 떠도는 고혼(孤魂)을 바라지하여 극락으로 왕생시키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라지와 같이 우리 주변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의미의 불교용어를 찾아 음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바라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9면에

가로 1. 사람의 말을 흉내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새 2. 두 팔 두 다리 머리 몸통이란 뜻으로 온몸을 이르는 말 3. 자세히 읽음 4. 설날 아침 5.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아들이란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뜻함 6. 삼군은 육군, 해군, ○○ 7. 뽀빠이는 이것을 먹으면 힘이 솟아난다.

세로 1.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겪는 모진 수행 과정을 일컫는 말 7. 한 종파를 세우고 그 종지(宗旨)를 열어 주장한 사람 8. 피와 살이란 뜻으로 자식을 일컬음 9. 마론 브란도가 돈 꼬르네오로란 배역으로 출연한 영화 10. 획기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 11.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만 일을 처리하는 사람 12. 붉은 입술과 하얀 이라는 뜻으로 미인을 나타낸 말 13. 탄환의 뇌관을 쳐서 폭발하게 하는 송곳 모양의 장치 14. 십이시의 여섯째 시.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3>



대립과 갈등을 넘어

부처님께서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탁발로 해결하는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다 사위성에 사는 한 청년에게 깨달음의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양은 이 청년에게 받아야겠구나.'

부처님은 발우를 들고서 천천히 청년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청년은 멀리서 부처님이 자기 집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신분은 전다라 즉 가장 낮은 계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똥치는 일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천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다가가지도 않고 그림자조차도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인도 사회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자기 집으로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자기 모습이 너무 창피하여 부처님을 피해 다른 골목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어느 사이 그 앞으로 가서 마주 서셨습니다.

'내가 메고 있는 이 똥통에서는 추악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뵐 수 있으랴?'

그는 다시 부처님을 피해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통이 깨지자 순식간에 오물이 땅에 쏟아졌고 청년은 땅 주인의 매서운 질책을 들을까 겁이 나 다시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일부러 너 때문에 왔는데 자꾸 어디로 가려 하느냐?"

"제 몸이 더러워 감히 부처님을 가까이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 친척도 처자도 없는 외톨이입니다. 게다가 저는 똥을 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천하기 그지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대체 부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 너를 제도해 사문을 만들리라."

청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민에게는 신앙생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곧 신통의 힘으로 그를 갠지스 강으로 데려가 악취가 풍기던 몸을 깨끗하게 목욕시켰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어엿한 수행자로 다시 태어난 청년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빈천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다행히 조그만 복이 있어 진리의 맛을 보게 되었다. 만일 지금 스스로 도를 구하지 않으면 뒷날에는 보잘것없는 범부에 떨어져 지금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부지런히 수행한 끝에 열흘이 못 되어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성자가 되었습니다.(출요경 제19권)

처음 이 경을 읽었을 때 부처님께서 똥치기 청년에게 "너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슨 그리 큰 의미가 담겨 있으랴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저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셨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라 불리는 '암베드카르(1891~1956)'에 대한 책을 읽자니 "천민인 똥치기에게 다가간" 부처님의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철벽같은 관습깨고 똥치기 청년에게 다가갔듯 상대를 위해 먼저 다가갈 수는 없는 건가요

불가촉천민 즉 접촉해서 안 되는 천민에 대한 인도 사회의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천년이 지나도록 불가촉천민은 마을의 우물물도 마실 수 없었고, 성전 읽는 소리를 들기라도 하면 그 귀에 끓는 쇳물을 들이부어도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베드카르가 학생시절, 칠판의 문제를 풀러 나갔을 때 교실의 학생들이 모두 난리가 났었습니다. 칠판 뒤에 쌓아둔 자신들의 도시락이 부정 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고생 끝에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었을 때조차도 사환은 음료수를 주지 않았고 바닥의 카페트를 밟고 지나가면 부정 탔다며 걷어냈다고 합니다.

아예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불가촉천민. 그들은 다가올 수도, 내 쪽에서 다가가서도 안 되는 더러운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한 켠에서는 갈등과 대립의 행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위보다 더 굳은 관습을 깨고 '그'를 위해서 다가간 부처님도 계신데 저들은 왜 '상대'를 위해 다가가려 하지 않는지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세번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지상 백고좌

무공 스님

(가평 청오사 주지)



30여년간 군 포교에 매진한 무공 스님. 스님은 최근 불거진 군관련 사고와 관련해 군인들에게 인화 단결과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중한 자세를 당부했다.

30여년 군포교에 진력

무공(無空) 스님은 1950년 부산 동아대 정치경제학부에 재학 중 학도병으로 징집돼 62년 대위로 전역했다. 그해 범어사에서 前 조계종 종정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범어사와 송광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충청도의 어느 산에서 8년간 토굴정진 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청오사를 중건해 오늘에 이른다. 군불교진흥회 이사를 역임했고 세수 81세인 지금도 매주 군법당을 찾는 등 30여 년간 군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더위가 기승이다. 해마다 맞는 여름이고, 계절의 변화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더위에 지쳐 쉽게 짜증을 내며 산다. 더위를 잊기 위해 시원한 한 줄기 바람 같은, 막 길어 올린 차디찬 우물물 같은 감로법문을 듣고자 경기도 가평 청오사를 찾았다.

곧게 뻗은 경춘가도를 따라 찾아간 청오사는 작은 법당 하나와 요사채 하나,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숙소 하나가 전부인 단촐한 암자다.

청오사에는 올해 여든 한 살의 무공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30여년 넘게 군포교 활동에 매진해 온 스님은 지금도 매달 첫째·셋째 일요일에는 맹호부대를, 그 외에는 자매결연 맺은 부대와 초청법회를 여는 군 법당을 수시로 찾아가 군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기자가 연신 땀방울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스님은 부채를 손에 쥐어준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것도 마음이 덥다 하면 덥고, 마음이 안 덥다 하면 안 더운 것 아닙니까? 자꾸 덥다, 덥다 하니까 더 더운게지. 다른 일에 빠져 있으면 더위 느낄 새가 있던가요?"

"건강은 어떠신지요?"

"부처님은 <보왕삼매론>에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병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탐욕이 생기거든요. 병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삶의 가치를 알게 되요. 그리고 설사 내 몸에 병이 없다고 해도 유마 거사의 말씀처럼, 중생이 고통받는 한 출가자도 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병잡니다, 병자."

죽을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업' 뿐 인생살이에 과연 내 것이랄게 있나

오랜 세월 군인들과 만나온 스님이기에 최근 잇따른 군 관련 사고에 대해 여쭙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스님을 찾아 뵌 날은 총기 탈취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이라, 가평까지 이르는 길에도 수없이 검문을 당했던 터였다.

"최근 들어 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 군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그 어느 때 보다 큽니다. 군대란 곳이 정신적으로 힘든 곳이라 더욱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군인들에게 늘 인화단결과 올바른 국가관 정립, 그리고 삼사일행(三思一行)을 강조합니다. 조직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인화단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서로 믿고 화합하고 단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군인들에게 늘 불교에서 말하는 '육화경(六和敬)'의 가르침을 일러줍니다. 입으로는 다툼이 없이 화합하고, 같이 일하며 도와가며 뜻으로 화합하고, 바른 행실을 함께 닦으며 화합하고, 바른 견해를 함께 깨달으며 화합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며 화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국가관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자신의 본부사인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전쟁에 임해서도 '필사즉생(必死卽生) 필생즉사(必生卽死)'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법입니다.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를 지키겠다는 투철한 정신으로 싸운다면 생사를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사일행(三思一行), 즉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라고 이릅니다. 세 번 생각하면 세 번 참게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참을 인(忍)'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늘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죠."

스님이 이렇게 군 포교에 애정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군인 출신이라는 이유도 큰 몫을 차지한다. 스님은 1950년 부산 동아대 정치경제학부에 재학 중 학도병으로 징집돼 62년 대위로 전역, 출가한 이력을 갖고 있다. 사실 출가자에게 출가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지만, 스님의 출가 이력이 남다르기에 넌지시 당시의 이야기를 여쭈었다.

"제가 군에서 살생을 많이 했어요. 매일같이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을 봤지요. 그때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모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대 후 살생참회를 하고 전쟁 없는 불국정토(佛國淨土)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살상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종교나 문화,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현대인들은 부처님의 비폭력정신과 생명존중사상을 깨우쳐야 합니다.

내편이냐 네편이냐, 이것이 옳으냐 혹은 저것이 옳으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나와 남을 나누고 적과 동지를 나누고 내 것이나 내 편이 아닌 것은 타도의 대상으로 삼게 만듭니다. 불교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선업이 좋고 악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업도 내가 짓는 것이고 악업도 내가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선인도 한 순간 잘못하면 악업을 짓게 되고, 악인도 한 순간 마음을 바꾸면 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스승이고 악도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존중과 자비사상을 강조하는 스님은 군인들 일수록 깊고 넓은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교원초빙 및 직원공개채용

1. 교원 초빙

초빙분야					모집인원
내과(감염, 순환기, 내분비)	안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각 0명

2. 직원공개채용

초빙분야				모집인원
행정관리직	기술직	약무직	간호직	각 0명

3. 제출 및 문의

가.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에 한함.
나. 접수기간(서류접수)
1)교원 초빙 : 2005년 8월 22일(월) ~ 26일(금)
2)직원 채용 : 2005년 8월 1일(월) ~ 5일(금)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후 도착서류 및 미비서류는 반송함
다.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총무팀(우.410-773)
TEL : 031) 961 - 9305, 9307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홈페이지 "www.duih.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DONGGUK UNIVERSITY INTERNATIONAL HOSPITAL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정말 강한 군인은 자비심에 바탕 한 사람입니다.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깨침을 줘야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면 원한이 쌓이고, 그 원한은 다시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푼다면 원한을 살 일도 없고 복수를 부를 일도 없는 진정한 평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을 '대영웅(大英雄)'이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상대방을 힘으로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진리의 법으로 감화시키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상대방을 감화시키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렵지요. 오죽하면 산 속의 적은 100만 명도 토벌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적은 토벌하기 어렵다고 할까요. 자기 마음에 있는 적, 곧 탐진치 삼독(三毒)을 토벌한 사람이 바로 대영웅,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계정혜 삼학(三學)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이르셨습니다. 견고한 신심과 원력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명에 싸인 중생은 그저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에 얽매여 스스로 고통을 받고 번뇌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살이는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입니다. 내 소유라고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는 다만 자신이 지은 업만 가져갑니다. 이것만 알면 마음의 적에 끄달려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싸움 일으키는 주범 선도 악도 모두 스승 좋고 나쁨이 있겠는가

무공 스님은 이어 충청도의 어느 토굴에서 8년간 혼자서 수행할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겨울이면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어 숨조차 쉬기 힘든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스님은 한달 보름간 단식을 하며 정진하는 등 치열한 구도열을 내뿜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도 못 먹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참고 견디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것을 너무 못해요. 컴퓨터 자판기만 몇 번 두드리면 몸 안 움직이고 땀 안 흘려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보니 조금만 힘들어도 못견딥니다. 사이버상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착각하고 있어요.

인터넷 중독이라는 일종의 정신병이자 번뇌 덩어리를 안고 있으니 생각이 깊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 번뇌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할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벼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생사를 걸고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스님은 이 시대 불교는 무엇보다 포교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만히 산사에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잣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속의 적은 100만 명도 토벌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는 다스리기 어렵다"는 무공 스님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벼랑에 매달린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라"고 강조한다.

"제가 그동안 30여년 군인들하고 어울려 지냈는데, 요즘 되돌아보면 예전에 포교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엔 법회 때 유식한 말, 경전에 있는 문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야 유식해 보이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덜 뚫려서 그랬던 거야. 이제는 최대한 쉬운 말로, 군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요.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 조는 사람도 줄더라고. 불교도 이제 좀 더 대중들의 근기에 맞게 포교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불법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항상 옳은 법을 배우려고 애쓰라고 강조하는 무공 스님. 스님께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여쭈었다.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무명에 싸여 있으니까 생각이 전도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깨달으면 싸울 일이 없고 번뇌할 것도 없습니다. 좀 더 즐겁게 살고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굴레를 벗어나십시오.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세 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끝나고 스님의 안내로 절 곳곳을 둘러봤다. 청오사는 한국전쟁 때 폐사됐던 절을 1970년대 중건한 곳으로 곳곳이 손 볼 곳 투성이었지만, 스님은 사찰 불사대신 다른 원(願)을 세우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뜻 맞는 사람들과 군 법당을 많이 건립해 왔는데, 요새 가평 66사단에 군 법당을 하나 지었으면 싶어요. 대지는 있는데 건물 지을 돈이 없어 창고를 개조해서 법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군 법당 하나만 있으면 장병들이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정신수양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연 있는 불자와 만나 군 법당 하나 짓는 것이 내 생애 마지막 불사가 아닐까 싶어요."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로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무상 스님

사람 사람이 각기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을 달리한다. 수행하는 스님 또한 수행하는 방법과 도달하는 길이 다르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보고 느끼는 현상에 매몰되어 옳고 그름과 깊고 얕음을 논하게 된다.

옳고 그름은 만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이야기해도 부족하다. 그 장 단점은 스스로의 변명을 도와준다. 만 가지 조건과 스스로의 변명은 깊이를 모르는 외면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는 시끄럽다.

그래서 수행자에겐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하는 일 보다 다른 이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 모두를 따뜻함으로 이끈다. 따뜻함은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포근함은 아늑함으로 긴장과 경계를 녹인다.



그림 · 문병성

무상 스님에게는 다른 이로 하여금 경계와 저항을 느끼지 않게 하는 진솔함이 있다. 그 진솔함에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 점도 포함된다. 설혹 상대가 미운 짓을 했더라도 스스로가 알고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면 스님이 먼저 미안한 얼굴로 상대방을 안심시킨다.

무상 스님은 내년이면 세수로 환갑이 된다. 불가에서 환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만 세연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것이다. 나는 스님과 인연이 깊다. 1974년 해인사에서 처음 뵙고부터 해인강원과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함께 수료했다. 절집 인연으로는 사숙(師叔)님이 된다. 인연도 어찌 이런 인연이 있는가 싶다.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스님께서 먼저 안부를 묻는다. 거꾸로 된 것 같아 죄송스럽기 그지없다.

무상 스님의 은사는 성호 대덕이시다. 성호 스님은 무상 스님이 해인강원에서 소임을 볼 때 매월 무상 스님에게 용돈을 주셨다. 용돈을 준 까닭은 소임을 보면서 공금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경책에서다. 무상 스님은 이 일을 수행과 소임을 보는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스님은 일이 안될 때나 긴장이 풀릴 때에도 남을 탓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돌린다.

스님은 어디를 가도 쉬지를 않는다. 강원도 법흥사에서는 산신각을 짓고 개운사에서는 단청불사를 하고, 봉은사 포교실에 있을 때는 포교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프리카 풍물전을 열었다.

산이 좋아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고,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를 등정했다.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소임을 볼때는 중앙승가대학교 학사를 김포로 옮기는 일을 마무리 했다.

무상 스님이 봉은사 주지로 있을 때다. 봉은사 신도들의 숙원불사였던 미륵부처님 점안식도 원만히 끝났고 아셈 현상이 남았을 때다. 내가 "쉬었다 갑시다"했더니 아니라고 하셨다. 부처님 제자가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부를 못하면 불사로 불은(佛恩)과 시은(施恩)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불사는,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신도들의 기도 성취를 위한 안정과 평안을 주는 불사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다래헌과 법왕루 불사를 했고, 스님들의 수행과 신도들의 요양을 위해 한적한 교외에 봉은사 기도원과 부도전을 만들고자 했다.

진솔함으로 상대 무장해제 주변엔 늘 사람들로 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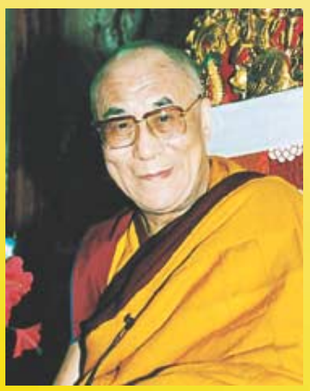
그 후 무상 스님이 송광사 총무소임을 볼 때는 교구 산하 말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 법원 증인으로 나갔다가, 법정에서 사기꾼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람이 법 판결 이전에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려운 공부를 이뤄 저런 사기꾼이나 변호하려고 변호사가 되었느냐?" 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비가 온 뒤를 본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흙은 돌을 받치고 있고 돌은 흙을 누르고 있다. 흙이 돌을 감싸고 있거나 돌이 흙을 받치고 있지 못한 돌과 흙은 저 아래로 떠밀려 굴러가 버렸다. 떠내려가고 굴러간 뒷자리에는 생채기가 나 있다. 내가 이웃과 함께 하면, 또 다른 이웃이 나와 함께 해 준다는 일상적인 가르침이다.

세상사 그러할 것이다. 사물을 대할 때에도 들고 보면 내 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놓고 보면 그들 것 아닌 것이 없다. 그들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우기면 싸움이 난다. 싸움은 사실이든 아니든 헤집게 되고 상처를 남긴다. 싸움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절교와 원망만 남는다.

무상 스님은 사물을 들고 보는 법이 없다. 모든 사물을 놓고 본다. 놓고 보는 편안함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럴 것이라고 다독여 준다. 함께하면 기쁨이 넘치고 혼자하면 외롭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그러기에 스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안온한 질서가 있다. 사람이 그리운 날에는 무상 스님을 보러 가면 된다. 스님은 지금 하남시 광덕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 가평 아가타 보원사 주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베트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
을 5일동안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5년 12월 12일 - 12월 16일 (5일간)
■장소 : 인도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 (진옥스님 061-662-1607)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
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 12월 3일~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
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 12월 9일~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12월 10일~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 출발일 :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
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
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
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
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 8월 20일 - 27일(4박 5일) 749,000원
● 8월 24일 - 31일(3박 4일) 699,000원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하고 싶은 수행' 전문가에게 묻다 ⑤

- 진언수행

'진언(眞言)은 부처의 본심(本心)이다. 그 본마음을 내 마음으로 불러내는 것이 진언수행의 핵심이다.' 수행자가 진언으로 '자심(自心)'을 통찰하면, 청정한 본래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진언은 '본래성불'을 강조하는 선수행의 원리와 닮았다.

그럼 진언수행의 원리는 무엇일까, 또 어떻게 수행하는 것일까? 7월 21일, 장용(54·서울 송파구 오륜동) 이성수(34·수원 망포동)씨가 혜정 정사(수원 유가심인당 주교)를 찾았다.



혜정 정사(사진 가운데)가 장용씨(왼쪽)와 이성수씨에게 진언수행의 결인(結印:부처와 중생이 하나임을 상징하는 손동작)법을 지도하고 있다.

부처의 본마음 볼 때 업장소멸

이몸 그대로 성불

#부처의 속마음에 가까이

진언수행 초심자, 이성수씨. 직접적인 질문부터 던졌다.

"진언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에요. 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결집한 것이라면, 진언은 그 가르침의 숨은 뜻을 짧은 말로 응축해 낸 거지요. 그래서 진언은 해석도 번역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진언의 종류도 능엄주, 준제진언, 광명진언 등 다양해요. 진각종의 경우에는 법신 비로자나불의 본심진언인 '옴마니 반메훔'을 외고 있지요."

"그럼, 왜 진언을 외야 하나요?"

"되물어보지요. 이 보살님, 수행이 뭘까요? 부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이 수행이겠죠.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떻게 갈까요? 부처님에게 공경과 찬탄을 표하는 절 수행, 부처님의 말씀을 읽는 독경, 앉아서 하는 참선 등 많지요. 그 중에 진언은 부처님의 속마음과 가장 가까워지려는 수행법이에요. 진언을 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부처임을 확인

이번에는 진언수행 7년차인 장용씨가 이어받았다.

"다른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수행의 단계에는 3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단계, 부처님처럼 되기 위한 단계, 내가 부처되기 위한 단계로 말할 수 있어요. 가령 사불, 절 등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찬탄을 표현하는 수행법들로 첫 단계에 속하며, 부처님의 속뜻과 말씀 내용을 알기 위한 간경 등은 중간 단계, 참선 진언 등은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진언수행은 이 중 '내가 부처되기 위한' 단계에 속해요. 진언은 부처님이 과거생으로부터 이미 말해놓은 진실한 마음을 통해 부처가 되려는 수행법이기 때문이죠."

"선수행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불하는 방식이 달라요. 선수행은 '자신의 본성을 보고 성불한다'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을 강조하고, 진언은 '이몸 그대로 성불한다'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을 증시해요."

장씨의 질문은 계속된다.

"다른 수행법과 달리 진언수행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수행법에는 우열이 없어요. 다만 사람의 근기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수행법이 다를 뿐이지요. 진언수행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부처님의 마음과 직접 통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찾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自心을 통찰, 참회가 이어진다

이씨가 진언수행 효과에 대해 물었다.

"진언수행이 잘 됐을 때, 어떤 자기변화가 오나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돼요. 자기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제일 먼저 파악하게 되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을 먼저 보고 자기를 비춰봄으로써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요. 그렇게 되면, 진언을 외고 들어도 정작 '진언을 왜 외는지' 모르게 돼요. 부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언수행이 일으키는 가장 큰 변화는 자심(自心)을 통찰하게 돼, 자신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바르게 만들어요.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됨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기꺼이 용서하게 되지요."

매일 새벽 6시면 10분씩 진언을 왼다는 장씨가 곧장 말을 받았다.

"그럼, 진언수행의 핵심은 업장참회가 되겠네요?"

"맞아요. 진언수행에는 반드시 참회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자심을 알게 되면 잘못부터 알게 되죠. 참회할 일을 먼저 확인하게 돼요."

#마음만 내면 언제 어디서나

질문은 자연스럽게 진언수행법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됐다.

"진언수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언수행은 수행자 자신의 마음과 약속이기 때문에 정진시간을 정해놓아야 해요. 시간은 보통 30분, 1시간, 3시간, 7시간 등으로 정하면 좋지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간만 내면 됩니다. 불상이 있든 경전이 없든 상관없이 진언수행을 하겠다는 뜻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언수행을 '처처불공(處處佛供) 또는 시시불공(時時佛供)'이라고도 하죠."

글·사진/수원=김철우 기자

10여년 진언수행 보급 앞장

▮혜정 정사는



혜정 정사(사진)는 10년 전부터 밀교수행 관련 공개강좌를 불교방송, 불교TV에서 총 420여회 진행해오는 등 불교계에서는 진언수행 지도자로 유명하다. 또 5년 전에는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일반인들을 위한 밀교교리대법회'를 봉행해 진언수행의 보급과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지난 1975년 진각종에 입문한 혜정 정사는 그간 교육원장, 종학연구실장, 교법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진언수행의 종학적 연구에 진력했으며, 현재는 수원 유가심인당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마니캄 붐> <밀교강좌> 등이 있다. (031)255-2585

▮진언수행 포인트

'입으로 외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관(觀)한다.' 진언수행의 핵심 포인트다. 부처의 본심이 수행자 자신의 본심임을 확인하고, 잠자는 본인의 청정심을 깨우는 것이 진언수행의 중심이 된다.

이런 진언수행을 할 때는 절대로 불·보살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결인(結印)을 풀지 말아야 하며, 진언 이외의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인한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등 흐트러진 행동도 삼가 해야 한다. 자세는 반가부좌를 취하며, 호흡은 진언을 5회 정도 입으로 외면서 날숨을 쉬고, 코로 크게 들숨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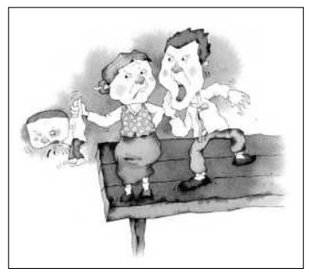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8> 진짜 무서운 아줌마 선지식들

"이 아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묻고는 암두 선사가 답변 못하자 자식 물에 던져

30~40년전 처음으로 삼천배 수행법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대단한 아줌마 보살들 말고는 감히 어느 누구도 도전해 볼 생각조차 못했다. 하지만 요즘은 삼천배 보살은 보통이고 '만배 보살'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강한 힘은 물론 자식사랑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강한 어머니도 지나치게 '내 새끼'에게만 집착하여 체면불구한 상태가 된다면 그 순간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얼굴 두꺼운 '아줌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선어록에는 정말 무서운 아줌마들이 많이 등장한다. 어록에는 '노파'라고 되어있지만 조금 젊게 보이도록 아줌마로 바꾸었다. 물론 그건 그녀의 수행력이 만만찮아 납자들을 버겁게 하는 아줌마들이다.



덕산선감(782~865) 선사의 <금강경> 답변이 시원찮아 돈을 줘도 떡을 팔지 않고서 쫄쫄 굶긴후 인연 있는 선지식인 용담숭신(782~865) 선사까지 지정해주고서 찾아가게 하는 떡장수 아줌마가 가장 유명하다.

토굴에서 수십년 동안 납자를 시봉하다가 어느 날 그의 공부경지가 별볼일 없음을 확인한 후 인정사정없이 내쫓고 암자에 불을 지른 열혈아줌마도 그 못지않다.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한소식한 아줌마들 때문에 선종 승려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는 만행은 물론 탁발조차 마음놓고 나갈 수 없다. 언제 강적(?)을 만나 얼굴 붉히는 무안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뭐니뭐니 해도 제일 무서운 아줌마는 암두전활(828~887) 선사가 만난 여자일 것이다. 그 때 암두 선사는 회창법난을 피해 속복차림으로 한양(漢陽)에서 뱃사공노릇을 하고 있었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모든 사람을 건네주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 강 양편에 세워놓은 나무판자를 두드리는 것이 뱃사공을 부르는 신호였다. 그것은 시대의 목탁이 되어 늘 깨어있어야 함을 스스로에게 경책하게 하는 또 다른 방편이기도 했다.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서 강을 건너가고자 목판을 두드렸다. 선사는 움막에서 나와 춤을 추고 노를 흔들면서 나왔다. 난세이지만 그래도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자기표현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때 추상같은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되지도 않는) 춤은 그만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하시오. 이 애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본래소식을 묻는 질문이다. 어렵쇼! 이게 뭐야. 뭘 알고서 묻는 거야. 무시하듯 가볍게 성의없이 형식적으로 노로써 뱃전을 두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아줌씨가 보니 그건 아니었다. 소문 듣고서 뭐 좀 아는줄 알고 왔더니 맹탕이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순간 암두 선사는 긴장했다. 다시 그 아줌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일곱 아이를 낳았는데 여섯 명을 이미 물 속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온 곳을 답변하지 못하면 이 아이마저도 물 속으로 집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암두 선사는 앞뒤가 꽉 막혀버렸다. 이는 '남전참묘' 즉 남전 선사가 고양이를 베어버린 그 일보다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깜깜. 그러자 그 아줌마는 말했다.

"내가 일곱 번째도 지음자(知音者)를 만나지 못했으니 이놈 하나도 살리지 못하겠구나" 하고는 아이를 바로 물 속에다가 던져버렸다. 물론 암두 선사의 얼굴빛은 보나마나 하얀 백지장이 되었을 것이다. 무서운 아줌마 선지식은 토끼 같은 자식마저도 납자들의 공부를 위해 과감하게 내놓았다.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니고 자그마치 일곱명이나…

조주 선사의 '남전참묘' 답변은 짚신을 머리에 이고 방안을 나가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일곱번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대답은 각자에게 맡겨야겠지.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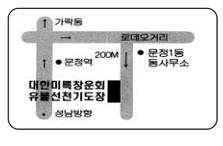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원.예술대학
사)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준 보유자 진하 큰스님
※ 재반의식교육 실시
각 사찰 모든 행사를 성심껏 사정에 따라 진행함
기초 불공의식 · 천도재 · 49재 · 바라무 · 작법무
051)556-1715 진하 문도회장 대명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 (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주2회(화,금요일) 2시간씩 5개월간
초보(입문)에서 예행, 연수까지 책임완성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6호선 망원 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친환경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제작
일반 영가옷과 치수동일
그들을 냄새 전혀 없습니다
한지는 질겨 잘 찢어지지않음
도심지 사찰에 사용하기 좋음
실용실안 26799호 의장등록 22988호
054)972-9933
전호번호 메모하세요!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①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를 찾습니다.
→ 천일기도 후 수계함(40세 미만)
② 사찰에서 생활할 노부부를 모십니다(보시금 없음)
③ 총무 소임으로 사찰을 관리할 비구나 비구니를 찾습니다
011-9803-6301
041-566-0722
033)334-0730

사찰운영(동업) 같이 하실분 모심 (스님 처사 보살)
1. 위치: 경주 2. 사찰규모 :
(토지: 약3,500평, 건물: 330평)
3. 참여하실분(소자본 투자가능 한분 사찰부동산 같이 등기함)
4. 교통 환경 너무나 좋습니다
010-7228-481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50대~60대
011-483-5639

53세 입니다 사찰에서 생활하며 평생 가족같이 지내고싶습니다
(사찰관리직)운전가능
010-6476-6026

고량산 파주 보광사
천년고찰인 지장도량 영각전 법당안내.
용모단정한 두분 모십니다
02)948-7700~1
02)948-4440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에게 달마그림 보시해드립니다
오셔서 받아가세요
010-6462-0343
주강합장

공 양 주 구 함
▷충북 제천
019-648-3898

절에서 기도하면서 기거하실분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공양주보살,부전스님 모십니다
▷55~65대
053)633-1444
011-9855-50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도봉동
02)954-1474
대한불교조계종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50~70대. 신원확실한 분
054)654-4925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전북 완주
063)243-4947

공양주구함
▷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사찰
보시금 80만원
031)943-5425

공양주보살님, 운전기사 (1종 대형) 모십니다
031)459-3108

운영이나 관리가 힘든 사찰 또는 암자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 경기지역
031)212-3361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통사찰
▷ 경남
010-6245-5330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010-4586-7160

행 자 모 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남일면
● 법당, 요사 방4칸
● 가액: 6000만원
010-9537-0108
043)296-4480

사찰안내
● 위치: 충청도
● 위치경관수려
● 가액: 9억
016-9558-0306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부여,대로변 100미터 인접
● 대지: 200평, 2층(80평) 정원양호
● 법당 1층(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층 (방2, 거실 주방)
● 가액: 1억 5천
011-9805-6747
041)832-1747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220평,건평 60평
법당, 요사채 2동
● 전세 : 2억5천(절충가능)
02)762-2204/02)745-6939
011-244-2083

사찰안내
● 위치: 전남 순천시 부근
● 대지 250평, 건평 25평
완전목조, 대웅전, 신축건물,
화장실, 교통편리
● 가액: 2억5천만원(가격절충가능)
061)742-8977
017-875-6712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 평수: 30평, 3층건물중 3층
● 시설: 사존불외 일체, 후불, 지장,
신중산신 탱화, 방1칸, 주방,
화장실, 베란다, 에어컨 시설완비
● 유동인구 많음, 배 300여쳑 드나듬
● 가액: 보증금+시설비 3500만원. 월 30만원
● 역술하는분 환영
010-7181-7569

사찰(급)안내
● 사천시 와룡산 자락 빼어난 절경속에 위치한 1백년 역사의사찰로서 급박한 사정에 의해 매매코자 하오니 大관광 기도도량의 사찰을 본의로 운영하실 원매자가 있으면 상담을 요합니다
● 총평수: 약 4만평 임야, 잡종지, 전, 답, 건물 4동(대웅전, 요사채 등)
● 특징: 산자 수려한 괴암 절경의 대명지
● 가액: 15억(양도즉시 등기이전 가능함)
055)854-5205/017-856-3617
010-6329-336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악간명
완전초보자도 혀도 혜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전국 제일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학력,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 배출기관
● 최첨단 시설
▶행자(예비스님 남 · 녀)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 – 45세미만,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우학스님 – 직접 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대구도심사찰 최초! 남골당 운영
문의전화 : 053)474-8228 011-9852-0075

탈종공고

● 사찰명 : 자 원 사
● 주 지 : 박 치 훈 (일초)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 사찰명 : 정 암 사
● 주 지 : 우 요 찬 (기호)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 1동 281-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기에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9. 5
월 · 화 반, 수 · 목 반, 금 · 토 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9월 5일 개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산 : 부산 동구 좌천동 567-2 다전리치텔 1004호 (좌천역 1번 출구)
문의 :018-312-7110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탱 화
● 개 금
● 원 형 조 각
● 불 사 상 담
● 천불삼천불
● 불 교 용 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동 술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 6천
- ※ 일반 부동산 및 사찰 교환가

- 위치: 서울 강북구
- 임법당: 40평
- 부지: 61평
- 가액: 3억5천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25평
- 요사: 실 90평
- 부지: 672평
- 가액: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분당목조사찰-9억5천
②강남포교당100평-월176만원
③판교근처사찰140평-11억
④판교근처나대지100평-6억5천
⑤여주사찰2000평-3억
⑥광명사찰350평-12억
◆ 1억~10억사찰많음.투자상담

※ 직원,공양주,기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 천년고찰 아래 마을
- 건물 : 주택 30평, 불상 모심 대지 500여평, 1600여평
- 가액 : 2억

043)832-6144
043)832-2090

포교당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삼존불,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31)826-0376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2, 5호선 1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평수 30평 유동인구 많은 시장입구위치 모든시설완비, 법당최상급 삼존불모셔있음,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시설금 합 5천2백만원 월 70만원

010-8527-8747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40평
- 법당 : 12평
- 요사 : 12평
- 가액 : 2억 3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2층건물의 2층
- 법당 15평, 전체 32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6백만원

016-640-8133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9백만원(집기일체)

043)211-7893
019-656-2766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랜드지역
- 토지면적 2450평 건축허가면적 1000평 총공사비 소요 5억
- 가액: 3억

061)783-0408
018-312-0108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60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전망좋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7억3천만원

011-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도 바닷가
- 부지 : 1,000평
- 법당 : 토목공사완료
- 요사 : 40평
- 가액 : 6억 5천
- ※ 산세 및 바다전망 좋음

- 위치 : 경남 김해시내
- 대지 : 15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억5천
- ※ 산세좋은 토굴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자리중에 자리! 국내 최고의 자리!

영험의 자리!(백문이 불여일견)

- 신당동 중앙시장 건너편
- 평수 : 20평 (철학관 운영가능)
- 보증금 1,000만원 / 월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2236-2284
019-634-3069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부근
- 대지 68평, 건평 35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269-8688
052)223-861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내
- 대지: 192평
- 법당: 30평
- 요사채: 30평
- 산신각 각 10평(2층)
- 가액: 2억4천만원

011-879-7551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서면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평수: 60평(5층건물의5층) 시설일체 완비
- 가액: 전세1천만원에 월60만원 시설비 받지 않습니다.

010-2245-35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 근교
- 대지: 700평
- 법당: 30평
- 요사: 20평
- 가액: 2억3천
- 납골당 허가 유 국도 접한 시골암자

- 위치: 경주 ↔ 포항
- 대지: 650평
- 법당: 20평
- 요사: 55평
- 가액: 3억7천
- 포항20분, 경주30분 거리 편안한 신라고찰터 암자

- 위치: 밀양댐 부근
- 대지: 1,000평
- 법당: 30평
- 요사: 25평
- 가액: 5억
- 산세 계곡좋은 수행도량 여법한 단청법당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 평수: 110평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시설비 별도)

※ 능력있는 분에게 좋은 조건으로 양도

011-436-009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8천5백만원

016-652-7547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 평수(대지): 466평
- 법당 26평(2층), 요사 26평, 창고 30평
- 가액: 1억6천만원

※ 물이좋아 별장용도가능

016-467-582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매화산 입구
- 대지: 300평, 건물, 법당, 요사채 2동(황토1동)
- 특징: 명산 등산로접(국립공원)
- 가액: 월10만원 시설비품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55)931-7280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최고 좋음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7324-5115

토굴 및 암자안내

- 위치: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견불마을
- 대지 300평, 건물 25평 방 3개, 마루, 욕실, 별채(방1,창고1)
- 참고사항: 지리산 주능선이 보이며 석관수 있음
- 가액: 2억 2천만원

- 대지 100평 건평 20평
- 방 2개, 부엌, 욕실
- 가액: 6천만원

011-9454-8785 011-583-2097
055)963-7233

암자 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산 6-1번지

시내에서 도보 5~10분거리

- 문화재 석조보살 입상
-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33)747-4330

사찰안내

- 위치: 마산시내에서 10분거리
- 법당, 요사채 2, 산신각
- 대지 300평 주차장 700평
- 가액: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9527-3461

암자 터 안내

- 위치: 경주시 산내면 건천I.C에서 10분거리
- 평수 : 1,160평
- 건축허가면적- 주택 25.7평, 창고 14평
- 가액 : 평당 7만원

※ 조용하고 물이 좋음

055)337-7774

사찰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길2동
- 평수: 40평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30만원 또는 보증금 4천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2)488-3141
018-237-0648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서울에서 1시간30분)
- 화장터 장례예식장 300m사이
- 법당납골당 최고 명당자리 (민원없음) (건축설계, 토목공사 완료)

- 위치: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30분)
- 대지: 290평 건평: 110평 새통나무 기와집 2동 대웅전 요사채 방8개
- 경기도 광주사찰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심

011-9109-3660/031)767-0837
011-9004-3613

암자안내

- 위치: 구미시 옆 칠곡군 약목면 소재
- 임법당, 연꽃연못 정원, 밭, 경치좋음
- 가액: 보증금 200만원 년 350만원
- 양도도 가능

017-813-9126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35평 불상 5불 각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보증금 2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모든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051)524-8108
011-844-9893

절터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용산
- 평수: 약 1200평 4차선 포장도로
- 가액:평당 3만5천원 정도

010-5843-9001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부정류장 근처
- 2층건물에 2층 약 75평
- 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300만원 절충가능

- 주차장완비, 포교적지

011-308-4225

신 축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목조) 요사채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의 촌락의 끝이면서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비구니스님께 적합
- 가액: 1억1천만원

011-9405-8186

영과 혼을 진광대도누진통진법으로 내안에 자성찾는 경신도통대법회

지구촌 지각이 변동되어 물과 불과 이름모를 각종 질병과 괴질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

마음과 견성도통의 근본은 태식배꼽에 있고, 대자연과 산천초목 만물에 일체의 생명과 운명과 건강은 태양에 있으며, 진공묘유, 허공청정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배안에 검게 붙어있는 저승사자와 삼시구충을 제도하며 생노병사 해탈하는 경신 도통 대 법회



선천법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했고 후천미륵 달마도법으로시작되는 2005년 (양)8월 3일 자시와 4일 오시에 경신일이 들어 경신입문 한 공덕으로 평상시 수년을 수행한 공덕보다 큰 힘을 얻는 이법회에 그대를 초대하오며 동참한 이들에게 특별 돈부 달마를 드리오니 동참하시어 도통하시고 큰 부자 되소서.

진광 경신도통비법에 일체의 도법이 다 들어있다.

만병은 태식 건강 비법에 천하의 건강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태식법을 아십니까 ? 도통의 최고의 비밀인것이다
- 태식법이란? 마음 정신 육신을 수련하여 도통하는법인 것이다.
- 치료해도 안되는 모든병, 잡신에 빙의 된 모든 병을 제도 해탈하여 중생을 구하는 경신 수행법

지각이 변동되는 지구촌 개벽시대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중생을 구할 자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 주인공인 것이다.

그 주인공은 경신입문하여 진광의 빛으로 인가 받은 당신이 주인공이며 인간은 누구나 삼시구충이 있어 육신에 병을 만드는 것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빙의된 삼시구충을 제도하오며 이 법으로써 도를 통하여 중생도 구하고 각종 종교의 종주도 되는 것이며 말법시대에는 너나 없이 도인 아님이 없으며, 말과 글과 입으로 통한 자와 알지 못하고 스승인냥 도인인척 하는 자는 하늘의 도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경신도통으로 육신에 병, 정신에 병, 잡신에 병, 마음에 병을 제도하여 영가해탈법을 득도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창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군자로 승화하오니 새로운 천문도법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속에 들어있는 신선부처와 삼라만상 일체 법은 천안통경과 루진통경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경신일은 60일,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경신수행으로 수마를 이기면 모든 종교를 초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천안통과 루진통경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여 허성세월만하는 것이다. 이 수행법은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 줄 수있고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 기도가 경신 수행인 것이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고 자신의 운명과 수명을 개척하는 최대의 운명을 바꾸는 수행법이 경신인문인 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도술, 의술, 참술, 점술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참선, 요가, 단전, 명상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고 을유년 8월 3~4일이 경신이 들어 이름모를 괴질과 각종 질병으로 잡신의 병에 빙의 되어 고생하시는 해이므로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배속에 검은똥은 악령의 저승사자인 고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저능하로 빙의 되어 각종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건강찾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도통하시어 큰 부자 되소서.

특별 태식법과 건강, 운명 상담 ☎ 02)821-7767

- 입제 : 양력 2005년 8월 3일 수요일 (해시)
- 해제 : 양력 2005년 8월 4일 목요일 (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5만원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 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미륵은 진정 우리 곁에 있는가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해조음 海潮音]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 불교대구회관 2F Tel 053-624-5586 Fax 053-624-5587 E-mail bubryun@hanmail.net

세세생생 보현행자의 길을 가리라 (하)

권혁위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도리도 아니었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뜬지 1년도 못되어 나는 재혼을 결심했다. 직장 동료이면서 내가 힘들어 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 내게 자비심을 냈다.

예식은 원찰인 불광사 대웅전에서 치렀다. 주례는 광덕 큰스님께서 서 주시기로 했으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셔서 대신 한탑 스님께서 맡아 주셨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 셋 딸린 홀아비에게 마음을 낸 지금의 아내는 나와 아이들에겐 또 다른 관세음보살이다. 아울러 못난 나를 한번 만나보시고 너그럽게 허락해주신 장인, 장모님께는 항상 죄스럽고 감사드리는 마음뿐이다.

결혼 후 지금의 아내는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웠고 나빴던 나의 건강도 좋아졌다. 그래서 부모님과 주변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 흔히들 불법 인연 만나기 어렵고 훌륭한 스승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들 하나, 나는 내 인생의 대불행을 반연하여 대행복을 만난 복 받은 자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두 가지를 모두 구족했으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광덕 큰스님을 찾아간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보살의 마음이 정말 갸륵하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공덕 중에서 남의 자식을 길러주는 공덕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하셨다. 어느 날 법회를 마치고 몇몇 도반들과 함께 큰스님을 찾아뵌 자리에서 내가 여쭈었다. 마하반야바라밀의 참뜻을 좀더 쉽게 말씀해주십사 하고.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하셨다. 정말 그러했다.

나는 더욱더 불교공부에 박차를 가했다. 매주 일요법회시 법좌에서 '반야바라밀'의 사자후를 터트리시는 광덕 큰스님의 가르침은 백척간두에서 허덕이던 내게는 감로수요, 묘약이었다. 인생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먼저 간 아내의 죽음으로 다시 이어진 불교와의 인연을 두고 고맙다고 해야할지, 새삼 묘한 인연법을 느끼게 된다.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찰에서의 활동도 자연히 많아지게 됐다. 나는 불광사 · 불광법회에 나가면서 거사들로만 구성된 대원법등에 입회했다. 아내의 죽음으로 영혼에 비상이 걸린 나는 빠짐없는 법회참석과 조석일과 및 기도수행은 물론, 누군가 상을 당하면 법우들과 곧바로 상가(喪家)로 달려갔다. 영가축원기도 및 상례작법을 전담해서 봉사하는 연화부 활동에 매진했다. 그 영향인지 얼마 가지 않아서 선배 형님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법등조직을 책임지는 간부로 위촉됐다. 그 후 오랫동안 법등 여러 도반들과 신행생활은 물론 사중의 대소사를 함께 했다.

1989년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이었다. 사중에서 법회의 사회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몇 번의 고사 끝에 일을 맡게 됐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그 인연으로 오늘날까지 각종 법회나 중요 행사 때마다 대중 앞에 서고 있다.

사찰에서의 활동을 언급함에 있어 광덕 큰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 불광사 · 불광법회의 창건주이신 광덕 큰스님께서는 한국불교 도심포교의 선구자로서 여러 방식의 포교활동을 눈부시게 전개하신 분이다.

1992년 초여름, 세계 불교음악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광명의 합창이 온 누리를 밝히는 일대 인연사이자 대작불사가 벌어진 날의 감격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600명이 넘는 선남자 선여인들의 코러스가 무대에 섰고 그 앞에 솔리스트 3인(거사 · 보살 · 스님)과 소리중창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연출해 낸 것이다. 화엄경의 정요인 '보현행원품'을 광덕 큰스님께서 작시하시고, 한국음악의 거장 박범훈(현 중앙대 총장)님이 작곡 · 지휘한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이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던 그 날의 그 감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 그날 이후 여러모로 부족한 내가 교계의 공연요청에 남자 솔리스트로 지명되어 여러 공연 무대에 서게 되는 '영광의 인연'을 맺게 됐다.

법명 이야기도 내 신행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다. 86년 9월경 내가 재직하던 직장의 여직원 모임에서 자선 일일찻집을 운영했다. 나는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과 회사에서 결재해준 의료약품 및 보시금을 가지고 양로원에 위문방문을 가게 됐다.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청암양로원이었다. 100여 분의 노인들에게 회사를 대신해서 위문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병들어 계신 노인들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돌아온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한 주일을 보냈고, 그 다음주에 우리 거사법등에서 야외 순례법회를 북한산 흥국사로 가게 됐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동안 며칠 전 뵙고 온 청암양로원 노인들의 건강수복을 발원하며 일념으로 기도했다. 그러고 난 뒤 다음달 초에 있은 불광계단 수계식에 동참해 의식을 치른 뒤 계첩장을 받아 들고 정말 깜짝 놀랐다. 계첩장에는 분명 법명이 '청암'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묘한 인연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오늘도 스님께서 일러주신 가르침, "우리 불자들 모두가 성불을 외칩니다만,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성불했던 완전자입니다. 부처를 다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다시 이룰 따름이다"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아로새긴다.

무명으로 덮였던 나를 확연히 바꾸어 준 것은 반야(지혜)의 개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육바라밀, 팔정도의 구현도 반야사상을 바탕경계로 하되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대상을 접할 때 내 것이냐 네 것이냐의 소유적 경쟁개념에서, 너와 내가 공존한다는 존재적 동일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것, 즉 이것과 저것 그리고 너와 내가 직물의 씨실과 날실처럼 짜여진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연기법을 깨닫게 됐다. 자기 안에 이미 부처가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것 또한 반야바라밀의 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생의 생명이 곧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생명임을 깨닫게 해 주신, 높게는 제불보살님 가깝게는 광덕 큰스님의 가르침에 돈수백배 합장예경 드리옵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끝)

안정된 가정생활 속 불교공부에 매진
봉사했던 양로원 이름이 내 법명 돼
거사모임 가입후 상례작법 봉사에 전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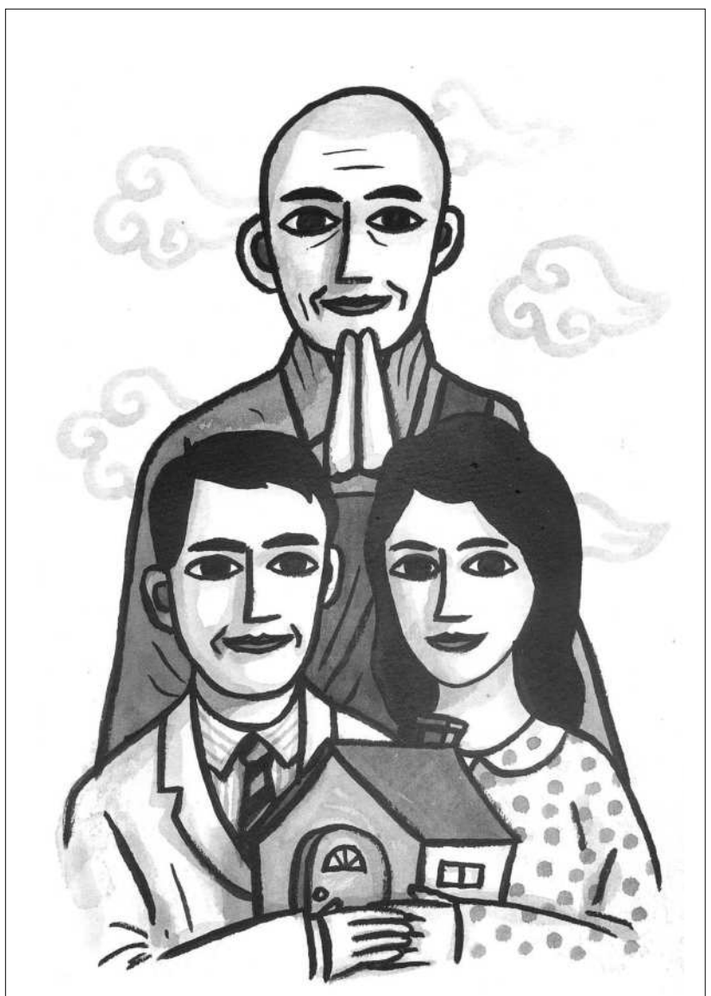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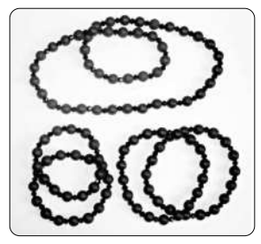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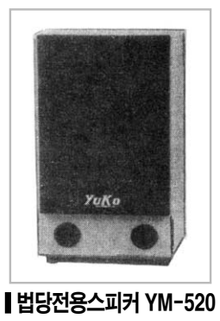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스트레스를 웰빙으로 바꾸는 삶의 지혜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
글 김정호 · 그림 홍승우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1천원

'스트레스와 웰빙'. 얼핏들으면 서로 반대의 개념이다.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 요,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싶은 것은 '웰빙' 이다. 다시말해 스트레스는 욕구좌절과 욕구위협이고, 웰빙은 욕구충족과 욕구기대의 의미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웰빙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바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자인 지은이 김정호씨는 딱딱하고 어려운 강의실 안의 심리학이 아닌 일상 생활속 사례들 가운데서 스트레스와 웰빙을 구성하는 몇가지 법칙을 분석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과 실천을 통해 스트레스는 충분히 웰빙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스트레스에서 웰빙으로의 전환, 그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스트레스도 웰빙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그래서 웰빙과 스트레스 만들어 내는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스트레스는 줄여 나가고, 웰빙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와 웰빙을 만들어 내는 기본 법칙들을 '욕구 다스리기' '생각다스리기' '행동다스리기' 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욕구' '생각' '행동' 은 서로 관련이 깊다는 지은이의 생각 때문이다.

우선 지은이는 마음다스리기 욕구를 의도적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추구해보라고 권한다. 작은 분노 · 작은 짜증 · 작은 슬픔 · 작은 불안 등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점차 그 통제의 크기를 늘려 나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다스리기가 훨씬 쉬워지며, 더 나아가 재밌고 즐거워진다는 것이다.

할인점 계산대의 줄이 길때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이때 마음다스리기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아, 짜증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할인점 계산대의 긴 줄이 단지 짜증만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이 역설적이게도 마음 다스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욕구충족을 예상하는, 즉 욕구기대의 웰빙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짜증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일상속에서 웰빙 행동을 만들어 내는 실천적 행동으로 '명상' 을 추천한다. 명상은 노트북 컴퓨터의 휴먼모드와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명상은 사고를 중지시키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설명한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을 훈련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마음' 도 기를 수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것이다.

김정호씨는 또 이 책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야 말로 오히려 수행하기 정말 좋은 시대라고 얘기한다. 지은이는 <보왕삼매론>의 '수행하는데 마(魔)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하지 못한다' 는 구절을 인용하며 '스트레스는 곧 나의 스승' 이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말한다.

역설적이게도 나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육에 자극을 주는 무거운 덤벨이나 아령이 없다면 어떻게 근육을 고르게 단련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중에 하나로 자기자신, 주변사람, 혹은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며 이것이 곧 웰빙의 변화로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내가 누군가를 나의 뜻대로 변화시키려 할때 내 자신은 오히려 상대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으며, 그래서 더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지은이는 설명한다.



일상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음다스리기 욕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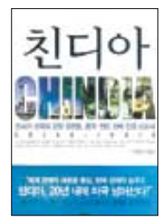
그 예로 지은이는 영화 '달마야 놀자' 의 노스님 말씀을 예로 들었다. 조폭 두목이 노스님에게 "왜 우리들을 감싸주시기만 하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가 없으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노스님은 "밑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빠뜨렸어."라고 답했다. 노스님의 자세는 사람에 대한 '수용하기' 자세이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비록 상대가 밑빠진 독이라 하더라도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빠뜨려 버리는 자세, 즉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자세를 갖게되면, 밑빠진 독에도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은이는 웰빙에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칭찬하기' '감사하기' '미소짓기' '가볍게 등두려주기' 등을 소개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서로 격려차원으로 등을 두드려 주는 작은 행동은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해주는 웰빙 행동 중의 하나라고 추천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마음 다스리기 욕구를 의도적으로 생활속에서 추구하라. 작은 분노 · 짜증 · 슬픔 · 불안 등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점차 범위를 늘려 나가라. 스트레스를 다스리기가 훨씬 쉬워지며, 더 나아가 재밌고 즐거워진다.

전문가 서평



친디아-중국 · 인도 경제 긴급보고서
마즈타니 오사무 지음 | 김현희 옮김
에이지 21펴냄 | 9천원

이 책은 중국과 인도 경제 및 산업에 대한 현황을 비교하여 짚어보고, 이 두 국가를 친디아라는 하나의 강력한 경제 연합체로 상정해 봄으로써, 향후 세계 경제의 흐름과 전망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21세기 경제 대전에서 한국 호(號)의 운항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귀한 밑그림이 될 것이며, 기업인에게는 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경영 전략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부흥과 그에 대한 세계의 반응이 21세기를 정의할 것(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이다. 이 점은 2003년 골드만삭스의 <브릭스 보고서>의 전망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브릭스 중 두 나라인 러시아와 브라질 역시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그 앞에는 여러 불확실 요인이 가로놓여 있다. 그에 반해, 중국과 인도는 지난 10~20년간 8~10%의 고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어느덧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은이가 브릭스보다 친디아에 주목하는 이유는, 친디아가 한국에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도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과 인도가 연

세계 정상 노리는 中-印 연합

합하리라곤 어느 나라도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2005년 4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구축했다. 이는 동맹 관계 이전 단계이다.

그렇다면 미국 패권의 20세기를 지나,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2039년 무렵에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하드웨어)과 인도(소프트웨어)의 경제가 연합해 '친디아 경제 체제' 가 성립한다면, 그 시기는 무척 앞당겨질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제조업 기지이다. 인도는 세계 IT 산업의 허브이다. 이 두 국가의 경제가 상호 보완한다면, 미국을 넘어서는 시기는 바로 20년 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은이의 탐색은 한국의 운명과 과제에 맞춰져 있다. 중국(13억)과 인도(10억)는 거대 소비 시장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이제 이 친디아라는 거대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아시아 3대 경제국은 일본, 중국, 한국이다. 21세기에는 중국, 인도, 일본이 되리란 전망이다. 한국은 인도의 부상으로 아시아 빅 3에서 밀려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도 한국이 아시아 빅 3로 생존할 방법은 무엇인가?

중국과 인도가 부상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이제 답은 친디아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일본을 넘어서는 길이다. 저자는 중국과 인도에 각각 진출하여 현지화에 성공한 한국의 기업들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들 각각의 기업들은 친디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제 일본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 친디아 시장에서의 성패는 곧 세계 시장에서의 그것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이 책은 리더십(국가 전망), 도약(경제 발전 과정), 경쟁력 등 중국과 인도의 경제 및 산업을 특징짓는 요소들을 비교 교차하여 분석해 주고 있으며, 한편, 21세기 세계 경제의 흐름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심층 전망해 준다. 나아가 이 거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본다. ■이규광(대신증권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심봤다! 제2의 산삼

인생은 이별연습 아닌가



도심 수행열풍을 이끌고 있는 서울 안국선원의 홍법운영팀장 김성부(64 · 사진)씨. 불교계에선 '은암 거사'로 더 잘 알려진 그가 한 권의 시집을 펴냈다. 시집의 제목은 <이별연습 그리고 기다림>.

김씨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66년 해병대 청룡부대 소대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다. 매일같이 부하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겠다는 생각에 시를 써서 신문에 발표하고 방송에서 직접 낭송하기도 했다. 제대 후 금융계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도 김씨는 시작(詩作)활동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하지만 시를 지면에 발표한다거나 등단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의 시작활동이 습작노트를 벗어나 활자화된 것은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되면서부터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불자 부인의 영향으로 3년 전부터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안국선원 수불 스님에게서 은암(隱庵)이란 법명을 받았고 올 초에는 <불교문예>로 정식 등단도 했다.

"불교 공부를 하다보니 자연히 불교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문학인은 많은데 불교문학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시를 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시집을 펴내게 됐습니다."

시집 제목과 같은 제목의 시 '이별연습 그리고 기다림'은 성지순례를 떠나는 아내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쓴 시다.

"언젠가 이별연습에 익숙해지면/ 그 때는 정말 혼자 외로움에 지쳐/ 기다리는 마음이 바다 같으면 어찌할까/ 공항 쪽 산 너머 가을바람에/ 하얀 손길을 띄우고 돌아선다" (이별연습 그리고 기다림 中)

"인생이란 어차피 이별연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는데, 그 이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겠죠. 이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욕심과 갈등, 분노는 비우고 그 자리에 용서와 감사, 존중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시를 배운 적 없는 김씨의 시에는 어려운 단어나 낯선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 시를 보고 '저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듯이 누구든 시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이번 시집이 각자의 시심(詩心)을 깨우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습니다."



한편 김씨는 그동안의 습작시들을 다듬어 내년 5월쯤 두 번째 시집으로 묶는 한편 매주 안국선원 홈페이지(www.ahnkookzen.org)에 쓰고 있는 안국칼럼도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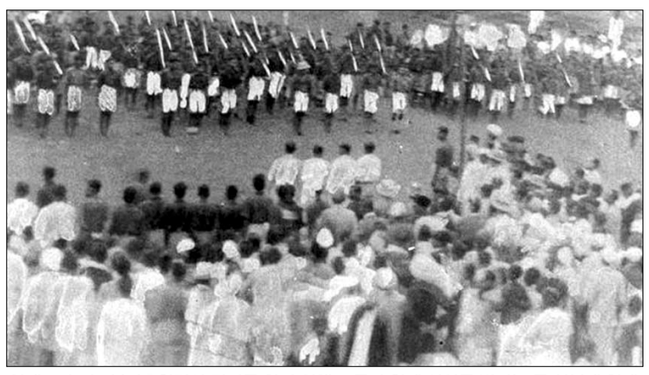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이별연습 그리고 기다림 김성부 시집 | 들꽃 | 7천원

인도 국민의 영웅 암베드카르



암베드카르
디완 찬도 아하르 지음
이명권 옮김
에피스테메|2만원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그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는 등 신분제 철폐에 앞장섰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천민 출신으로 힌두교 버리고 불교에 의지해
'신분제 철폐'에 일생 바친 불꽃같은 삶 조명

인도 현대사의 지도자 중 인도 국민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은 누구일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간디'를 첫 손가락에 꼽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도 국민들은 '제이 브힘(Jay Bhim, 암베드카르 만세!)'을 외친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인물이지만, 암베드카르(1891~1956)는 인도 불가촉천민의 해방자이자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로 칭송받는 '영웅'이다.

최근 <암베드카르 평전>(필맥)이 출간된데 이어 그의 일대기와 업적, 어록, 연보 등을 담은 또 다른 평전 <암베드카르>가 선보이는 등 암베드카르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의 일생을 출생, 브라만주의와의 투쟁, 원탁회의, 종교의 탐색과 민중을 위한 불법이라는 큰 획으로 나눈 이 책에서는 그의 사상과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먼저 그의 일대기를 간략히 살펴보자.

암베드카르는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났다. 친구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고, 교사들은 부정 타는 것이 두려워 그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멸시에 시달리던 암베드카르는 노예제도인 카스트를 타파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매일 새벽 두시에 일어나 공부에 매진했다. 1907년 대학에 입학한 그는 이후 주위의 도움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고국에 돌아와 교수와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동료 교수들은 그가 교수 휴게실에 놓인 주전자의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신분 차별은 계속됐다.

교수직을 사임하고 다시 영국으로 건너간 그는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1927년 '초다르 저수지' 사건으로 불가촉천민 해방운동의 신호탄을 쏘았다. 이는 상위 카스트 주민들이 불가촉천민의 초다르 저수지 사용을 반대한 것에 저항한 사건으로, 암베드카르를 비롯한 만여 명의 군중은 저수지까지 행진하고 '금지된 저수지'의 물을 떠 마심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다.

이후 그는 법무장관과 노동장관을 역임하며 불가촉천민을 위한 정당을 창당했고, 그들의 의회진출을 법제화하는 등 신분제 철폐를 위해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힌두교 아래에서 신분제를 타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935년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지만, 힌두교인으로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선언한다. 그리고 그가 대안으로 찾은 가르침은 바로 불교였다.

"프라즈나(지혜)와 카루나(사랑) 그리고 사마타(평등)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저는 불교를 사랑합니다. 이 원리들은 선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는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와 저술을 이어갔으며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50여 만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불교로 개종함으로써, 사그라져가던 인도 불교에 불을 지폈다.

책에서는 암베드카르의 일대기를 짚어가는 한편 인도의 성자로 여겨지는 간디와의 사상 대립을 조명하는데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다. 신분제의 완전철폐를 주장했던 암베드카르와 달리 간디는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 여겼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불가촉천민의 의회진출과 차별근절 등의 문제에 있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암베드카르의 삶에서 오늘날 지도자의 모습을 반추해보게 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세계 성지여행 108선>**(브래드 올슨 지음, 최검열 · 전준호 옮김, 밀알, 1만2천원)=티베트 남서부 마나사로와르호(湖) 북쪽에 위치한 카일라스산. 티베트 불자들은 '세계의 배꼽'이라 불리는 이곳을 108번 순례하면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성지(聖地)의 힘이다. 여행전문가 브래드 올슨은 세계의 성지 108곳을 직접 그린 지도와 삽화를 이용해 소개한다. 인도의 갠지스강과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 일본의 고야산 등 불교 성지들에 관한 내용도 풍부하다.



■ **<아름다운 가치사전>**(채인선 글/ 김은정 그림, 한울림어린이, 1만2천원)=믿음 보람 사랑 약속 인내 존중 관용…. 어느 사이엔가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먼 '박제된' 단어가 되어버린 말들이다. 이 단어를 아이들에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겸손이란, 나도 알고 있지만 친구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것.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을 듣게 될지 모르니까." <아름다운 가치사전>에 등장하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쉽게 책을 덮지 말자. 단어가 의미하는 새로운 뜻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 **<꿈꾸는 간디학교 아이들>**(양희규 지음, 가야넷, 9천5백원)="교육이란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국내 최초의 비인가 상설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의 교육철학이다. 대안학교 개척자인 간디학교 양희규 교장의 자전적 에세이에는 간디학교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과 교육철학,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다.



■ **<내 체질에 약이 되는 음식 222가지>**(김달래 지음, 중앙생활사, 1만3천9백원)=감자, 두부, 김치, 달걀 등 거의 매일이다시피 먹는 음식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체질과 건강에 대해 연구해 온 김달래 교수(상지대 한의학과, 사상체질의학회장)는 음식이 자신의 체질에 얼마나 맞는지 살펴볼 것을 권한다. 일례로 건강식으로 알려진 두부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거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부처님은 왜 새벽 2시에 일어났을까

사찰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면 제일 당혹스러운 것이 취침, 기상 시간일 것이다. 도시인들은 초저녁인 9시에 잠들기도 힘들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은 더욱 힘들다. 왜 스님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생활을 할까? 해답은 부처님이 생전에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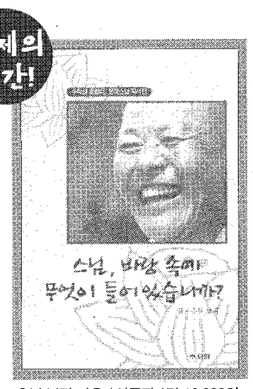
부처님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두시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했고, 3시부터 한 시간 가량 다시 잠을 잤다.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중생을 위한 설법으로 보냈다.



<불교풍속고금기>는 이 같은 불교의 풍속들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책이다. 지은이는 삭발과 양치 예불 수계 공양 바느질 울력 등 50가지 주제를 수행과 일상생활, 의식주, 대중생활, 세시풍속으로 나눠 설명한다. 각 풍속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짚어

불교풍속고금기 박부영 지음 | 은행나무 |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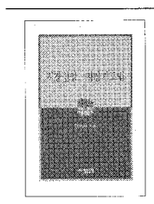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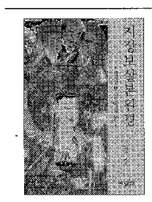
수락산 호랑이, 보각스님 자서전
스님, 배랑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화제의 신간!

이 책에는 반세기를 승려로 살아오면서 경험해야 했던 보람과 난관, 소신과 좌절, 그리고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행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한 노비구니의 삶의 편린들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문장이나 특별한 기교는 없어도, 잔잔하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적은 것이 어찌 보면 자신의 수행담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오늘의 세태를 후일에 증언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자신이 신세진 모든 이에게 허리를 깊숙이 굽혀 감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월운스님 추천사 中
휴봉 보각 지음 / 신국판 / 값 10,000원
정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수선한 시절에 출가해 강원의 학인으로 선방의 납자로 지내던 시절 이야기들,
은사 상인스님과 효봉 · 동산 · 경봉 · 법희 · 운허 · 성철스님 등 당대를 호령했던 선지식들과의 인연담,
폐허가 된 수락산 석림사를 30년에 걸쳐 중창한 눈물겨운 스토리,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과 노인들 20여 명을 보살피며 자비를 실천하는 이야기며,
여성의 입장에서 불교계의 오랜 관습인 남녀차별을 질타하는 일침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법보신문
◆ 8월 5일(음력 7월 1일) 오전 10시에 수락산 석림사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습니다. (전화 031-873-6516) ◆

백중기도 · 천도의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영가천도 — 우룡큰스님 지음 / 4×6판 / 값 4,0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였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 · 독경 · 사경의 천도, 49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궁금증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4,000원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참문) —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 그리고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성큰스님 법문집"
마음발을 가꾸는 불자

간절히 남을 따라 찾지 말라
점점 나하고 멀어진다
지금 내가 스스로 가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구나
· 천도재 및 백중 기도법을 비롯하여
· 기도성취의 기본원리와 참회법
· 부처님께서 오신 뜻, 불자의 길
· 내가 나를 다듬는 방법
· 주인 노릇하며 사는 법
·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
· 생활 속의 불교수행법
· 업장을 녹이는 공부 등에 대해
큰스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보성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클릭하면 '명작'들이 보인다

부다피아 갤러리 확대… 펜화·단청 등 볼거리 풍성

산사의 아름다움을 펜으로 그려내는 펜화가 김영택 화백, 동자승의 맑은 미소를 담아낸 동승 그림으로 유명한 원성 스님, 단청계 거장 故 한석성 선생의 계보를 잇고 있는 김윤오씨, 서도의 선(線)에 선(禪)의 정신을 담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예가 윤상민씨, 불교문화유산을 30여년간 카메라 렌즈에 담아온 안장헌 작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이 시대 대표적인 불교계 화가, 단청장, 사진작가의 작품 수백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작품을 '상설전시'로 만날 수 있는 곳은 불교계 최대포털 부다피아(www.buddhapia.com) 갤러리.

현대불교 불교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부다피아가 개설 10주년을 맞아 8월 3일 갤러리를 확대 오픈했다. 지난 1월 첫 오픈에 이어 7개월에 걸친 추가 작업을 통해 콘텐츠를 대폭 보강, 20여 개인과 단체의 작품 500여 점을 보유함으로써 부다피아 갤러리는 명실상부한 인터넷 불교문화의 요람으로 자리 잡게 됐다.

유명작가 작품 한자리에

부다피아 갤러리는 초대전 형식의 '초대갤러리', 작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아트갤러리'와 일반인 참여가 가능한 '테마갤러리' '디카갤러리' '포토에세이'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초대갤러리에는 △김영택의 '펜화기행' △문범강 교수의 '무질서에서 생명찾기' △김규현 거사의 '역(逆) 왕오천축국전별곡' △한국불교미술관의 '안양암에 담긴 중생의 염원과 꿈' △사찰문화연구원의 '팔상성도 전시회'가 마련돼 있다.

특히 김규현 거사의 갤러리에는 20여 년간 혜초 스님을 연구하고, 7차례에 걸쳐 인도를 여행하면서 찾아낸 혜초 스님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김규현 거사가 직접 찍은 사진뿐 아니라 그 동안 붓다뉴스에 연재했던 글이 함께 수록돼 혜초를 따라가며 느낀 감동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또 펜화라는 접하기 어려운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김영택 화백의 갤러리에서는 한국불교건축만의 아름다움을 그만의 개성 있는 필치로 만날 수 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불교건축의 섬세하고도 새로운 면모를 음미할 수 있다.

갑사 송광사 쌍계사 용문사 통도사 해인사 등의 팔상성도를 모아놓은 사찰문화연구원의 갤러리도 흥미롭다. 사찰문화연구원 갤러리의 감상 포인트는 여러 사찰의 팔상성도를 비교하면서 보는 것.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묘사한 팔상성도는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 태자시절 고뇌를 겪기까지의 전반부 네 장면과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열반하는 후반부 네 장면으로 구성된다. 사찰의 팔상성도는 이러한 정형화된 틀을 제외하면,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각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서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예가 윤상민씨의 작품 '춘효(春曉).

이밖에 아트갤러리에 있는 △김윤오 화백의 '단청전' △천성철 화백의 '내 마음의 부처' 등의 불교미술 갤러리와 △안장헌 작가의 '사원건축' △라규채 작가의 '천년의 푸른 창' △현대불교신문 고영배 사진기자의 '경주 남산전' 등의 사진 갤러리 △서예가 윤상민씨의 '서예전'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열린 개인 갤러리

유명작가의 작품을 집에서 쉽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부다피아 갤러리가 갖는 또 하나의 매력은 누구나 자신의 개인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훌륭한 작품 수준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부다피아 갤러리는 작품 능력과 자기 갤러리 관리 의지를 갖고 있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어, 온라인상의 상설전시장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부다피아가 개발한 웹빌더를 이용하면, 갤러리 생성은 물론 업데이트까지 용이해 손쉽게 자신만의 갤러리를 꾸밀 수 있다.

이처럼 초보자부터 유명작가에 이르기까지 문호를 대폭 열어놓은 데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부다피아의 야심이 읽혀진다. 불교정보센터 실장 청월 스님은 "부다피아 갤러리의 목표는 불교문화의 확산 및 포교"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문화 작품들을 모아놓은 부다피아 갤러리가 비주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포교방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오픈 취지를 밝혔다. (02)2004-8279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펜화가 김영택씨의 '화엄사석등'.


사진작가 안장헌씨의 '원주 송광사 종루'.


문범강 화백의 'Deja vu Sutra'.


팔상성도 중 하나인 녹원전법도(鹿苑傳法圖).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다섯제자를 대상으로 설법하는 장면이다. 위에서부터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갑사의 녹원전법도.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0>

더위

금년 여름은 특히 덥다. 기상학자들은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가 평균 1.6도가 상승했다고 한다. 1.6도라면 미미한 것 같지만, 몸의 체온이 정상 체온에서 38도로 오를 때 느끼는 차이를 생각해 보면, 지구 전체의 온도가 그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변화임을 실감할 수 있다.

온도상승이 지구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지를 짐작하기는 힘들다. 어떤 학자는 수천 년간의 큰 시각에서 무시할 만한 변화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마치 말을 옆 부분 곡선을 보았을 때, 머리로부터 등에서 최소가 되었다가 궁둥이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양과 흡사한 것으로 본다. 설사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등의 최저점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지구의 온도 변화가 극지방의 얼음을 녹여, 얼음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의 온도를 내리는 역할을 감소시킴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시나리오를 걱정한다. 마치 말을 궁둥이 쪽에서 보면, 말등의 최소점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과 흡사하다. 약간의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나타낸다.

인공위성이 밤에 지구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서방 유럽, 미국 동·서부, 그리고 일본, 남한, 중국의 동해안은 참으로 불야성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무자비한 탐욕이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온도란 과학적으로 보면 에너지 흐름의 또 다른 표현이다. 잉크 물을 물에 풀면 잉크 입자가 멋대로 퍼져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멋대로'의 정도가 온도이다. 온도가 높다는 뜻은 잉크 알갱이의 멋대로 운동이 매우 커서 빨리 퍼져나간다는 뜻이다. 우리가 덥게 느끼는 것은 공기 분자의 멋대로 운동이 우리의 피부를 자극하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만약 덥게 느끼지 못한다면, 대응을 하지 못하므로, 우리 몸의 생체화학이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위를 느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생체 리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온도 높아지면 분자의 '멋대로' 운동 활발
인간의 무자비한 탐욕이 온난화 부추겨

중국의 선사어록인 벽암록에 더위에 대한 선문답이 나온다. "더위(혹은 추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 "더위(혹은 추위)가 너를 죽이는 곳으로!"라고 말하는 동산선사의 답은 매섭기만 하다.

더위라는 느낌을 오히려 무아를 구현하는 깨달음의 수단으로 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덥다는 느낌이 단지 알갱이간의 간섭 현상(공기 입자와 세포에 존재하는 이온 알갱이간)이라는 과학자들의 발견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느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불과 같은 탐욕에서 벗어나서, 지구의 온난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 해 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671-6079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1Box(60포 20만원) ● 2Box(120포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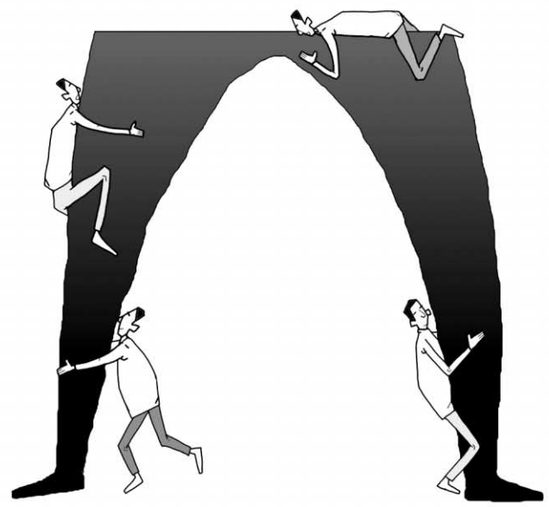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뭐든지 버리지 말고 근본에다 그냥 뭉쳐 놓아야

살생에 대해서

문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닭이나 돼지가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을 낸다고는 하지만 꼭 우리가 이렇듯 낮은 차원의 동식물의 목숨을 죽여서 남의 살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은 듯 즐겁게 내 몸을 위해서 그것들을 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답 강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만약에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은 아주 무지하게 살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부들이 아니더라도 수없이 잡아서 먹고 삽니다. 우리가 뭐는 안 먹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런 살생이 아니라 좀 차원 높은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과 같고 내 생명과 같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고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과 같고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억겁을 거쳐서 우리가 진화되고 창조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전부 살생이지만, 만약에 고기들을 어부들이 그렇게 잡지 않는다면 그 고기 모습으로서 한 백 년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잡아 줘야 그 모습을 벗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할 사람은 먹어야 하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쪽은 살생이 되고 다른 한 쪽은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돈을 한 주먹 준다 하더라도, 쌀을 사 준다 하더라도 그건 임시방편입니다. 한생각을 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무주상 보시를 해야만이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돼서 굴러오면서 업을 짓고 유전을 짓고, 끄달리고 얽히고설킨 그 업보를 다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한생각을 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뿌리를 엮애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예 자기 마음 가운데 창살이 없으니 그냥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도리를 알아야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살생을 아무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살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소를 한 마리를 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먹는 사이가 없이 먹어야 양면이 다 산다 이겁니다. 왜냐! 부모를 위하든지 자식을 위해서 어떤 걸 죽인다 하더라도 그 무명을 벗겨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도리를 알아서 그 무명을 벗겨 주고 인간으로서 화현을 하게끔 하고 무명을, 묶여 있던 거를 벗겨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벗겨 주면 그 살은 약이 되니까 양면이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고기로 보이는 사람은 그것을 못 먹고, 고기가 고기로 보이지 않고 내 살과 같이 보인다면 바로 그것은 무명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體)는 약이 되지만 그 영혼은 체가 없는 거니까 바로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 내 마음에다가 넣고 굴리면 모든 게 금방 '나'가 됩니다, 금방. 금방 한 찰나에 '나'가 됩니다. 닭이나 돼지나 개나 모든 생명이 말입니다. 어떤 생명을 취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야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나 그것을 취할 때의 내 마음은 그것을 항상 '나'와 둘 아니게 볼 수 있는 참된 마음이어야겠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문 선(禪)을 하면 몸의 병도 고친다고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데요, 병도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 오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경우는 작년부터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으로써 고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병뿐만 아니라 전체 살림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이 병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많습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는 얘깁니다. 이 원인은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방편으로 따져 본대도 11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1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 없는 1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11억이라는 게 어디서 왔나. 자기가 과거에 살던 인연들입니다. 악으로 했으면 악으로 지은 인연, 선으로 했으면 선으로 지은 인연들 형제의 인연들 뭐, 모든 인연들이 착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여기 여러분의 몸 하나가 된 겁니다.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이 속의 모든 의식들, 공장의 직원들을 지배하거든요. 전부! 마음이 그러면 두뇌로 올라가서 두뇌로 인해서 사대에 다 통신이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인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을 낫게 하는 데는 그저 무조건 자기 지배인, 즉 말하자면 주인공 그 자체를 믿으셔야 합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을 낼 수 있는 분별과 마음을 내면 육신이 움쭉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독불장군이 없이 돌아가는 거.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할 수 있는 이 세상, 이런 거를 더불어 같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한 찰나에 여러분의 그 주인이 마음 가운데서 항상 같이 해 준다 이겁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게 부딪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부딪칩니까? 그러니까 내 탓입니다. 잘못했든 잘했든 내 탓이다 이겁니다. 모든 게 나의 탓이니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병도 그렇습니다. 병이 나으려면 내 탓으로 돌리면서 주인공에다 '주인공밖에 내 병을 고칠 수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또 잘됐으면, 나았으면 '감사하다!' 하고 하는 것도 거기에 감사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딴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속에서 나오는 거 자기네들이 해결하라고 딱 맡기면 자기네들이 '아아, 이거 맡기는 놈이나 지금 하는 놈이나 이렇게 맡기는 놈이 바로 내 몸뚱이로구나.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잘 끌고 다니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게 부딪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부딪칩니까?

그러니까 내 탓입니다
잘못했든 잘했든 내탓이다 이겁니다!

부처님 서 말 서 되의 사리

문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하고 좌선을 통하여 열반을 성취하셔서 임종 시에 서 말 서 되의 사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그 6년 동안을 몸뚱이가 좌선을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좌선을 한 거지요. 6년 동안 가만히 요렇게 앉아만 있었다면 부딪침이 없어서, 새가 쪼고 그러는 것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았으니깐 공부를 했죠. 거기에 끄달리질 않고,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 송장이게요? 알면서도 송장 노릇을 한 거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살아 있을 때에 열반이지 죽은 게 열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발견해 가지고 보니까 모두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거든요, 이 속에서. '아하! 요놈들이 그랬구나!' 이럭하고선 거기에서 '어! 다 네놈들이 그런 거니까 내가 상관할 게 뭐 있나?" 그러곤 속지 않은 거죠. '거기서 나왔구나. 내가 어떡하나 볼 양으로 그렇게 자꾸 나오는구나.' 하고 온갖 유혹들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게 둘이 아니게 놓으니까 물리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질 않았어요. 마구니든 귀신이든 다. 그러니 죽은 것도 없고, 즉 말하자면 사리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 말 서 되라는 말도 그것도 아주 그냥 서 말 서 되라고 한 그 숫자 액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몸뚱이뿐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의, '삼천' 하면 삼이 들어가죠? 서 말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서 말을 한 말로 따진다면 '천' 이렇게 하는 거나 '모은 한마음'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천이거든요. '천지' 이렇게 해도 '천'은 이 우주 전체가 하나거든요. 하나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하나로 돌아가는 게 '지' 해놓으면 그냥 또 한데 합쳐져 버립니다. 아래 위로 합치는 것이 천지요, 또 돌아서 그냥 한데 합쳐서 둥글게 돌아가는 게 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천지가 전부 사리 아닌 게 없으니 부처님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으니 부처님 도량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도량 아닌 게 없으니 그 모두 부처 아닌 게 없느니라. 그 가운데에 마음을 한 찰나 이렇게, 백지장 하나 사이 이렇게 넘어서면, 저 언덕을 넘어서면 부처고 법신이고 화신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부와 하나가 되고, 부처가 되고, 또 이게 생각을 냈다 하면 그냥 법신으로 이렇게 하나로 화해 버립니다. 그와 같은 도리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있어서 뼈와 살을 빌려서 몸뚱이 하나를 부모한테 받았는데, 그 몸속에 있는 생명체 그 의식들은 전부 자기의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뭉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도 과거의 인연이 그렇게 하게 만들고, 악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선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모든 게 한 군데서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것입니다, 체가 없으니까. 마음에 입자가 돼 가지곤 분자로 화해 가지고 자꾸 나와서 나한테 귀인이 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악인이 돼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있고, 또 잘돼 나가는 거는 전자에 살다가 인연을 잘 지어서 선으로 된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런 인연은 또 귀인을 만들어서 끌어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게 하는 것도 이 공장마다 병이 나게 하는 수도 있고 한 간장 공장만 병이 나게 하는 수도 있고, 방광 공장만 병이 나게 하는 수도 있고, 대장 소장이니 식도니 심장이니 콩팥이니 이런 것도 전부 공장과 같다 이겁니다, 이 오장 육부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잘 내면 꿈을 잘못 꾸고도 '아, 이거는 잘될 꿈이다.'라는 거, 생각을 한생각 주인공한테 맡겨서 '아, 이거 잘되게 할 수 있다.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것이

자식 문제만은 되지 않는데…

문 미국 L.A.에 사는 재미교포입니다. 한국에서 우연히 불성이 깊으신 분에게서 한마음 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한마음 요전을 소중히 미국을 때 가져왔습니다. 한마음 요전을 처음 읽고 나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싶었던 불법 그 모든 것이 한마음 요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 번도 더 읽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 스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 생활에서 항상 주인공만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 중 바라고 원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해결되는 신비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식에 관한 일만은 아무리 간절히 주인공에게 맡겨 봐도 해결되지가 않습니

☞22면으로 계속

갖는 도리를 배우지 말고 주는 도리를 배워야

☞21면에서 계속

다. 왜 그런지 꼭 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이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딴 거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이익을 보자는 거고 여러분의 깨달음을 가져오라는 거고, 여러분의 몸을 보존하라는 거고, 가정을 보전하라는 거고, 자식들을 이끌어 가고 위로는 부모 묵은 빚을 갚고 내가 능력을 길러야 자식들한테도 능력의 그 빛이 거기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기르지 않고는 자식들도 뿌리가 깊게 박히고 건전하고 건실하게 뿌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혈통이, 핏줄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혈통과 그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 그 마음이 이 모든 혈통, 혈통과 피 전체가 전부 바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여러분의 인연에 따라서 뭉쳐진 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악이고 선이고 나쁜 거고 화내고 이런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전자의 과거에 살 때 인연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고 건전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전치 못하고 이리 왕 저리 왕 돈 한 푼이라도 생기면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서 방탕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고 제재해 나가려면 내 마음이 나를 바로 이끌어 갈 수 있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둘째는, 그렇게 다스려 가면서 여기다가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맡겨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업 선업을 다 지닌 인과로서 이렇게 뭉쳐진, 개수로 따질 수가 없이 많은 그 의식들이 여기에 지금 수효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습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과 의식, 그 많은 생명들이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내가 걷지 못한다 이럴 때 '야! 너희들, 너 한마음 주인공 심부름을 하는데, 아니 이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아주 진실하고 아주 근면하고 건실한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벌써 이 속에서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서 이 다리가 금방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뿐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 정법은 뭐냐. 실행입니다. 실천과 실행. 모두 실험을 해 보세요. 내 가정의 어떠한 거, 내 자식을 위한다든가 내 부모를 위한다든가 내 몸을 생각한다든가 뭐 어디 아프다든가 일이 안 된다든가 무슨 재판이 걸렸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언제 어느 때 앞에 닥칠지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거기에 맡겨 놓고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실천을 해 보는 데에 목적이 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이 없이 자기가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식구들한테도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해서 "요놈의 새끼, 너 혼 좀 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주인공에 맡기고 그저 '한마음 주인공! 그 모두 몰라서, 불리가 터지질 않아서 그런 거니까 한마음 주인공만이 그저 불리가 터져서 영리하게 제가 자기 앞가림을 하고 나가게끔 이렇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습니다. 이게 아들도 남편도 어머니도 자식도 친척도 다 한마음 아닙니까. 가설이 돼 있으니까요. 전부 한마음이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냥 거기다 놓으세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어디 딴 데서 나옵니까?

또 잘못한 거는 인의롭게 "얘! 너 나가서 뭐나 좀 먹었니?" 요렇게 부드럽게, 보금자리가 따뜻하게 이렇게 해 주란 말입니다.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은 흐뭇해지고 따뜻해지고, 처음에는 냉랭하다가도 따뜻해지고 사랑이 깃드니 이탈되지 않고 그냥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화목이 오고 화목이 오니 복이 오고 복이 오니 공덕이 오게 되는 그런 이치를 한번 내 가정 속에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문 요즘이 무더운 여름이어서 그런지 인터넷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귀신에 관한 영화나 연극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듯 보이지 않는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더우면 피서 간다 그러는데 그건 피서구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벌써 '아이구, 속상해' 그러고 피하려고 그럽니다.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단호히 없애려고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백 명, 스무 명, 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그 귀신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귀신이 두렵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지만 귀신이든 귀신이 아니든, 선이든지 악이든지, 부처든지 마구니든지 그 마음은 누구나가 불성은 똑같으면서 악하게 생각을 했다가도 다 준다면 아주 부처가 되는 겁니다. 다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는 도리를 배우십시오. 모든 거를 갖는 도리를 배우지 마시고 주는 도리만 배운다면, 철저하게 100% 준다면 100%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다 버려야 내가 다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어야 항복을 받을 수 있고, 항복을 받을 수 있어야 모두가 내 도량 아님이 없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다 한생각에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건질 수 있고, 내 나라를 건질 수 있고, 모든 지금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 머리에 불리가 터지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죽은 사람을 보든지 귀신을 보든지 선신을 보든지 놀라지 말고 항상 둘이 아닌 걸로 알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닥쳐오는 그 날짜에 임박해 가지고선 꿈이 꾸어진다든가, 어떠한 귀신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둘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환상으로 내보내는 작용이다 하는 것만 알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그 자리에다 도로 놔 버린다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들 하는데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건 시험이다.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하고 그냥 거기다 놓으세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어디 딴 데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네 의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 속지 마라. 나오겁랑 네 주인공에다 모두 일임을 해라.' 이런 걸 알아들으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이 딴 데서 온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의식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 딴 데서 귀신이 온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으로만 알고요. 그러니 그렇게 상대가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 마음, 이 육체 안에 그냥 영가가 셋도 들어가 있고 둘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도 딴 데서 들어온 게 없이 모든 걸 '내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하고선 속지 말고 그냥 주인공에다 일임하고 '너만이 이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곤 그냥 모두 거기다 맡겨 놓으면 다 편안할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팔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실성) 보는 법 ▶삼재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탈종공고

● 사찰명 : **장수암**
● 대표자 : **방형희**
● 소재지 : **경남 마산시 근산면 심리 산 21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용담사**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 2리 746(746-1)**
● 용담사 등기소유자 : **석도정 (조수현)**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불기 2549(2005)년 7월 2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월영도(月影圖)」 그 신비의 세계 복원되다

■ 「월영도」 활용 CD를 내며

지난 수백년간 토정(土亭)이 쓴 「월영도」는 우리 술사(術士)들 사이에서 「비전중의 비전(秘典中 秘典)」으로 알려져 왔으나, 누구 한사람 떳떳하게 밝히고 나오지 못했었다. 「월영도」를 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자들도 어째서인지 후학들에게 전법시키는 일이 없었고, 설사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정통성」 여부는 의심 될 수 밖에 없었다. 확실히 알면 정정당당 한 법이다. 좋은것과 나쁜것, 맞는것과 안맞는것, 진액과 거품을 가려내서 천하의 검증을 받아야 했었다.

이번에 박영창 교수와 내가 음지에서 곰팡이가 필대로 핀 「월영도」를 양지로 끌어내서 그 맹독(猛毒)을 없애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서로 요해(了解)한 자료를 합치시켜 일제시대 판 「월영도」 원전에 대조하여 이를 펴내기로 했다.

보라! 「월영도」는 이제 더이상 비전이 아니다. 몇천만원씩 갖다 바치고 배우는 술법도 아닐 것이다. 떳떳치 못한 방술을 익혀 혹세무민하는 사례들은 바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로지 오행철학(五行哲學)에 진지한 학구자들만이 지금까지 월영도가 지닌 허구성을 발견하고 사계(斯界)의 온당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수 있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이 「월영도」를 진부한 학습서에서 탈피해 몇 차원 높은 단계의 활용서로서의 CD화 작업까지 완료한데 대해 박영창 교수와 나는 이 시대의 하늘이 준 소명완수로 이해하게 되었다.

-고복자 효사-

■ 내방자의 생년월일시만 치면 아래 내용의 해당부분이 화면에 뜹니다.
■ 출생 연월일시가 양력이든 음력이든 「음력」과 「양력」 표시 중 어는 것을 클릭한 후 입력하면 됩니다.
■ 본 「월영도」 활용 CD판매 대상은 월영도의 「진정성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각 대학 · 대학원, 오행철학 교수 및 재학생 • 각 사찰 스님(종단 승적자) • 역학 상담 오행가(소속 단체의 수료증 · 인증서 소지자) • 신명제자(소속단체가입확인자)

■ 구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입가격 : 1백 9만원(1,090,000원) · 육임학회원 79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 정 가 : **1백 30만원(1,300,000원)**
- 신청전화 : **02)993-8680**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 입금통보 : **02)996-3335** (입금후 입금자 성명만 통보하십시오)

www.taotemple.net

■ 「월령도」 활용 CD 구입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혜택을 드립니다.

① 내방자 본인 성씨 아는법 ② 내방자 모친 성씨 아는법 ③ 내방자 배우자 성씨 아는법

- 강의 장소 : 육임학당 「효사숙」 서울 강북구청 왼쪽 첫 옆건물 4층 (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출구)

오는 8월 10일(水요일) 오후3시부터 3시간 동안 위 ①~③까지 서비스 강의를 순차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각 CD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제시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판단자료를 출력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月 影 圖 解

一. 知 姓 法

1. 본인 성씨 판단
2. 모친 성씨 판단
3. 남편 성씨 판단
4. 처 성씨 판단
5. 도움받을 길성씨 판단
6. 피해 받는 흉성씨 판단
7. 애인 성씨 판단

二. 肉 親 法

1. 부모판단
• 부선망 여부 • 모선망 여부
• 모친 多 여부 • 부친 多 여부
• 유복자 여부
• 부모 무덕 초년 고생 여부
• 양자 여부 • 타향살이 여부
• 계모 여부 • 부모 재혼 여부
• 부모 질병 액운 여부
• 부모 직업 여부
• 부모 사망시기 여부

2. 형제판단
가. 형제자매 숫자 여부
• 독신 • 형제 • 두남매
• 세남매 • 사남매 • 오남매
• 육남매 • 칠남매
나. 이복형제 여부
다. 형제화목 여부
라. 형제무덕 여부
마. 형제 질병 액운 시기 여부
바. 형제 사망시기 여부

3. 부부화합 판단
가. 남자
• 부부화합 • 부부불화
• 처재난 • 처손재
• 처첩유무 • 국제결혼
• 처액 • 상처시기(年)
• 처불량 • 현모양처
• 처질병 • 해로
• 사별 • 이별
• 후처대길 • 二妾 유무
• 본처무자 후처유자
• 처바람 • 처도망
• 연애결혼 • 만혼 • 처 음란
나. 여자
• 奸夫 有 • 중년과부
• 노처녀 • 여장부
• 청상과부 • 남자조심
• 사업성공 • 해로
• 노년과부 • 무자식
• 二夫 • 치성득자
• 창녀 • 다복녀
• 병자 • 구설
• 남편 多 • 사별
• 독수공방 • 여사장
• 기생 • 무당
• 喪夫 • 초혼실패
• 남편우매 • 겁탈
• 이민 • 처녀동정
• 喪夫시기(年) • 남편바람
• 연애시기(年) • 밤강간
다. 배우자 직업여부
라. 배우자 질병 액운시기 여부

4. 자녀 판단
가. 자녀유무 여부
• 무자식 • 늦자식
• 양자 • 1자 • 2자 • 3자
• 이형제 • 생이별 • 사별
나.장자 장녀 여부
• 첫 아들 • 첫 딸 • 서자
다.이복자녀 여부
라. 자녀 효성 불효 여부
마. 자녀복
• 아들성공 • 자녀 시험운
• 자녀학당 • 자녀 낭비
• 패륜아 • 극자 • 비방아
바. 자녀 질병 액운 사망시기 여부
사. 자녀직업여부

三. 疾 病 法

1. 수술 유무 여부
2. 건강 여부
3. 불구 여부

4. 질병부위 여부
• 치아병 • 해소병
• 수술 • 폐병 • 어깨
• 중병 • 안경 • 귀신병
• 신경통 • 의처증 • 광증
• 암 • 족상 • 비후
• 소아마비 • 교통사고
• 간암 • 낙태 • 당뇨
• 관절염 • 연주창 • 목병
• 자궁병 • 다리병 • 허리병
• 마귀살 • 성병 • 위암
• 천연두 • 안질

5. 발병시기 여부
6. 사고, 사망시기 여부
7. 수명 여부
가. 단명 나. 복수

四. 貧 富 法

1. 부자 등급 판단
가. 거부 나. 부자
다. 상업치부 라. 타향득세
마. 일시부귀 바. 선빈후부
사. 중년후득재 아. 노년성공
자. 중년말부

2. 빈자 등급 판단
가. 조업탕진
나. 거지 다. 빈자 라. 말년 망

3. 자수성가 판단
4. 부자되는 시기 판단
5. 망하는 시기 판단

五. 職 業 法

1. 월급자 판단
2. 사무직 판단
3. 노무직 판단
4. 특수직 판단
5. 직업변동 시기 판단
6. 실업자 되는시기 판단

六. 性 格 法

1. 유순 2. 태강

3. 능수능란 4. 고지식
5. 간사 6. 편협
7. 진실 8. 음험
9. 활달 10. 허욕
11. 열화 12. 불량
13. 강유겸비 14. 춘풍
15. 인색 16. 탐욕
17. 호주 18. 호색
19. 방탕 20. 청빈
21. 가해 22. 실언

七. 流 年 法

1. 吉年지적판단
• 갑을 吉年 • 병정 吉年
• 무기 吉年 • 경신 吉年
• 甲년 吉 • 乙년 吉
• 丙년 吉 • 丁년 吉
• 戊년 吉 • 己년 吉
• 庚년 吉 • 辛년 吉
• 壬년 吉 • 癸년 吉

2. 吉月지적판단
• 寅月 吉 • 卯月 吉
• 辰月 吉 • 巳月 吉
• 午月 吉 • 未月 吉
• 申月 吉 • 酉月 吉
• 戌月 吉 • 亥月 吉
• 子月 吉 • 丑月 吉

3. 1년 運 지적 판단
• 배우자 이별 • 자손공직진출
• 처자 액난 • 괴이사
• 중년 喪夫 • 동업패망
• 회갑 吉運 • 가족상성
• 부부질병 • 아들병 • 우환

4. 흉운 지적 판단
• 칼 조심 • 물불 조심
• 뱀 조심 • 관재 구속
• 도난 • 손재 • 구설
• 수술 • 요절 • 실직
• 이사손해 • 화재
• 여난 성병 • 집터살
• 효복상복 • 타국살이
• 원생금지 • 동업손해
• 여자손해 • 인간패
• 喪妻 • 身厄 • 문서
• 가액 • 실물수
• 근친조심 • 동업금지
• 관재 • 형처 • 낙상
• 객사 • 산소이장권유
• 개명권유 • 이사권유

5. 재물 득실 판단
6. 애인 배우자 만남 이별 판단
7. 직업 성공 판단
8. 시험 성패 판단
9. 육친 가족 상황 판단

八. 風 水 法

1. 득이 되는 지관(地官) 성씨 판단
2. 吉한 산소 가택 좌향 판단
3. 凶한 산소 가택 좌향 판단
4. 吉 방위 이사 판단

九. 秘 方 法

1. 칠성기도 적합자 판단
2. 산신기도 적합자 판단
3. 용왕기도 적합자 판단
4. 관음기도 적합자 판단
5. 지장기도 적합자 판단
6. 신장기도 적합자 판단
7. 厄을 물리칠 인연 성씨 판단
8. 아들 낳는 비방 판단
9. 첩 떼는 비방 판단
10. 질병 퇴치 비방 판단
11. 소원성취 비방 판단
12. 송사 비방 판단
13. 방액 비방 판단
14. 비방 안하면 망하는 판단

十. 본 CD 구입자 서비스 講義 受講 으로 아는 비법

1. 성씨 확실하게 아는 활용법
2. 모친 성씨 아는법
3. 배우자 성씨 아는법

역학도서출판 · 운세컨텐츠개발전문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

방송 통해 자비 · 행복 전해요

여름에 만난 불자스타 3人

찜통무더위도 잊은 채 방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방송가 불자 스타 3인방. 바로 국민가수 장윤정과 신인탤런트 안세미 그리고 아나운서 김범수다. 바쁜 방송일정을 잠시 접고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날 법도 하지만 '국민의 기쁨조가 휴가가 웬 말이냐'며 손사래를 치는 세 사람. 가수, 탤런트, 아나운서. 각기 활동분야가 다른 세 사람의 공통분모는 뭘까? 바로 모두 '열혈불자'라는 점. 장씨와 안씨는 용인 와우정사와 관악산 연주암에서 그리고 김씨는 길상사에서 불심을 돈독히 키우며 방송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들 세 사람의 톡톡 튀는 신행이야기를 들어봤다. 글=노병철 · 사진=박재완 기자

가수 장윤정

"제 노래 한곡으로 세상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어머나' 열풍으로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트로트계의 신데렐라 장윤정(25). 그녀가 2집 앨범 '짠짜로'로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1집 활동을 병행하면서 쉴 틈 없이 2집 앨범을 준비해온 장윤정이 2집 음반에서 내세운 것은 장르의 다양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트로트는 물론 댄스, 발라드, 힙합 등 여러 장르로 구성된 것이 이번 앨범의 특징. 바쁜 연예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씨는 불교계 일이라면 만사를 접고 달려오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대한불자가수회 명예회원으로 활동 중인 그녀는 이 단체에서 하는 자원봉사(무료바자회, 음성공양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음달 중순에 갑사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에도 참석해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 체험은 물론 불교홍보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경기도 용인 와우정사(주지 해덕)에 다니는 열혈 불자다. TV, 라디오, 음악프로그램 출연 등 바쁜 스케줄로 피곤해 이동 중에는 잠을 잘 법도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염주를 돌리며 마음을 바로잡는다. 또 심신이 지칠 때면 부모님과 함께 와우정사를 찾아 108배도하고 주지스님 법문도 들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저는 풍경소리를 참 좋아해요. 제 노래도 부처님의 향기를 담고 울리는 풍경소리가 되어 모든 사람의 가슴을 행복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화려한 TV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것보다 조촐하지만 불교단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성공양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장씨. 그는 10년 안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원을 세우는 것이다.



봉사 · 템플스테이 등 참가 불교홍보

힘들땐 법문 듣고 기도하며 재충전



탤런트 안세미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숨이 막힐 듯 후끈한 대지의 열기에도 아랑곳없이, 배우들과 스텝진의 얼굴에는 그저 함박웃음이 가득하다. MBC-TV 일일아침드라마 '김약국의 딸들'의 마지막 촬영장 모습이다. 이곳에서 만난 N세대 탤런트 안세미씨(22)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어봤다.

▲연기자의 꿈은 언제부터 키웠나?

-처음부터 연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2001년 연극하시는 선생님을 만나 우연히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루 13시간씩 밤새가며 연습했던 것이 힘들었지만 나에게 있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2003년 공채 탤런트 시험 합격 후에 두려움 때문인지 한 달간을 앓았어요. 앓기 시작해서 7일이 지나자 갑자기 평소 다니던 관악산 연주암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와 함께 108배도 하고 <천수경>도 독송하며 지친 심신을 추스렸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하니 "그래 난 잘 해 낼 수 있어. 더 열심히 배워서 최고의 연기자로 반드시 인정받을 거야"라고 하는 열정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배역 맡고 싶나?

-드라마 '아씨'에서의 여주인공 같은 현모양처 역할도 해보고 싶고, '내 이름은 김삼순'의 삼순이 처럼 톡톡 튀면서도 현실감 있는 연기도 해보고 싶어요.

'천수경' 독송하며 연기자 꿈 다져

단역도 소중, 최선 다하는 배우 될 것

아나운서 김범수

"방송을 통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불법과 자비를 전하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상생과 행복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EBS-장학퀴즈, SBS-접속무비월드의 진행을 맡으며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범수씨(36). 그런 그가 불교에 조금씩 눈뜨기 시작한 것은 20살 때부터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살림은 어려워만 갔고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김씨는 대학입시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터라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다 내탓이오. 이 세상 모든 일은 인연법에 따라 뿌린 인과에 따라 받는 것'이란 한 스님의 법문 내용이 실린 기사 내용을 접하고 불교에 귀의했다. "대학원 2학기 때 불교, 개신교, 동 · 서양 철학에 관련된 서적이란 서적은 모두 탐독하며 비교종교학에 심취했었죠. 또 <만행>의 저자인 현각 스님,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등을 찾아다니며 궁금증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마음 속에 있는 의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런 큰 의문을 풀기위해 대학원 1학기를 휴학하고 지리산 화엄사 연기암, 변산반도 부사의 방 등지를 답사하며 만행을 떠난 적도 있었다. 특히 부사의 방에서 만난 한 스님이 주신 <금강경>과 <도덕경> 그리고 <명심보감>은 무명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마음에 등불과도 같았다.

그 후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방송계로 진로를 선회했다. 바로 내안의 향기를 키워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김씨는 종교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2년 전 가톨릭 신자인 이휘향 박철씨, 불자인 장서희씨 등을 비롯한 연예인들과 각계 저명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무량회'를 조직해 친목을 다지며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종교서적 탐독, 만행 등 경험

'무량회' 조직 종교간 화합에도 앞장

